

발 간 등 록 번 호

74-4500000-100040-14

www.gongju.go.kr

강한공주, **구내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강한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함께 만들 큰공주

Contents

[인터뷰] 최원철 시장	008
[일반현황]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주	028
[시정일지]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030
[수상내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군 성과	036
[공모사업 선정] 지역 발전 앞당긴 공모사업 선정	044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Part. 1 삶의 희망이 꽃피는 공주

01 지속 가능한 성장의 씨앗, 공공기관 유치에서 싹트다	060
02 주민이 그려낸 계룡면의 미래 청사진	064
03 29만 시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고향, '온누리공주'	066
04 '메타버스 공주'로 디지털 관광의 새 지평 열다	070
05 '안전한 공주' 구축,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도약 추진	072
06 재난 안전 체험교육으로 안전 취약계층 재난 대응력 강화	076
07 위기의 농촌, '생활인구' 확대로 돌파구 확보	078
08 쾌적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082
09 세종 인접 요충지에 5천 명 이상 수용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084
10 도시개발로 인구 증가 도시로 대전환	086
11 마을해설사 84명 양성으로 도시재생에 '활력'	088
12 시민 주도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변화 실현	092
13 역사와 문화가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 제민천 일대	096
14 도시재생 뉴딜로 문화 ·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한 원도심	100
15 '전원주택단지'로 인구 유입과 균형발전 실현	104
16 강남 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균형발전 가속화	106
17 일상 속 휴식 공간 소공원의 재탄생	108
18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로 3가구 실제 정착	112
19 공약 이행률 95.50%, 혁신 행정으로 '품격 있는 도시'	116
20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빈틈없는 '안전망'	118
21 공주시 '인구 활력 되찾기 프로젝트' 성공적 결실	122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민리함제일큰더공공주

2022. 07. - 2026. 06. 민선 8기 공주시정백서

Part. 2 혁신으로 내일을 만드는 공주

01 첨단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도시 기틀 마련	128
02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산업단지 미래 경제 선점	132
03 첨단기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새 동력	134
04 충청권 '대규모 물류거점'으로 비상	136
05 노후 공장에 혁신 숨결, 지식산업센터로 재탄생	138
06 유구 섬유산업, '스마트'와 '관광' 품고 재도약	140
07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144
08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중부권 철도 거점으로 도약	146
09 월송·반죽 지역에 총 169면 주차 공간 확보	150
10 제2금강고, 문화재 난관 넘어 2027년 준공 가시화	152
11 생산-가공-유통-관광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156
12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농촌에 새바람	160
13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162
14 로컬푸드 자체 인증 236개소, 학교급식 인증률 90% 돌파	164
15 로컬푸드 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 소비자 신뢰 제고	168
16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172
17 광역 BRT 구축, 승용차 이용 억제와 탄소배출 감축 기대	176
18 드론과 함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	178
19 예찬버, 종자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	180
20 공주알밤한우, 농가 자원·적극적 마케팅으로 인지도 제고	184
21 공주밤, 생산 기반 갖추고 국제박람회로 세계화 실현	188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Contents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Part.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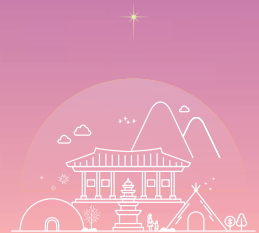
01 마을 단위까지 전 생애 학습권 보장 총력	192
02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196
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성 강화로 청소년 복지 향상 기대	198
04 학생 중심의 능동적 진로 체험 시작	200
05 청소년의 날, 문화축제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204
06 청소년지도사 보수 체계 합리화로 사기 진작	206
07 시민의 수요 반영 프로그램,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208
08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공주' 구현	210
09 독립 정신 계승과 '따뜻한 공주' 구현	214
10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시민소통형 새 공간서 기능 강화	216
11 효(孝)의 가치 확산으로 '효의 고장' 위상 제고	218
12 주거-의료-복지-요양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222
13 경로당, '건강한 여가생활' 거점으로 변모	226
14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으로 보육 현장 활력	228
15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놀 권리' 보장	230
16 여성 활동공간 보강, 더 나은 '여성친화도시'로	232
17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236
18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통학 불편 해소	240
19 눈높이에 맞는 임신 출산 지원으로 든든한 출산환경	242
20 시민 건강 증진 위한 '체육 복지시설' 전면 확장	246
21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250
22 청소년 심리 안정부터 진로 탐색까지 원스톱 지원	254
23 지역 대학과 손잡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260
24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활력	264
25 여가, 건강, 소득 등 어르신 삶의 질 전방위 향상	268
26 전문 체육시설 확충으로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기반 마련	272



Part. 4 역사와 문화로 빛은 더 빛나는 공주

01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금강 변, 명품 수변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278
02 걸으며 만나고 체험하는 공주 역사와 문화	282
03 백제문화 콘텐츠와 공주 정체성 담은 복합시설 조성	284
04 탄천면 폐금광, 금빛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288
05 무성산 홍길동 설화 품은 힐링 테마길 조성	290
06 꽃 피는 유구읍, 수국정원과 함께 변화의 바람	292
07 밤에도 빛나는 '힐링 명소'로 재탄생한 계룡저수지	296
08 백제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성과	300
19 공산성-무령왕릉, 유네스코 유산을 잇는 발걸음	304
10 역사 인물 기념 공간 조성, 방문객과 시민 편의 증진	308
11 세계유산 공산성 주변 관광 콘텐츠 추가 확보	312
12 주미산 내 주변 연계 자원 활용한 건강 투어 코스 개발	314
13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미르섬 꽃무리	318
14 사계절 축제 성공으로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322
15 도시재생 거점시설 잇따른 조성, 원도심에 활력	328
16 '밤이 즐거운 도시'로 체질 개선	334
17 폐공간 재생 통한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확충	338
18 금강에 백제 숨결 담은 '문화관광 벨트' 조성	342
19 1,500년 역사 유산을 미래 문화콘텐츠로 활용	346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2024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의 '문화재' 명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단일 명칭에서 탈피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3가지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관리 기관인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열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공주
평범한 시민
시민과함께하는공공공주





馬不停蹄 마부정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붉은 말의 기상으로 변화의 완성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공주시의 모든 공직자는 공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강한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의 마음에 닿는 문화유산

더 크고

강한 공주를 향한 민선 8기 시정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최원철 시장은 그동안의 발걸음을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민선 8기의 열매를 맺는 ‘완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를 거치며 공주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최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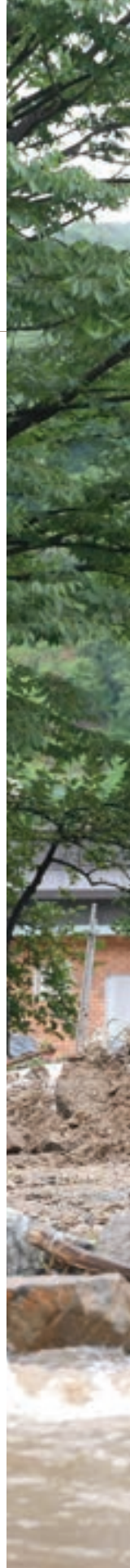
끊임없는 소통과 변화를 위한 노력

최원철 시장은 “돌이켜보면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하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공약 이행률 97.15% 달성,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 5,632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왔다는 증거였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이어가며 ‘변화와 혁신’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력



『 시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공약 이행과 재원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의 공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변화



☞ 생활인구 정책과 온누리 공주시민 확대를 통해
더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공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CCTV 확대 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공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최원철 시장은 “공주는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변화 중 하나였다”라며, ‘온누리 공주시민’ 가입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에 이어 2025년 2분기 충남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선 8기에 들어서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또 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최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보험을 본격 시행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공주’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역사

문화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플랫폼

최원철 시장은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였다”라고 전제하며, “민선 8기에는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000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에 개최한 ‘제71회 백제문화제’는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공주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주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 내내 축제가 흐르고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제문화촌과 백제문화전당 조성 등을 통해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역사문화도시 공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공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성화

지역 산업 체질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최원철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총 95개 기업을 유치하고 1조 193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였다. 남공주 일반산업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 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공공 배달 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사용액 8,000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며 지역경제의 체력을 다졌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와 새로운 활력으로 성장

최원철 시장은 “공주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천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였다”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 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 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발전 중이라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교육



0세부터 18세까지 책임지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뇌운동학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과 시민 건강을 위한 복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복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최원철 시장은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 다’라는 원칙으로, 공주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매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충남에서 처음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였다”라고 설명했다. 공주교대 수영장 개방, 야외 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 건강 복지도 강화되고 있었으며, 보육·복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총력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행복 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제2차 청년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주시는 기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 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 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의 주거, 일자리, 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

농업

지속 가능성 구축한 공주 농업

최원철 시장은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공주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 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었으며 기후 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2025년 공주알밤특구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 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국가정원과 도시개발, 역사문화 사업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공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성

민선 8기가 열매를 맺는 ‘완성의 시간’

최원철 시장은 “민선 8기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완성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률이 95%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조성 등을 통해 “공주만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더 강화하고, 미래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교육,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

성장

시민과 함께 걷는 변화와 성장의 길

최원철 시장은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저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라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주의 변화를 만들어 왔고,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과 함께 공주의 변화와 성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주

행정구역

1읍	9면	6동
249리	147통	2,054반

면적

864.16 km ²	충남의 10.5%, 15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
------------------------	---------------------------------

인구

99,979명

(2025년 12월 말 기준)

세대수

53,661세대
1세대당 1.86명

(2025년 12월 말 기준)

주택

59,642호
주택 보급률 124.5%

(2024년 12월 말 기준)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민리해함제일공주

경지면적

11,222ha	농가 1가구당 1.2ha
----------	---------------

(2024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

1,126명	1인당 시민 90명
--------	------------

(2024년 12월 말 기준)



교통사고

316건

하루 평균 0.87건

(2024년 12월 말 기준)

화재

163건

1개월당 14건

(2024년 12월 말 기준)

교원

2,048명

교원 1인당 학생 15명

(2024년 4월 초 기준)

학생

30,143명

1가구당 0.62명

(2024년 4월 초 기준)

의사

151명

의사 1인당 시민 671명

(2024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지방세부담
1,442억 원

1인당 142만 4천 원

(2024년 12월 말 기준)

상수도

급수량 39,493㎥

1일 1인당 413L

(2024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60,362대

1세대당 1.65대

(2024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286명

(2024년 12월 말 기준)

관광객

393만 9천 명

하루 평균 10,792명

(2024년 12월 말 기준)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비전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공주시 민선 8기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역의 잠재력을 깨우고 침체한 산업과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눈앞의 단편적인 성과보다 미래의 공주를 꿈꾸며 시민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공주 시민의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공주시
청년센터 개소식



금강철교 자살예방
SOS 생명의 전화 개통식

- 07.01. 민선 8기 최원철 시장 취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정 비전 확정
- 07.0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 착수
- 07.06. 공공자전거 ‘QR코드’ 대여 서비스 도입
- 07.07. 충남 최초 미래유산 제도 도입(백제문화제, 산성시장 등 14건 ‘미래유산’으로 선정)
- 07.19. 민선 8기 첫 업무계획 보고
- 08.05. 공주시 청년센터 개소
- 09.18. 2022 공주백제마라톤 개최 (3년 만에 개최)
- 09.29. ‘공주알밤센터’ 개소
- 10.01.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
- 10.04.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계획 최종 승인
- 11.04. 금강철교 SOS생명지킴전화 첫 개통
- 11.09. 공주시, ‘SRT어워드’ 국내 최고 여행지 3년 연속 선정
- 11.22. 공주시, ‘제8회 2022 올해의 SNS’ 최우수상
- 12.01. 무령왕릉과 왕릉원 · 공주한옥마을,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
- 12.03.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준공
- 12.08. ‘공주페이’ 누적 3,800억 달성, 배달앱 34억 원 돌파
- 12.14. ‘공산성 ·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2022

- 01.12. '공주페이' 누적 발행액 4,000억 돌파
- 01.18. 옥룡교차로 일원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설치
- 01.27.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 02.20. 행안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03.02. 학생 교통환경 개선 위한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
- 03.15.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 03.17.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05.10. 충남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 07.01.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시행
- 07.07. '2023 세계유산축전' 오는 7일 개막
- 07.13.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
- 07.19. '특별재난지역' 선포
- 08.1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 섬유산업 소공인 육성
- 08.30. 제2금강교 건설사업 착공식
- 09.04. 금강교 투신자살 방지를 위한 지능형 CCTV 21대 설치
- 09.23. 2023 대백제전 개막
- 10.27. 산불대응센터 준공
- 10.30.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사업' 1차 사업 완료
- 11.02. '제민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마무리
- 12.15. '옥룡어울림센터' 준공
- 12.22. 스마트 드론센터 개소
- 12.31. 고향사랑기부제 첫해(2023년) 4억 원 돌파

2023



옥룡동 스마트
버스 정류장



탄천면 대학리
수해 현장 방문

“
시민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





농촌왕진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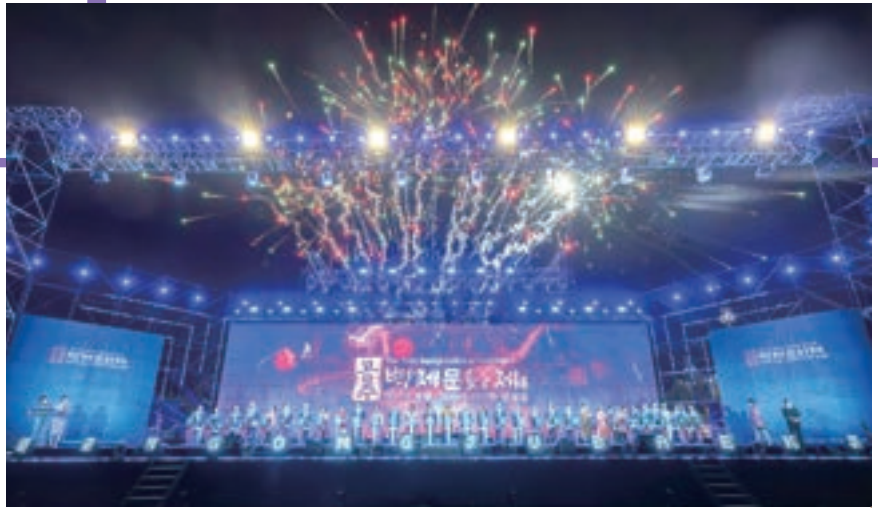


2024

- 01.03.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 01.18.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 01.31.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 02.29. 유관순교육관 건립 추진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02.29.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
- 03.14. 문체부 평가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 03.22. 웅진 파크골프장 18홀 추가 증설
- 05.30. 충청남도 시행 '2023년 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06.08. 2024 충청남도 드론챌린지 대회
- 06.12. '농촌 왕진버스' 본격 운영, 의료 사각지대 해소
- 06.27. 취임 3주년 기념 언론인 간담회
- 06.28.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 07.01. 2년 연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사업 선정
- 07.10. 800억 원 규모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 07.11.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 공모 최종 선정
- 07.13.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 개최
- 07.17. '온누리공주 시민' 18만 명 돌파
- 07.19. '공주 알밤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07.31.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 08.01. 교육부 '우수 평생학습도시' 2회 연속 지정
- 08.02. 행안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선정
- 08.02. 드론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 08.14. 1분기 생활인구 55만 5천여 명, 충남 1위
- 08.16.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드론 실증 도시
구축사업

제70회 백제문화제
무령왕 상장례 재연



제70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 09.05. 1호 저탄소인증 버 재배 농가 탄생
- 09.28. '제70회 백제문화제' 개막
- 10.08. '웅진식품(주) 통합물류센터' 확장 준공
- 10.17. '월송동 공영주차장' 개장...155면 조성
- 11.12.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 11.21. 제70회 백제문화제,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동상'
- 12.04. 공주-세종 광역BRT 사업 착공식
- 12.06. 전국 최초 '스마트 자전거주차장' 시스템 시범 운영
- 12.11.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2.16.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5.5% 달성 (76개 공약 중 56개 완료)
- 12.19.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
- 12.30. '공주알밤' 베트남 첫 수출
- 12.30. '신관동 공영주차장' 준공(255면 규모)
- 12.30.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
멈췄던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

2025

공주목
전시관 내부

- 01.15. 농식품 수출 실적 역대 최고, 충남 1위(2024년)
- 01.24. 백제유적지(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 선정 (7회 연속)
- 02.04. 신관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개관
- 02.20. '고마곰과 공주' 상표 출원 추가 등록
- 02.21.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 100% 분양
- 02.22. 청년 공유주택 준공 및 입주식
- 02.27.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 03.07.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 04.02. 한국서부발전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착공
- 04.23. '공주목 전시관' 개관
- 04.23.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착공
- 04.30. 교육발전특구 '학습형 놀봄지원센터' 개소
- 05.01.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착공
- 05.18. 쌍신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준공
- 05.21. 쌍신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준공
- 05.28.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 개관
- 06.20. 유구~서울 고속버스 운행, 교통편의 개선
- 06.27. 복합문화공간 '행복누리' 개관
- 06.27. 시청 주차타워 준공, 210면 규모
- 07.16. 집중호우 피해 발생
- 07.29. '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개관
- 08.05.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최종 선정
- 08.07.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집중호우 피해복구 속도
- 08.15. '제1회 공주아(夜)밤 맥주축제' 개막
- 08.29.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개관
- 09.10.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
- 09.24. 백제문화이음길 조성 사업 준공

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준공 및 개관식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 준공식

- 10.01. 복합문화공간 '마을온(ON)' 개관 (옛 아카데미극장)
- 10.03. 제71회 백제문화제 개막
- 10.10. 어린이 안전보험 전격 시행
- 10.17. 시민소통플랫폼 '다정공감 공주' 시민패널 7천 명 돌파
- 10.21. '공주 충청감영 생생마을' 개관식
- 10.28. 청주국제공항-공주·부여 연결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 시범 운행
- 11.0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개소
- 11.05. 공주시, '2025 SRT어워드' 국내 최고 여행지 '대상'
- 11.06. '공주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준공식
- 11.06. '공주알밤특구' 전국 최우수 특구 선정, 대통령상
- 11.19. '왕도심 코스' 지식재산처 상표 등록 완료
- 11.2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
- 11.30.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 준공
- 12.16. 공주밤, '2025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최우수상·우수상 석권
- 12.26.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

행복한 일상이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2026

- 01.02. 2026년 시무식, 시정 운영 각오 '마부정제(馬不停蹄)' 제시
- 01.05. 충청남도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01.05. '공주페이' 환급 지원 비율 15%로 조정
- 01.09.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최종 선정
- 01.12. '유구전통시장'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01.15. 행정안전부가 공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 범죄 분야 1등급
- 02.04.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개최

대한민국이 꿈꾸는 도시, 공주시가 앞서 갑니다

공주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주가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선례를 남기고, 대한민국이 꿈꾸는 지방 도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2022. 07.~2026. 04. 시책평가 수상 현황

총 **228**건정부 부처 **89**건충청남도 **87**건기타 **52**건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2. 08.	보건복지부	치매정신과	2022 공주정신건강 학술문화제 유공자 표창
2022. 08.	충청남도	산림공원과	2022년 임도평가 최우수(1위)기관
2022. 10.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기관
2022. 10.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2022년 나눔실천 연중모금 최우수기관
2022. 10.	충청남도	평생교육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우수
2022. 10.	(사)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상(원도심 활성화부문 대상)
2022. 11.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과	2022년 국내 토착기생충질환 조사사업 유공 기관 장관표창
2022. 11.	산림청	산림공원과	2022년 학교숲 사업지 평가 우수기관
2022. 11.	충청남도	축산과	2022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관표창
2022. 11.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2022년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2022. 11.	충청남도	건강관리과	2022년 건강증진사업 유공 도지사표창(금연사업)
2022. 11.	SRT매거진	관광과	2022 SRT어워드 대상
202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소통담당관	2022 올해의 SNS(올해의 블로그 최우수상)
202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소통담당관	2022 올해의 SNS(올해의 페이스북 최우수상)
2022. 11.	대한적십자사	주민공동체과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행정기관
2022. 12.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유공 우수기관
2022. 12.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2022년 건강증진사업 유공 장관표창(국민영양관리)
2022. 12.	산림청	산림공원과	2022년 숲가꾸기 우수기관(전국 지자체 1위)
2022. 12.	행정안전부	도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2022. 12.	행정안전부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2. 1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2년도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2022.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과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장려
2022. 12.	충청남도	세무과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	결핵예방사업 유공 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감사정보담당관	2022년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운영현황 평가 우수
2022. 12.	충청남도	건강관리과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유공 표창
2022. 12.	충청남도	농촌진흥과	2022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경로장애인과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2022년 농식품 수출확대 유공기관 표창
2022. 12.	충청남도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기관
2022. 12.	충청남도	행정지원과	2022년 충남 혁신업무 우수기관
2023. 01.	충청남도, TJB 대전방송	홍보미디어실	2022 충남 홍보 영상대전 최우수상 수상
2023. 02.	행정안전부	행정지원과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 02.	충청남도	시민안전과	지역안전지수 개선 유공(교통분야)
2023. 03.	중앙일보	관광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지자체 브랜드부분 대상
2023. 0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감사실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A등급'
2023. 04.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시민안전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비상대비태세 확립 유공
2023. 4.	충청남도	세무과	2022년 회계 지방세징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3. 04.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2022년 시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2023. 04.	연합뉴스	농촌진흥과	2023 Y-FARM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우수지자체 선정
2023. 04.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2023. 0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산림공원과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임산물 부문 대상 수상
2023. 05.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2023년('22년 실적)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우수
2023. 06.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2022년 녹색제품 구매 유공
2023. 0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2022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 07.	충청남도	농촌진흥과	충청남도 귀농귀촌 발전 유공 기관표창 수상
2023. 08.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2023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2023. 08.	충청남도	산림공원과	2022년 임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 08.	환경공단	환경보호과	2022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 '최우수 시설' 선정
2023. 08.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관광과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3. 09.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2023년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2023. 09.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2023년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2023. 10.	충청지방통계청	미래전략실	2023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기관 장려 수상
2023. 10.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정책과	2023년 나눔실천 최우수기관 선정
2023. 10.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3. 10.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2023. 10.	한국환경공단	환경보호과	2022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유공
2023.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202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우수기관 대상
2023. 11.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기관 선정
2023. 11.	경찰청	도시정책과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 수상
2023. 11.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3. 11.	충청남도	세무과	2023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 11.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2023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최우수상 수상
2023. 1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홍보미디어실	공주 시정 소식지 '홍미진진 공주' 특별상 수상
2023. 11.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홍보미디어실	제9회 2023 올해의 SNS 대상 '블로그 부분', '페이스북 부분' 최우수상
2023. 11.	(사)세계축제협회	관광과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아간크리에이티브 부문
2023. 12.	행정안전부	도로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3. 12.	행정안전부	경제과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최고등급)
2023. 1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 12.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코로나19 우수백서 선정
2023. 12.	충청남도, 충남통합 건강증진개발원	건강관리과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 대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3. 12.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23 자활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3. 12.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 1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 선정
2023. 12.	충청남도	홍보미디어실	2023 충남 홍보 영상대전 '우수상' 수상
2023. 12.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 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로장애인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추진 유공
2023. 12.	중소벤처기업부	산림공원과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 '우수 지역특구' 선정
2023. 12.	충청남도	민원토지과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23. 12.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활성화 '최우수기관상' 수상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3. 12.	농림축산식품부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3. 12.	충청남도	기획감사실	2023 충청남도 정부혁신 유공 시군 선정
2023. 12.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2023 공공자원개방서비스 우수등급 선정
2023. 12.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2023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우수기관 선정
2023. 12.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2023 물관리 유공 표창
2023. 12.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2023 주민과 함께하는 도량살리기 우수도량 선정
2023. 12.	금강유역환경청, 중도일보	환경보호과	2023년도 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2023. 12.	행정안전부	행정지원과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정
2023. 12.	충청남도	행정지원과	2023년 기록관리 분야 유공기관 표창
2023. 12.	행정안전부	세무과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 12.	행정안전부	경제과	2023 하반기 지역물가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2023. 12.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2023년 도시개발 사업추진 유공 기관 표창
2023. 12.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202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2023. 12.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2023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2023. 1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2023년 재난·약무 분야 유공
2024. 02.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등급(최고등급)
2024. 03.	행정안전부	스마트정보과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2024. 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결과 '우수도시' 선정
2024. 04.	2024 케이블TV 방송대상	홍보미디어실	케이블TV 우수지자체상 수상
2024. 0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산림자원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임산물 분야)
2024. 04.	연합뉴스	농촌진흥과	Y-FARM EXPO '24 우수정책사업 콘테스트 최우수
2024. 04.	(사)한국지방신문협회	관광과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2024. 05.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기획감사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SA등급(최우수)
2024. 05.	충청남도	세무과	충청남도 지방세징 종합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 05.	행정안전부	축산과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유공 장관표창
2024. 05.	타이베이관광박람회	관광과	제18회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우수콘텐츠 부문
2024. 06.	충청남도	안전총괄과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2024. 07.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기관 표창
2024. 07.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	관광과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마케팅 부문 우수상 수상
2024. 07.	특허청	농식품유통과	공주알밤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2024. 08.	교육부	평생학습과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2회 연속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4. 09.	동아일보	농촌진흥과	창농 ·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2024. 09.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제52회 보건의 날 유공 표창
2024. 09.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24. 09.	문화체육관광부	평생학습과	제30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수상(공주시적의도서관)
2024. 10.	산림청	허가건축과	2024년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국무총리) 표창
2024. 1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활력과	제20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선정
2024. 10.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나눔실천 최우수 기관(연중모금 부문)
2024. 10.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
2024. 10.	(사)충남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농촌진흥과	제4회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 우수농특산물 품평회 대상
2024. 10.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 학교급식 역량평가 '우수 시군' 선정
2024. 10.	충청남도	축산과	충남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장려상
2024. 1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충남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대상
2024. 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제21회 전국한우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 11.	국토교통부	지역활력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평가 '우수상' 수상
2024. 11.	교육부	평생학습과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
2024. 11.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제14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전국 시 단위 1위)' 수상
2024. 11.	충청남도	농촌진흥과	농업인 교육 분야 충청남도지사 기관상 수상
2024. 11.	한국프레스센터	홍보미디어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올해의 상' 수상
2024. 11.	한국소설콘텐트진흥협회	홍보미디어실	'올해의 SNS' 블로그 · 페이스북 3개 부문 수상
2024.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
2024. 11.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관광과	'제70회 백제문화제'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동상' 수상
2024. 11.	충청남도	안전총괄과	충청남도 읍지연습 우수기관
2024. 11.	SRT매거진	관광과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2025년 SRT 방문도시' 10
2024. 11.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아동정책영향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2024. 11.	충청남도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4. 12.	충청남도	도로과	추계 도로정비 우수기관 평가 우수상
2024. 12.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활력과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경진대회 우수상
2024. 12.	충청남도	건강관리과	충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기술보급과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 7년 연속 우수 운영기관 선정
2024.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가족친화 인증 재인증기관 선정
2024. 12.	충청남도	세무과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4. 12.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자살 예방대책 협업과제 평가 '우수상' 수상
2024. 12.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평가 2년 연속 '우수'
2024. 12.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발전 유공기관
2024. 12.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우수사업 선정
2024. 12.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 유공 기관 표창
2024.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신규협약 지정
2024.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공주새일센터 2024년 새일센터 사업평가 A등급 달성
2024. 12.	충청남도	건설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 충청남도 우수기관
2024. 12.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유공
2024. 12.	충청남도	산림공원과	연말 산림사업(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유공 표창
2024.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공주새일센터 2023년 새일센터 사업평가 A등급 달성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과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성과평가 장려상
2024. 12.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장려 표창
2024. 12.	충청남도	치매정신과	충청남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우수기관 선정
2024. 1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2024년 재난·약무 분야 유공
2024. 12.	충청남도	기획감사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최우수기관
2024. 12.	충청남도	기획감사실	충청남도 혁신업무 유공 우수기관
2024. 12.	충청남도, TJB 대전방송	홍보미디어실	2024 충남 홍보 영상대전 최우수상 수상
2025. 02.	행정안전부	기획감사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최고등급)
2025. 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2024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결과 '우수도시' 선정
2025. 03.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유공
2025. 03.	(주)한국전시산업원	관광과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2025. 04.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산림자원과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임산물 분야
2025. 0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감사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우수)
2025. 05.	충청남도	세무과	2024년 회계 지방 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려)
2025. 06.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2024년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2025. 06.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2025년 나눔실천 최우수시군 선정(캠페인모금 부문)
2025. 06.	보건복지부	공주문화	국립공주병원 협업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5. 07.	문화체육관광부	공주문화	지역문화 우수사례상
2025. 07.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광과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부문 최우수상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5. 08.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2025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2025. 08.	동아일보	농촌진흥과	2025 창농 ·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2025. 09.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우수기관 선정
2025. 09.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신직무 시범사업 부문 최우수상
2025. 09.	전국문화도시협의회	공주문화	문화도시 조성 및 발전 공로
2025. 09.	세계축제협회	공주문화	'공주 국가유산 야행' 친환경프로그램 부문 은상
2025. 10.	충청남도	민원토지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5. 10.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과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결과 A등급 달성
2025. 10.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2025년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2025. 10.	(주)한경매거진&북	관광과	2025년 SRT 어워드 대상
2025. 11.	문화체육관광부	평생학습과	2025년 도서관 협력 유공 장관상 수상(웅진도서관)
2025. 11.	충청남도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평생학습과	2025년 제7회 충남 평생학습대상 기관단체부문 도 교육감상 수상
2025. 11.	충청남도	홍보미디어실	2025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선정 대회 충남도지사상
2025. 11.	지방시대위원회	미래전략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2025. 11.	충청지방통계청	스마트정보과	2025년 충청지역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2025. 11.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자원과	공주알밤특구 전국 최우수특구 선정, 대통령상 수상
2025. 11.	(사)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	홍보미디어실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대상 수상
2025. 11.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홍보미디어실	2025 올해의 SNS 대상(블로그 부문)
2025. 11.	행정안전부	신풍면 주민자치회	신풍면 주민자치회, '옛지명 마을지도 설치사업' 주민자치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2025. 11.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자치행정과	202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2025.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과	농촌지원사업 성과확산 전국 경진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2025. 1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감사실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서트로 문화기반 도시활력분야 우수상 수상
2025. 12.	국무조정실	인구정책과	2025년 제2차 청년친화도시 최종 선정
2025. 12.	충청남도	기획감사실	2025년 충남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2025. 12.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2025년 도시재생업무 추진 유공
2025. 12.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2025년 충남농촌대상 시군중간지원조직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상 수상
2025. 12.	한국사보협회	홍보미디어실	공주시 소식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대상
2025. 12.	충청남도	안전총괄과	2025년 자연재난 대응 분야 재해예방 활동 유공
2025. 12.	질병관리청	건강관리과	2025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5. 1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과	2025년 감염병 대응 유공기관 선정

날짜	시상 기관	수상부서	내역
2025. 12.	충청남도	건강관리과	2025년 건강증진사업 금연분야 우수기관 표창
2025. 12.	충청남도	스마트정보과	2025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우수 시군
2025. 12.	충청남도	세무과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5. 12.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기관표창
2025. 12.	세계축제협회	공주문화	'공주 국가유산 야행' 홍보디자인물 부문 금상
2025. 12.	세계축제협회	공주문화	'공주 국가유산 야행'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부문 은상, 머천다이즈 부문 동상
2025. 12.	세계축제협회	관광과	제19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영상미디어 부문 은상
2025. 12.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2025.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로장애인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장관상 수상
2025. 1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2025. 1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최우수상
2025.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유통과	2025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우수상(A등급) 수상
2025. 1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과	2025년 제3회 ASTIS 데이터 연계활용 경진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2025. 12.	충청남도	농촌진흥과	2025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
2025. 12.	충청남도교육감	평생학습과	2025년 충남평생학습대상, 충청남도교육감상 수상
2025. 12.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25년 조직운영 우수기관 표창
2025. 12.	농림축산식품부	기술보급과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2025. 12.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2025년 농업인·농업기계 교육 우수콘텐츠 경진 우수기관상 수상
2025. 12.	충청남도	도로과	2025년 도로사업, 손실 보상 및 미지급용지 보상 우수기관
2025. 12.	충청남도	질병관리과	2025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평가 우수상 수상
2026. 01.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기관
2026. 01.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2025년 지역·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합동평가 도시계획 분야 우수기관
2026. 03.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과	2025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기관표창
2026. 04.	대한민국대표 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산림자원과	공주알밤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026. 04.	(사)한국지방신문협회	관광과	제6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대중선호도 최우수상

창의력과 집중력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깁니다

공주시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확보는 물론,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창안하고 구체화하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공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2. 07~2026. 04. 공모사업 선정 내역

총 **281**건 | 정부 부처 **124**건 | 충청남도 **85**건 | 기타 **72**건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83건	577,283	183,900	130,379	249,432	13,577
2022	국토교통부	보건정책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967	677	87	203	-
2022	충청남도	평생교육과	2022년 도 인증서점 도서구입 캐시백 지원사업	2.1	-	2.1	-	-
2022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과	2023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	1,000	500	-	500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1,740	870	261	609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세계유산축전	3,500	2,000	300	350	850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496.49	248.25	74.47	173.77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세계유산 홍보사업	509.99	255	76.49	178.5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세계기록유산 홍보사업	160	80	24	56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문화재 야행	385	154	69.3	161.7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향교서원 활용사업	375	150	67.15	157.85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205	82	36.9	86.1	-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72.5	29	13	30.5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2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ICT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사업	195	78	35.1	81.9	-
2022	충청남도	경제과	2022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240	-	28.8	67.2	144
2022	충청남도	경제과	2022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80.4	-	21.7	48.2	10.5
2022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사업	550	-	165	385	-
2022	국토교통부	교통과	23년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2,990	1,794	-	1,196	-
2022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2022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10,000	-	6,936.40	3,063.60	-
2022	충청남도농업기 술원	농촌진흥과	2023년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사업 공모	63	-	18.9	25.2	18.9
2022	충청남도농업기 술원	농촌진흥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기술지원사업	210	-	31.5	73.5	105
2022	충청남도농업기 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고품질 수경재배 기반조성 시범)	350	-	175	175	-
2022	국토교통부	보건정책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67	677	87	203	-
2022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AI ·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73.2	36.6	11	25.6	-
202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실	지역수요맞춤지원 정안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3,520	2,400	-	1,120	-
2023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역사문화를 연계한 야간관광 "공주-야, 놀자"	3,900	3,900	-	-	-
2023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공주미식학교 조성	5,900	5,900	-	-	-
2023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소멸위험농촌학교 살리기 (정안지교 프로젝트)	3,000	3,000	-	-	-
2023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1,900	1,900	-	-	-
2023	국무조정실	미래전략실	지역청년이 만들어가는 '공주시 청년타운' 조성	55	40	-	15	-
2023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지역창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32	-	9	23	-
2023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사업	45	-	13	32	-
2023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충남 청년창업 · 창직 지원사업	180	-	90	90	-
2023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청년공동체 활동화사업	16	10	-	6	-
2023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과	유구읍 CCTV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366	-	109.8	256.2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900	-	570	1,330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경천1리)	2,246	1,653	177	416	-
202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활력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12,063	4,000	-	8,063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12,000	-	10,000	2,000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도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	35	-	17.5	17.5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리모델링	300	-	90	210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생태습지공원 복원 조성사업	25	-	7.5	17.5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돌담길 장터 사업	160	-	48	112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유네스코세계유산 주변 경관 정비사업	50	-	15	35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마을가꾸기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어가기	50	-	15	35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신관동 주민자치회 로고 및 홍보용품 제작사업	35	-	10.5	24.5	-
2023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	30	-	9	21	-
2023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과	2023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40	70	-	70	-
20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46	23	-	23	-
2023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2023년 충남 문해교육 지원사업	20	-	10	10	-
2023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18	-	9	9	-
2023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충청남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44	-	22	22	-
2023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	79.8	-	24	55.8	-
2023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활성화 사업	65	-	19.5	45.5	-
2023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철화분청사기 주민체험교육	50	-	15	35	-
2023	충청남도	관광과	동학사 가로수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300	-	90	210	-
2023	충청남도	관광과	2023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100	-	13.9	86.1	-
202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2023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육성 지원사업	250	150	-	100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웃놀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0	100	50	50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웃놀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00	50	25	25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공주 문화재 야행	800	320	144	336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317.5	127	57.2	133.3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92.5	37	16.7	38.8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고택종갓집문화재 활용사업	60	24	10.8	25.2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197.5	79	35.6	82.9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32	12.8	5.76	13.44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1,760	800	240	720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72	36	10.8	25.2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세계유산 홍보사업	510	255	76.5	178.5	-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세계유산축전	3,000	1,500	225	350	925
2023	문화재청	문화재과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	40	20	10	10	-
2023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과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SI 안부살핌 서비스사업	80	-	-	-	80
2023	행정안전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문돌봄 서비스사업	140	70	-	70	-
202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12	330	41	41	-
202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로장애인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3,000	2,100	-	900	-
2023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2023년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4.8	-	27.4	27.4	-
2023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2023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8.5	-	2.55	5.95	-
2023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공주시 지식산업센터 (일자리 창업 복합자원센터) 건립	29,100	16,000	2,500	10,600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3	한국에너지공단	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286	1,118	288	1,327	553
2023	충청남도	경제과	2023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86	—	50	111	25
2023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제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1,220	770	—	450	—
2023	충청남도	경제과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산성시장)	1,150	—	690	345	115
2023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1,000	—	300	700	—
2023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스마트 ICT 조성사업	600	—	180	420	—
2023	충청남도	교통과	스쿨존 보행중 휴대폰 제한시스템 도입	300	—	150	150	—
2023	행정안전부	도로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500	250	—	250	—
2023	행정안전부	도로과	국토중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400	200	—	200	—
2023	행정안전부	도로과	2024 자전거의 날 행사 공동개최 지자체 선정	490	245	—	245	—
2023	환경부	상하수도과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35,814	21,488	4,298	10,028	—
2023	산림청	산림공원과	100대 명산·지리적 표시 임산물 명품화사업	2,000	1,000	500	500	—
2023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산림공원과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	300	—	300	—	—
2023	행정안전부	산림공원과	산림재난대응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300	300	—	—	—
202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60	30	7.2	16.8	6
2023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1,800	—	378	882	540
2023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식품유통과	2023년 중군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40	20	—	16	4
2023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2023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안전, 품질관리)	80	—	40	40	—
2023	충청남도	축산과	지역축산기술 활성화 시범사업	100	—	30	40	30
202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과	2023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240	120	—	120	—
2023	충청남도농업 기술원	농촌진흥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	100	—	15	35	50
2023	충청남도농업 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특성화기술지원 공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500	—	150	200	150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3	충청남도농업 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난지형 마늘재배 전과정 기계화 도입 시범사업	150	-	75	75	-
2023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20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33	22	6	5	-
2023	국토교통부	보건정책과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90	1,113	143	334	-
2023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80	103	51	126	-
2023	충청남도	시설관리사업소	시민운동장 새단장(개보수) 지원사업	4,300	-	2,150	2,150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65	65	-	-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전시 해설 인력 사업	25.49	18.39	-	7.1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60	30	-	30	-
2023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 혁신본부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DSC 지역리빙랩 공모사업	80	80	-	-	-
2023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꿈의 향연'	25	25	-	-	-
2023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장애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80	80	-	-	-
2023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47	-	47	-	-
2023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댄스팀 공주	100	100	-	-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 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43	86	-	57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 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58	29	-	29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219	109	-	60	50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30	30	-	-	-
2023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75	35	-	40	-
2023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101	-	90	11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3	전통공연 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사업	40	40	-	-	-
2023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1	1,300	800	-	50	450
2023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2	438	378	-	6	54
2023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3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100	100	-	-	-
2023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 인력교육	-	-	-	-	-
2024	국도교통부	미래전략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690	470	-	220	-
2024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사계절 금강문화콘텐츠 개발사업	9,200	-	4,600	4,600	-
2024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금강행복정원 기반 조성사업	9,700	-	4,850	4,850	-
2024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 조성사업	22,000	-	11,000	11,000	-
2024	충청남도	미래전략실	1940 문화양조장 조성사업	6,500	-	3,250	3,250	-
2024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298	600	-	600	98
2024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휴식 in 금강 (금강산관광원 리뉴얼 2단계)	18,300	2,300	-	16,000	-
2024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공주 인력공급 레벨업 사업	1,600	1,600	-	-	-
2024	행정안전부	지역활력과	고향올래 사업	2,000	700	-	1,300	-
202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활력과	농업농촌RE100사업	1,800	900	-	900	-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600	-	180	420	-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14,400	-	12,200	2,200	-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3,000	-	1,500	1,500	-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24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0	-	7	17	6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중산천 제방도로 보행자데크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	-	60	140	-
2024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길거리 마을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어가기	24	-	7	17	-
2024	충남도서관	평생교육과	2024년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	3	-	3	-	-
2024	(사)책읽는도시 협의회	평생교육과	2024년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우수독서프로그램	5	5	-	-	-
2024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과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40	70	-	70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4	충청남도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평생교육과	2024년 충남 문해교육 지원사업	20	-	10	10	-
2024	충청남도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평생교육과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	-	5	5	-
2024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평생교육과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8	19	-	19	-
2024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과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4	10	-	4	-
2024	국립장애인 도서관	평생교육과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	-	-	-	-
2024	교육부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10,000	5,000	-	5,000	-
2024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충청남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8	-	2	5	1
2024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	86	-	26	60	-
2024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활성화 사업	34	-	10	24	-
20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과	유구읍 직물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10,755	3,500	-	7,255	-
2024	행정안전부	관광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야간관광 공주야 놀자	3,900	3,900	-	-	-
20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200	600	-	600	-
2024	충청남도	관광과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40,000	-	15,000	25,000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공주 국가유산 야행	365	146	66	153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115	46	21	48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108	43	19	45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425	170	77	179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50	20	9	21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170	85	26	60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세계유산 홍보사업	712	356	107	249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세계기록유산 홍보사업	100	50	15	35	-
202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5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56	28	14	14	-
2024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힘센충남 마을돌봄터 사업	56	-	28	28	-
2024	법무부	여성가족과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	-	-	-	-
2024	국토교통부	경로장애인과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86	200	26	60	-
2024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	-	-	-
2024	충청남도	경제과	2024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0,700	-	5,000	5,700	-
2024	고용노동부	경제과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 력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21	17	-	4	-
2024	고용노동부	경제과	2024년 충남 자동차부품제조 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62	50	4	9	-
2024	행정안전부	경제과	지역현안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사업	200	120	-	80	-
2024	국토교통부	경제과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26,800	9,400	-	17,400	-
202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793	650	325	1,308	510
2024	충청남도	경제과	G-3D프린팅 문화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15,000	-	7,500	7,500	-
2024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공주시 스마트주차장 구축사업	900	-	270	630	-
2024	충청남도 자치경찰 위원회	도시정책과	교통 안심마을 만들기	245	-	74	172	-
2024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금학생태공원 진입로 경관개선 조성사업	500	-	150	350	-
2024	충청남도	도시정책과	식품안전 R&D클러스터 기반 조성	25,000	-	7,500	17,500	-
2024	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과	위케이션 활성화사업	300	150	-	150	-
202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144	58	13	30	43
2024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지원사업	80	-	24	56	-
2024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734	-	295	105	334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4	충청남도	축산과	도축가공역량강화 지원사업	500	-	75	175	250
202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77	-	27	62	89
202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기술 적용 공 안정 생산단지 조성	300	-	63	147	90
202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중소형 배 전략적 생산체계 구축 시범)	100	-	50	50	-
2024	국토교통부	보건정책과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36	1,006	129	301	-
2024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	250	125	125	-
2024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50	25	-	25	-
2024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무용단 공주	100	100	-	-	-
2024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꿈의 향연>	25	25	-	-	-
2024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52	-	52	-	-
2024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	60	-	60	-	-
2024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년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	80	-	-	80	-
2024	예술의전당	공주문화 관광재단	SAC ON SCREEN	10	-	-	10	-
2024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공연예술유통 사업	1,358	941	-	58	359
2024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251	173	-	15	63
2024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85	-	75	10	-
2024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공주문화 관광재단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 인력교육	-	-	-	-	-
2024	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우수작품 지역 순회공연	23	20	-	3	-
2024	경기아트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경기아트센터 문화교류사업	54	-	50	4	-
2024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407	320	-	87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4	국립국악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 국악을 국민 속으로	30	24	—	6	—
2024	문화체육 관광부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800	500	—	300	—
2024	한국공예 디자인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청년공예 인턴십지원사업	27	15	—	—	12
2024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40	40	—	—	—
2024	문화체육 관광부	공주문화 관광재단	문화영향평가(약식평가)	10	10	—	—	—
2025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미래전략실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1,714	1,200	257	257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휴식 in(人) 금강	38,000	7,290	7,200	23,510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6,300	5,100	—	1,200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10,000	5,900	—	4,100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공주야밤산업 명품화 클러스터 조성	3,716	2,100	258	1,358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1,700	1,350	—	350	—
2025	행정안전부	미래전략실	공산성 미디어아트와 빛의 산책	1,500	1,000	—	500	—
2025	산업통상부	투자유치실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5,378	720	144	336	4,178
2025	산업통상부	투자유치실	지방투자촉진사업	2,737	1,916	328	493	—
2025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31,400	15,700	7,850	7,850	—
2025	국토교통부	지역활력과	지역특화재생사업	25,000	15,000	3,000	7,000	—
2025	충청남도	지역활력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400	—	120	280	—
2025	국토교통부	스마트정보과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90	90	—	—	—
202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버스정류장)	1,500	1,050	—	450	—
2025	국무조정실	인구정책과	제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1,000	500	150	350	—
2025	고용노동부	인구정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00	80	—	20	—
2025	국립특수교육원	평생학습과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33	67	—	66	—
2025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과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8	19	—	19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5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 육성진흥원	평생학습과	2025년 충남 문해교육 지원사업	20	-	10	10	-
2025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 육성진흥원	평생학습과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	-	5	5	-
2025	국립장애인 도서관	평생학습과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4	4	-	-	-
2025	전국책읽는 도시협의회	평생학습과	2025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우수독서프로그램	5	5	-	-	-
2025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평생학습과	2026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400	200	-	200	-
2025	충청남도	관광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920	-	460	460	-
2025	충청남도	여성가족과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56	-	28	28	-
2025	충남은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여성가족과	아침돌봄 온실 사업	23	-	-	17	6
2025	충청남도	경로장애인과	효행 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40	-	20	20	-
2025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	-	-	-	-
202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로장애인과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경로당)	1,500	1,050	-	450	-
2025	충청남도자치경 찰위원회	경제과	산성시장 문화공원 안심 공간 조성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00	-	90	210	-
2025	충청남도	경제과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50	-	15	35	-
2025	충청남도	경제과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 리모델링)	100	-	60	40	-
202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제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유구시장 노후 분전반 등 교체)	94	66	-	19	9
2025	환경부	경제과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300	150	-	150	-
2025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유구시장)	2,000	1,000	-	1,000	-
202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956	804	237	1,347	568
2025	고용노동부	경제과	지역노사민성 상생협력 지원사업	28	24	-	4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5	고용노동부	경제과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18	16	—	2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공주 국가유산 야행	450	180	—	270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150	60	—	90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110	44	—	66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242.5	97	—	145.5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4	9.6	4.3	10.1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234	117	35.1	81.9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세계유산 홍보사업	238	119	35.7	83.3	—
20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2026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60	30	—	30	—
2025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과	2026년 간판개선사업	420	—	—	—	420
2025	충남테크노파크	도로과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	26	—	13	13	—
2025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25	—	251	89	85
202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바이오연계) 지원사업	8,000	2,800	1,100	1,900	2,200
202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이상기상 대응 감자 안정 생산단지 조성)	300	—	63	147	90
202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저탄소 인증 시설오이 에너지 절감 생산기술 도입 시범)	100	—	50	50	—
202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지역특화작목 고품질 고맛나루 오이 재배환경 개선 시범)	100	—	50	50	—
2025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202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78	186	46	46	—
2025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합동캠프 공주	25	25	—	—	—
2025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무용단 공주	100	100	—	—	—
2025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향연>	23	23	—	—	—
2025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47	—	47	—	—

선정연도 (사업기간)	공모기관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25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전시 지원』	120	100	-	20	-
2025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 공예청년 인턴십지원사업	13.62	7.5	-	-	6.12
2025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5년 공예 기획프로그램	15	15	-	-	-
2026	국토교통부	스마트정보과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340	340	-	-	-
2026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380	190	-	190	-
2026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공모	1,000	500	150	350	-
20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2026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225	135	-	90	-
20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2026년 제2기 로컬100	-	-	-	-	-
2026	고용노동부	청년인구정책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130	104	-	26	-
2026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무용단 공주	110	60	-	50	-
2026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꿈의 향연>	25	25	-	-	-
2026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교류캠프>	25	25	-	-	-
2026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6 공예청년 인턴십지원사업	14	8	-	7	-
2026	예술경영 지원센터	공주문화 관광재단	2026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	184	140	-	44	-
2026	국립국악원	공주문화 관광재단	국악을 국민 속으로	33	25	-	8	-

PART.1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삶의 희망이 꽃피는 공주

공주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충을 비롯해
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망 강화 등
공주시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공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미래세대를 품는
따뜻한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삶의 희망을 지속해서 꽃피울 것입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명품도시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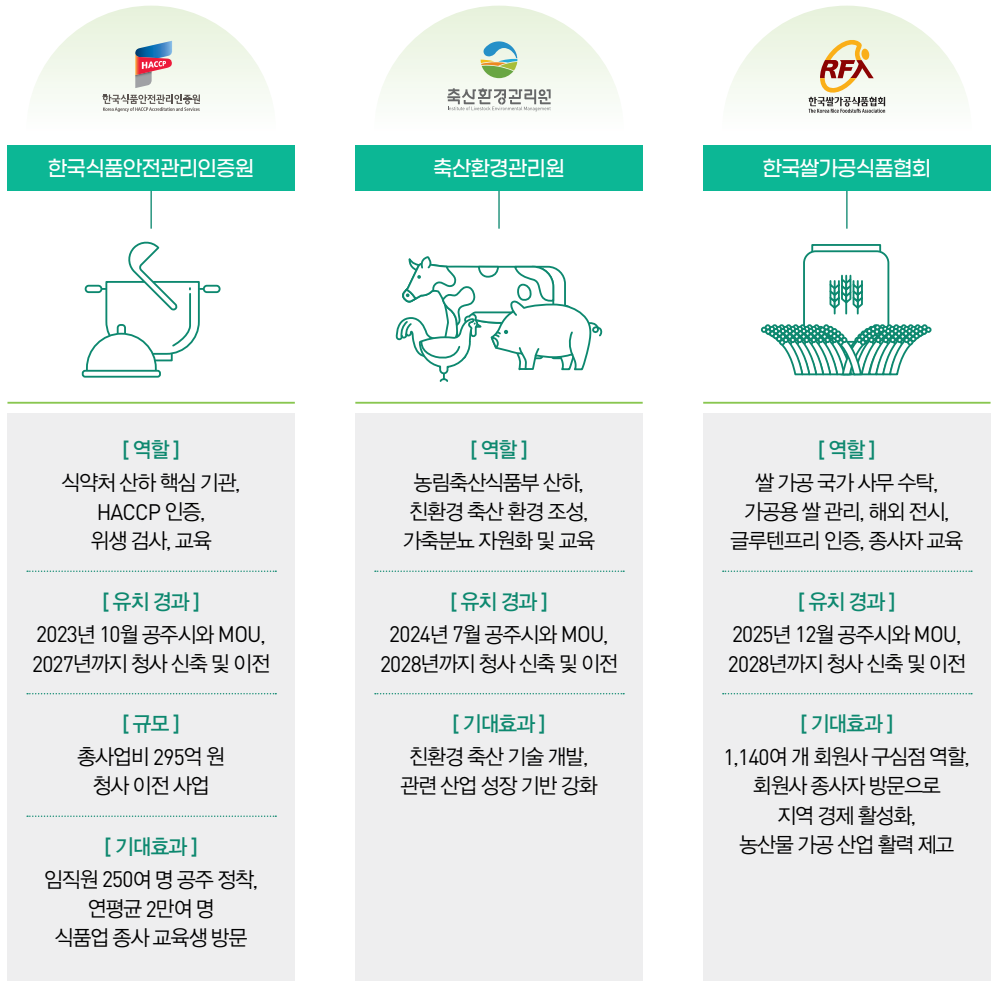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성장의 씨앗, 공공기관 유치에서 싹트다

: 공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유치

공주시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힘쓰고 있다. 충청남도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종시 출범 이후 겪었던 극심한 인구 유출과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공주시에 중대한 전환점을 요구했다. 이에 공주시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핵심 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했다.

2025 식품안전분야 글로벌 연수사업





1. 새로운 성장축, 공공기관 유치에서 찾다

공주시는 과거 세종시 출범 영향으로 인구 감소를 겪으며 지역 활력 저하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주만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이전 정책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공주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공주시의 미래 청사진을 담아낼 스마트한 인프라와 배후 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공주시는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무분별한 유치가 아닌, 공주시가 가진 잠재력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것은 공주시의 농업 기반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이러한 용지 확보,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노력이 열매를 맺으며, 공공기관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 식품·안전의 중심지로, 공주의 새로운 도전

민선 8기 공주시는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연달아 내며 대한민국 식품·안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3개 핵심 기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식품·축산물 위생 검사, 그리고 식품업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3년 10월 공주시와 이전 업무협약(MOU) 이후, 총사업비 295억 원 규모의 청사 이전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청사 신축과 이전이 완료되면 250여 명의 임직원이 공주시에서 새로운 터전을 닦게 되며, 연평균 2만여 명에 달하는 식품업 종사 교육생들이 공주를 방문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숙박·요식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및 교육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2024년 7월 공주시와 이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청사 이전을 위한 행·재정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까지 청사 신축과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산 분야 전문 기관 유치를 통해 공주시는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과 보급,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가공용 쌀 공급 관리 사무 집행·관리, 해외 전시 지원, 글루텐프리 인증,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쌀 가공 국가 사무 수탁기관이다. 2025년 12월 공주시와 이전 업무협약(MOU)을 하였고, 역시 2028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1,140여 개에 달하는 회원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므로, 이전이 완료되면 회원사 종사자들의 잦은 방문이 예상되어 공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기관과 함께 그리는 균형발전의 미래

공주시는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추진한 ‘글로벌 식품 안전 연수사업’은 공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베트남 식품청 공무원들을 공주로 초청하여 공주의 선진 농업 기술과 풍부한 문화를 알리고, 국제 교류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공주 알밤 소비를 촉진하는 등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

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도 발맞춰 공주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관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미 유치된 이전기관들이 공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MOU



명품도시 1-02

주민이 그려낸 계룡면의 미래 청사진

: 계룡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갑사와 신원사, 계룡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계룡면이 주민의 직접 참여로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며 지역 발전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민선 8기 공주시가 추진한 계룡면 종합 개발계획 수립은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농업, 교육, 예술, 복지 등 전방위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모색한 계룡면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이다.

1. 주민 손으로 빚어낸 계룡면의 미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500만 원 예산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체 수립한 계획은 계룡면 17개 법정리와 31개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풍요로운 계룡면, 행복한 계룡면민’이라는 비전 아래 ‘살고 싶은 계룡면’, ‘풍요로운 계룡면’, ‘다시 오는 계룡면’ 세 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특화자원 개발’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속적 주민과 방문객 관계 형성’과 ‘공동체 활동 촉진’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하는 33개 세부 사업에는 주민 기대가 큰 ‘계룡산 둘레길 조성’, ‘케이블카 설치’, ‘마을공동체 동아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면민참여단 회의



2. 주민 주도의 참여와 실질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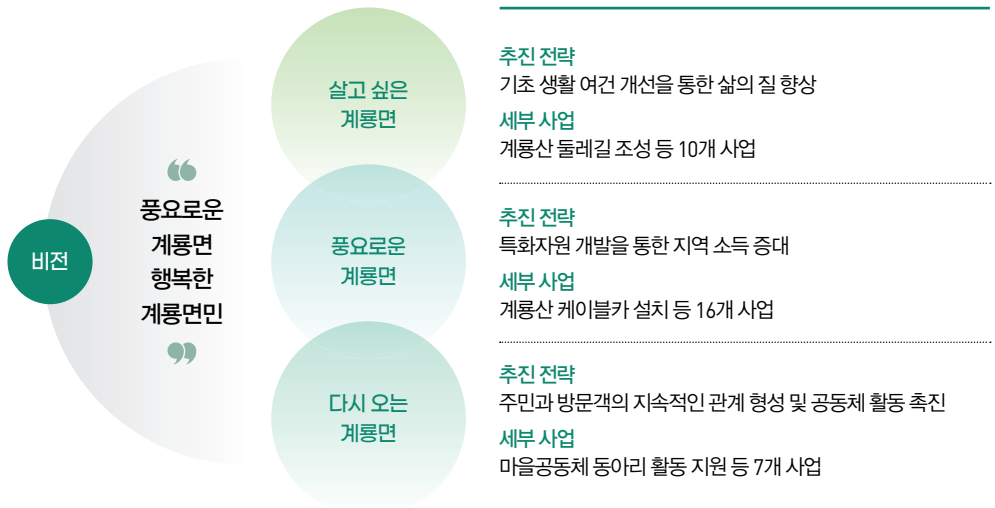
가장 큰 성과는 ‘계룡면민참여단’ 38명이 이장단과 함께 자원 조사에서부터 정책 과제 마련, 미래 비전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이다.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반영해 탁상공론을 넘어 현실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은 곧바로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계룡산 둘레길 조성’과 ‘케이볼카 설치’ 사업은 충청남도의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핵심 과제로 채택되며 광역 단위 발전 계획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더불어 계룡저수지 둘레길, 갑사 은행나무 산책길 조성 등 구체적인 현장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주민이 그린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이 중심이 돼 미래를 그린 계룡면 종합개발계획은 지역 자원과 주민 역량이 결집한 지속가능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발전 전략 수립에 힘쓰며,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계룡면 종합개발계획



명품도시 1-03

29만 시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고향, ‘온누리공주’

: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추진

인구 유출과 감소라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했던 공주시가 혁신적인 ‘온누리공주시민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단순히 물리적 거주 인구만 늘리려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공주시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공주시의 이 담대한 실험은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2026년 누적 가입자 29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공주 근대역사 문화여행



1. 공주가 찾은 새로운 해법 ‘생활인구 확대’

공주시는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서 ‘거주 인구’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2008년 전국 최초로 ‘사이버공주시민제도’를 도입하며, 물리적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고 공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는 ‘관계인구’ 정책의 출발점이자, 온라인 시민공동체의 선구적 모델이었다.

2015년, 공주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명칭을 ‘온누리공주시민제도’로 변경하며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전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공주시민으로서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선 8기 공주시는 이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물리적 거주를 넘어 공주를 방문하는 사람, 공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공주시를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공주를 찾고, 머물고, 소비하는 ‘생활인구’의 선순환을 실현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2. 디지털 혁신과 시민참여가 이끈 놀라운 성장

시는 ‘온누리공주’ 정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카오톡 간편 가입 시스템과 모바일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14세 미만 자녀를 함께 등록하는 기능을 통해 가족 단위 참여를 확대했다.

‘온누리공주’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가맹점 쿠폰 발행, 안내 지도, 카카오 알림톡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추가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 역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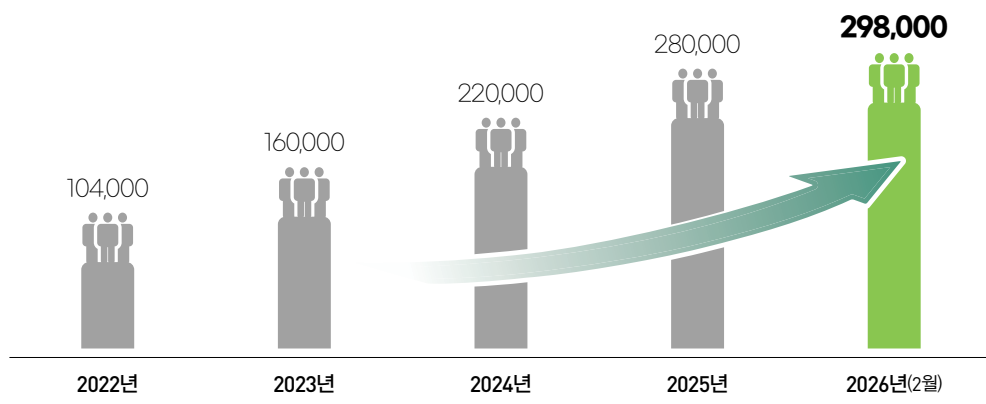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생활 속 혜택’ 또한 대폭 확대됐다. ‘온누리공주 마일리지’의 공주페이 전환, ‘쏘카 50% 할인’, ‘가맹점 캐시백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가입 유인을 높였다.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온누리공주’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은 결과,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10만 4천 명이던 가입자는 2023년 16만 명, 2024년 22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누적 28만 명, 2026년에는 누적 29만 8천 명을 돌파하며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온누리공주시민’이 단순한 온라인 회원이 아닌, 실제로 공주를 방문하고 체험하며 소비하는 핵심적인 ‘생활인구’이자 ‘관계인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온라인의 관심이 실제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공산성

온누리공주시민 누적 가입자 현황 (단위: 명)





3. 모두가 함께 그리는 '온누리공주'의 내일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온라인 시민공동체이자 '관계인구' 중심의 '온누리공주시민제도'는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온누리공주'를 기반으로 시정 홍보, 지역 축제,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누구나 공주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교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누구나 공주시민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공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또 하나의 고향, 온누리공주’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공주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온누리공주’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도시가 어떻게 관계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명품도시 1-04

‘메타버스 공주’로 디지털 관광의 새 지평 열다

: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

비대면 콘텐츠의 확산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서 공주시가 가상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메타버스 공주’ 구축 사업을 추진, 디지털 관광 플랫폼 ‘공주월드’를 선보이며 지역 활력 창출과 ‘관계인구’ 확대의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시

공주시는 ‘사람’, ‘활력’, ‘행복’, ‘품격’이라는 시정 가치를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관광지 12곳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언제 어디서든 공주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5도 2촌 체험마을’과 공주시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안에 담아 역사·교육 가치를 전달하며, 온라인 유입을 통해 실제 현장 방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공주월드 다운로드



이동 그 이상, 나만의 탈것

탑승하는 순간 달라지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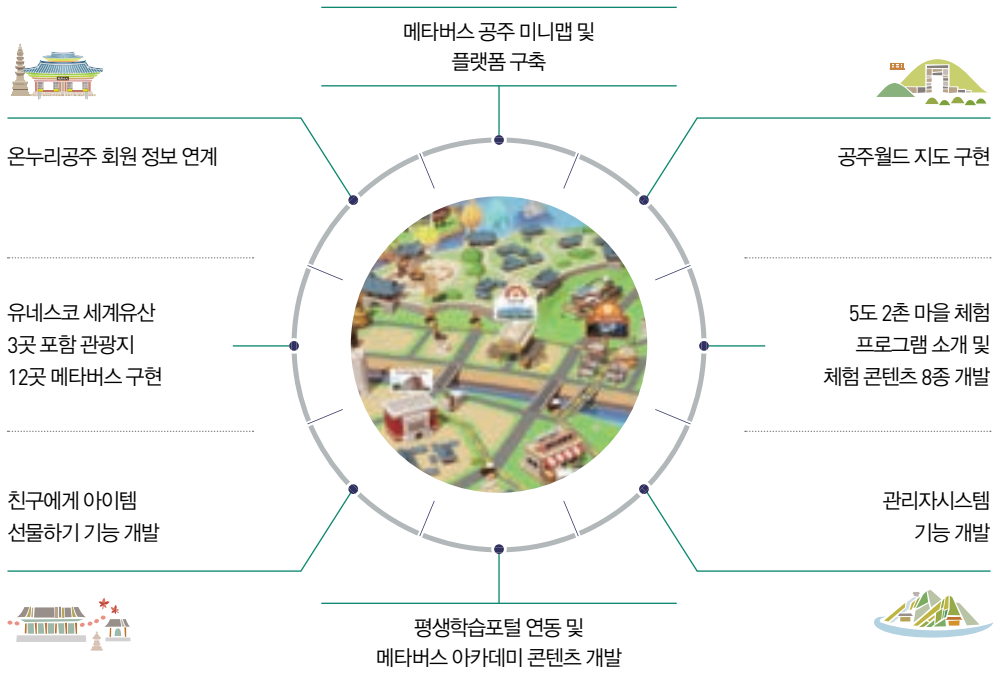
2. '공주월드'에 담아낸 공주의 매력

2024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3억 1,190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공주월드'는 (주)플레이파크가 용역을 맡았으며, 메타버스 미니맵, 기존 회원정보 연계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갖췄다. 8종의 체험 콘텐츠와 평생학습포털 연동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로 교육 기능도 강화했다. 이용자 간 아이템 선물, 관리자 시스템, 직관적인 지도 구현 등 세밀한 설계가 돋보인다. 2025년 4월 8일 서비스 개시 후 2026년 2월 기준 49,072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 시민참여와 체험 이벤트로 49,000건 이상 이용

'공주월드'는 온라인 응원 댓글, 방문 인증샷 이벤트, '알밤재배 미니게임' 등을 통해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공주알밤'을 상품으로 한 마일리지 교환 이벤트로 관심을 이끌었다. 2025년 백제문화제 현장에서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해 현장 방문과도 자연스럽게 연계했다.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에도 주력해 청소년 225명과 노년층 9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메타버스 공주



명품도시 1-05

‘안전한 공주’ 구축,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도약 추진

: 공주시, 6개 분야 안전지수 개선에 총력

공주시가 지역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주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충남권 내 하위권에 머물렀던 안전 등급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과 시민 의식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 불합리한 지표 한계,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

현재 공주시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이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시는 지난 2023년(2022년 기준) 평균 4.2등급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으나, 꾸준한 노력 끝에 2024년(2023년 기준)에는 평균 3.8등급, 2025년(2024년 기준)에는 2015년 지역안전지수 발표 이래 공주시 최고 실적인 평균 3.6등급으로 지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4년 감염병 분야에서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하였으며, 2025년에는 화재와 범죄 분야에서 각 1등급 상승하며 범죄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는 현행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발표 목적과 달리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사고 및 사망자 발생이 증가함을 의미하여, 전국 75개 시 중 고령화 상위 25개 시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3등급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의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지역별 안전 역량 및 취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주시는 행안부에 산출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사고 및 사망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점추진지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 10개 중점추진지표와 54개 개선 사업 추진

시는 안전환경 개선 점수 8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감·의식 지표 중 주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에 효과적인 10개 지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위해지표(사망자 수 등)’는 장기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시가 직접 통제 가능한 ‘경감지표(예산, 시설)’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의식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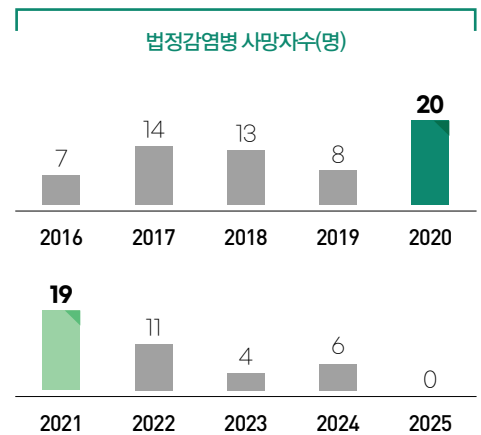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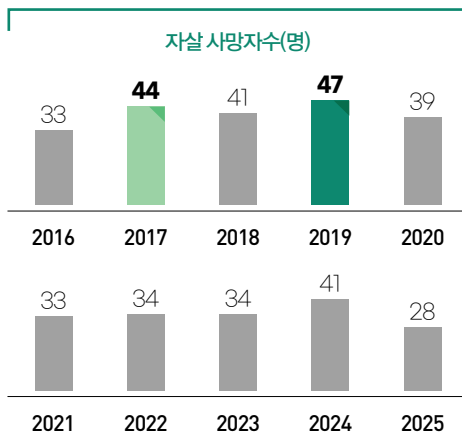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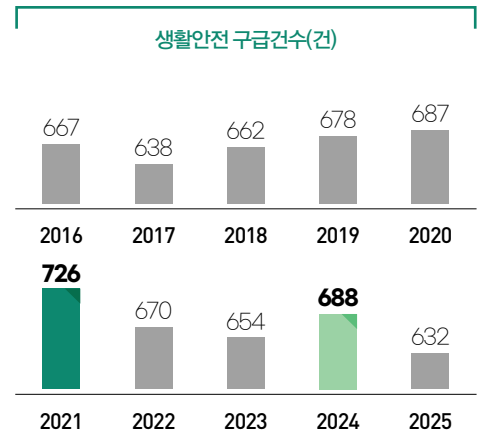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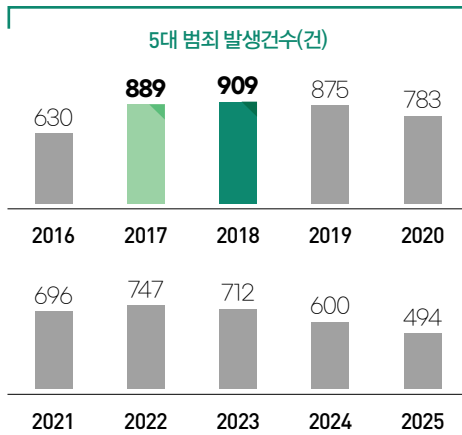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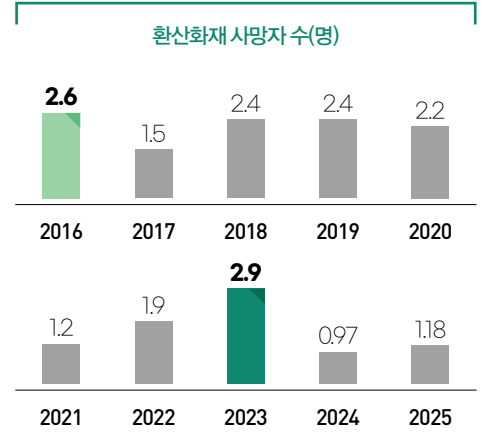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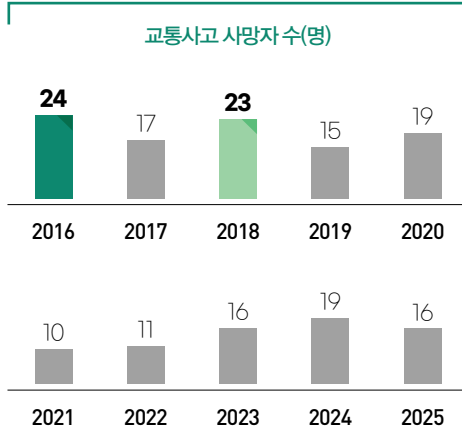
실제 공주시와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등 3개 기관 16개 부서가 지역안전환경 개선 TF추진단을 구성하여 2025년 52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관성을 강화한 54개의 개선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교통 단속 CCTV를 2022년 69대에서 70대 증설하여 2025년 목표(135대)보다 많은 139대를 운영하며 교통 현장 안전을 강화했다. ▲[화재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2022년 465건에서 2025년 1,326건으로 안전신문고 화재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했다.



또한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공주소방서와 협업체 각종 축제·행사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이수 인원이 2022년 7,566명에서 2025년 29,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주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범죄 예방 및 시민 의식] 범죄 예방 CCTV는 2022년 1,077대에서 2,802대 증설하여 2025년 3,879대를 운영 중이며(달성률 109%), 자율방범대원 502명이 활동하며 행사 방법 순찰, 야간 방법 순찰 등 민관 협동 치안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집을 28개소 운영 중이며, 공주경찰서와 협업체 비상벨 설치를 통해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생활 안전] 응급처치 교육 인원이 2022년 189명에서 2025년에는 12,671명을 기록했고,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또한 2022년 471건에서 2025년 1,942건으로 목표를 370% 초과 달성하며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을 증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살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250가구 설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4,697명 발굴, 자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49회 추진, 생명지킴이 6,624명을 양성하였으며, 공주대교 등에 자살 방지 시설물을 구축하고 자살 유족과 모임을 개최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을 증가를 위해 1,235명을 대상으로 아동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검진 수검률 70%를 달성하였으며(달성률 111%) 친환경 방역소독 192회,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 91회, 13,092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시는 2026년에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지역안전환경 개선 현황은 97점으로 목표치인 80점 이상을 달성하였다. 시는 2026년 지역안전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 지수 평균 3.5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 위해지표(사망자 수, 사고 발생건수) 개선 현황



명품도시 1-06

재난 안전 체험교육으로 안전 취약계층 재난 대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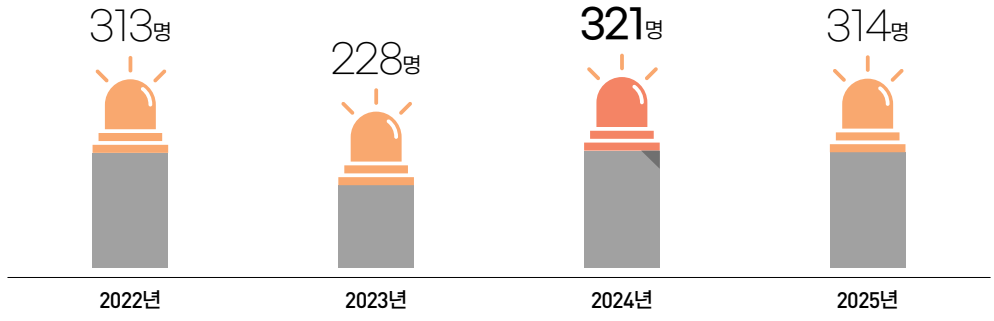
: 복합연수단지를 학생 안전교육장으로 활용

공주시가 안전 취약계층인 관내 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난 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이 교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연수단지에 위치한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을 활용, 총 1,1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 체험교육 현황



1. 학생과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쑥쑥'

공주시는 학생과 어린이 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1,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해왔다. 교육은 4D 재난영상관, 연기 탈출, 지진 체험, 가상급류·풍동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 총 15개 체험형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 신청·홍보 지원, 교육생과 인솔자 단체보험 가입, 이동 버스 임차 등 세심한 운영 체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법을 몸으로 느끼고 학습하며 안전의식을 크게 높였으며,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적절히 병행해 고르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2. 꾸준한 노력으로 '안전 공주' 기반 다져

민선 8기 공주시는 2022년 7월부터 체험교육을 본격 추진, ▲2022년 313명, ▲2023년 228명, ▲2024년 321명, ▲2025년 314명 등 총 1,176명의 학생·어린이가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점차 교육 대상과 기관별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교통 지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 보다 다양한 학교에서 현장까지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 수요가 늘고 전문 인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드러나, 공주시는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과 학교·유치원 같은 현장 위주 교육 강화, 재난체험 시설 다각화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연령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메타버스 교육과 VR 체험 확대 등 디지털 안전교육 플랫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명품도시 1-07

위기의 농촌, ‘생활인구’ 확대로 돌파구 확보

: 新 5도2촌 정책 추진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체험휴양마을의 위기 속에서 공주시가 내건 ‘新 5도2촌’ 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지역 활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 ‘유입-체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모델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주시의 전략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두마니 내고향 지달구 축제



新 5도2촌 사업개요

	사업명	기간	장소	규모
도농 교류 활성화	제1회 얼음마을 소랭이	2025. 01. 08. ~02. 09. (32일간)	정안면 소랭이마을	4,478명
	제1회 공주시 차문화 축제	2025. 11. 01	반포면 계룡상신마을	1,000명
	제16회 두마니 내고향 지달구 축제	2025. 11. 01	의당면 두만리	200명
	제11회 어울리-한일고 농경문화 행사	2025. 05.~10.	정안면 어울리마을	220명
체험객 모객	초등교과과정연계 체험프로그램개발	2025. 01.~06.	농촌체험휴양마을	286명
	와봐유 공주 투어 지원 프로그램 추진	2025. 01.~11.	농촌체험휴양마을	3,088명
	농협네트웍스 연계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2024. 12.~11.	농촌체험휴양마을	1,445명
	농촌체험캠프 행사 추진	2025. 01.~11	농촌체험휴양마을	97명
체류	체류형 주말농장 공주여유 조성 사업 (1차, 2차)	2024.~진행 중	우성면/정안면	11개 동

1. 맞춤형 체험으로 ‘놀러 왔다가 머물고 싶어’

‘新 5도2촌’ 정책의 핵심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유아부터 초등학교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타겟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했으며, 그 결과 총 326회에 걸쳐 7,496명의 체험객을 유치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정안면 소랭이마을에서 열린 ‘제1회 얼음마을 소랭이축제’에는 32일간 총 4,478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관외 거주자 비중이 78%에 달해 도시민 유입 효과가 상당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계룡산 상신마을의 ‘차문화축제’는 일회용품 대신 분청사기 도자기 컵을 입장권으로 활용하는 ‘입잔권’ 제도를 도입해 환경 보호와 지역 예술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2,247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 충남 최초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방문에서 머무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업은 바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 사업이다. 이는 충남 최초로 지자체와 마을이 협업해 텃밭과 숙소를 결합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는 모델로, 도시민에게 지속적인 방문 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촌 체험과 차별화된다. 우성면 내산리에 조성한 1호점은 총 6개 동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정안면 고성리에 5개 동 규모의 2호점 조성이 추진 중이다. 시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 수입의 일부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마을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의 지속성까지 확보했다.

3. 전담팀 신설부터 조례까지 탄탄한 행정 뒷받침

시는 2023년 1월 전담 조직인 ‘5도2촌팀’을 신설하고, 같은 해 5월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NH농협네트웍스와의 협약을 통해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외 협력과 홍보 채널 다각화에도 힘을 쏟았다.

4. ‘일회성’ 넘어 ‘사계절’ 즐거운 농촌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현재 체험 프로그램이 주로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청년이나 은퇴 세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마을별로 축제 일정이 중복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향후 계절별·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공주시 도농교류 축제 달력’을 제작해 행사를 연중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및 후기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분	1차	2차
사업 기간	2024.07.~2025.03.	2025.05.~12.
사업 위치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46-5 일원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306-1 일원
총사업비	5억 원	5억 원
사업 내용	총 6개 동 조성 (쉼터+텃밭 5개 동, 쉼터만 1개 동)	총 5개 동 조성 (쉼터 + 텃밭)
위탁 마을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꽃내미풀꽃이랑 농촌체험휴양마을
비고	6개 동 입주 완료	5개 동 입주자 모집 예정



농촌체험 캠프

한일고-어물리 벼미당질 농경문화 행사



명품도시 1-08

쾌적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본격화

이인면 숙원사업이었던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1983년 건립되어 4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로 균열과 누수 등 안전 문제를 안고 있던 기존 청사를 대신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새로운 복합 행정·문화 공간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7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개요

기간 | 2022~2027년 장소 | 이인면 이인리 297번지 일원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 | 113억 원

1. 40년 노후 청사 안전문제 제기

1983년 건립된 기존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수십 년간 주민 행정·복지 서비스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건축 연한이 40년을 넘긴 탓에 균열과 누수 등 노후화가 심각해, 정밀 구조안전진단에서 중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큰 불편과 우려를 야기하며 새로운 청사 신축 요구가 절실해졌다.

공주시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미래형 행정·복지 서비스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공간을 결합한 창의적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2. 주민 의견 담아내는 '소통 설계' 추진

이 사업은 총 113억 원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 추진된다. 새 청사는 공공 업무 시설과 주민 문화·복지 공간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됐다. 특히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소통 설계'가 이뤄졌다. 2025년 1월 설계 공모 계획 수립부터 5월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6월 설계용역 계약 및 본격 추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계획설계도서 작성과 지반조사, 중간설계,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역 의견 반영과 커뮤니티 공간 및 복지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3. 2027년 7월 준공, 이인면의 새로운 도약 기대

공주시는 2025년 11월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모든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한다.

새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주민자치와 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인면의 새로운 도약과 활력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명품도시 1-09

세종 인접 요충지에 5천 명 이상 수용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 금흥지구,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주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온 ‘금흥지구’와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금흥동 일원에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이들 사업은 총 5천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금흥지구 공원 조성지 현장방문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기간 구역지정일~공사 완료 공고일
위치 금흥동 492-3번지 일원	위치 금흥동 39-4번지 일원
시행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 주식회사 리우
사업방식 환지 방식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면적 71,803㎡(약 5.2만 평)	면적 49,846㎡(약 1.5만 평)
사업비 602억 원(비예산)	사업비 711억 원(비예산)
수용인구 3,581명(1,530세대)	수용인구 1,882명(811세대)

1. 인구 감소·유출 정면 돌파, 민간 주도 개발

공주시는 주변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선 8기 핵심 전략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금흥동 일대는 세종과 맞닿는 지리적 이점으로 도시개발 최적지로 손꼽혀, 민간 주도로 ‘금흥지구’(약 5.2만 평)와 ‘금흥2지구’(1.5만 평) 개발 사업이 병행 추진된다.

금흥지구는 총사업비 602억 원을 투자해 1,530세대, 약 3,581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2023년 4월 사업 구역 등 주요 계획이 확정됐으며, 충남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내년 사업 착공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흥2지구는 711억 원 규모에 811세대, 약 1,882명을 수용하는 ‘수용·사용’ 방식 사업으로, 2023년 공익성 협의 완료 후 202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25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착공한다.

2. 착공 신속화, 완공 후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기대

두 사업 모두 2025년 11월 기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100% 완료했으며, 공주시는 2026년 7월 착공과 함께 2028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대규모 주거지 조성이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입 확대, 생활 인구 증가를 견인하며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금흥·금흥2지구는 공주와 세종, 대전 등 광역권과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성장하며,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명품도시 1-10

도시개발로 인구 증가 도시로 대전환

: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주시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대전환을 꿈꾸며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충청권 광역 경제권’ 형성에 발맞춰, 세종시 연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공주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송선·동현 신도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



1. 충청권 메가시티와 동반 성장 토대 마련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구 감소 시대 난관에 대응하고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주의 전략적 선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광역권 내 동반 성장 시너지를 일으키고, 충남 내륙권 중추 역할을 수행할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주시는 지정권자인 충청남도,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신속하게 달성하며 안정적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2. 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 중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에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주시는 '주민 중심' 원칙을 견지했다.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합동설명회와 주민공청회 개최로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충남 개발공사와 협력해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았다. 특히 주민과 사업자, 공주시가 함께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이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보상사무소' 개설과 보상계획 열람·감정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였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충남 중추도시 도약 기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은 2026년 9월로 예정돼 있고,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 완공을 계기로 공주는 세종·대전 등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가속화하며 충남 내륙권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활력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명품도시 1-11

마을해설사 84명 양성으로 도시재생에 ‘활력’

: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여행 전문가’ 양성

공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여행 전문가 양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며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5개 기수 운영을 통해 목표 인원 80명을 넘어선 84명의 ‘마을해설사’를 배출하며 목표 달성률 105%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량을 갖추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자생적인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주시민대학 도시재생과정 25기 야간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마을해설사 양성 연도별 추진 내용

사업명	교육 대상	주요 내용	수료 인원
2023년	공주시민	21기-마을해설사 양성 과정 : 마을해설사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19명
2023년	공주시민	22기-청소년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 청소년 마을교육과 해설역량 함양, 공주시 다양한 계층들의 왕도심 활동 활성화	14명
2024년	공주시민	25기 야간 마을해설사 양성 : 왕도심 일대의 야간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체류 기간 연장	15명
2024년	공주시민	26기 왕도심 코스 연계 콘텐츠 개발 : 왕도심의 매력을 담은 해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상품화하는 전문과정	8명
2025년	공주시민	28기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 :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해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현장 교육	28명

1. 주민 참여 부족에서 '마을해설사 양성'으로 선회

그동안 공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사업 이해 부족이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 확보에 한계로 지적되었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만으로는 주민들의 진정한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이에 시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기반 마련'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고, 그 핵심 전략으로 '마을해설사 양성'을 택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마을에 깊은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또한 '마을해설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2.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을 전문가' 육성

시는 3년간 총 5개의 맞춤형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2023년 '21기-마을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 시민 19명이 마을 해설 프로그램과 상품개발 역량을 갖추었으며, '22기-청소년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에서는 14명의 청소년이 마을교육과 해설 역량을 함양하여 공주시 왕도심 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4년에는 '25기 야간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 15명의 시민이 왕도심의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체류 기간 연장에 이바지할 '야간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26기 왕도심 코스 연계 콘텐츠 개발' 과정을 통해서 8명의 시민이 왕도심의 매력을 담은 해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상품화하는 전문 역량을 키웠다. ▲2025년 '28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28명의 시민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해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현장 교육에 참여하며 '마을 해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3. 주민 중심 활동으로 도시재생 인식 확산

마을해설사 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빛났다. 총 5기수 운영을 통해 목표 인원 80명 대비 84명의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며 이행률 105%를 달성한 것은 물론, 3개년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 운영으로 참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크게 키웠다. 질적 측면에서는 주민 중심의 ‘마을해설사 활동’이 정착되어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해설사 간 협업을 통해 마을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 운영 기반을 구축했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왕도심 일대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 활동 모델을 마련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주시가 ‘도시재생’과 ‘마을해설’의 선진사례지로 알려지며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400여 명이 마을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공주의 왕도심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4. 주민 중심 활동으로 도시재생 인식 확산

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아쉬운 점과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교육 수료 이후 마을해설사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운영 기구(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마을해설사 활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심화 과정과 전문 자격 인증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양성된 마을해설사들이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주 국가유산야행



명품도시 1-12

시민 주도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변화 실현

: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과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이다.

마을학교 SW · AI체험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도시재생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지원
위치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일원	위치 옥룡동,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원
기간 2022. 09.~2025. 12.	기간 2022.~2025.
사업비 3억 9,600만 원	사업비 9,500만 원(시 90, 자부담 5)

1.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전환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공감과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주시는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일원에서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3억 9,600만 원(국비 1억 4,400만 원, 도비 2,880만 원, 시비 1억 8,720만 원, 자부담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옥룡동과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9,500만 원(시비 9천만 원, 자부담 5백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을 병행했다. 이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사업 육성을 통해 자생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은 연간 20회(임기 중 80회)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참여율과 성과를 기록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7건의 공모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22건이 추진 완료되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25건 접수 및 25건 전진 추진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27건 접수 중 21건이 추진되었으며,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4건 접수 중 3건 추진,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8건 접수 중 4건이 추진 중이다.

총 75건의 주민 공모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임기 중 80회'에 근접하는 수치를 달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동사업





3.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담보

‘도시재생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은 공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했다. 2022년 12월, ‘옥룡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기반의 자생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2023년 3월에는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으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총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왔다. 이들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 성장했다. 이는 외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향한 과제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단년도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일부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주민들의 기획·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 완료 후에도 성과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명품도시 1-13

역사와 문화가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 제민천 일대

: 제민천 주변 근대문화 힐링공간 조성

백제 숨결이 흐르는 공주시 제민천 일대가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공주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하나로 공주하숙마을, 공주읍사무소, 호서극장 등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즐길거리와 힐링공간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공주하숙마을 방문객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 근대문화 힐링공간 조성 사업 효과

공주하숙마을
방문객 30% 증가
(2022년 5,949명 →
2025년 9,388명)

공주하숙마을 내
시민참여 행사
연 10회 이상

역사문화광장
시민참여행사
연 20회 이상

1. 노후 유산에 새 생명, 마중물 공간 필요성 대두

제민천 주변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근대 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동시에 유인할 매력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중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제민천 주변 문화유산을 활용한 즐길거리와 힐링공간 확충에 주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민천길 일원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운영’,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 사업’,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사업’, ‘1967 호서극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2.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뤄내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민천 일대 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근대문화 힐링공간’을 조성했다.

첫 번째는 ‘제민천길 일원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운영’이었다. 제민천변(교촌교~봉산교~반죽교)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포장마차 8대가 운영되며 밤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당간지주공원 정비사업’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한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이었다. 반죽동 221-1 일원(옛 공주읍사무소 주변) 2,430㎡ 부지에 식재 및 시설 공사를 거쳐 2022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밤마실 야행’ 등 시민 중심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총사업비 19억 원을 들인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사업’이다. 반죽동 245-1 일원에 2022년 12월 준공되어 ‘제민천 누리관’(도시재생 체험관·홍보관·옥상쉼터), ‘제민천 여행자 쉼터’, ‘공주문학사랑방’ 등이 조성되며 복합 문화 공간의 면모를 갖췄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의 ‘1967 호서극장 조성사업’이다. 중동 1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0억 원(도비 35억 원, 시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연면적 899.97㎡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토지 및 건물 매입, 지방재정투자심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존 구조물 보강설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본공사를 착공했으며, 2026년 1월 공사 준공을 하고 현재 전시연출 제작설치 용역 등 시설 개관 준비를 추진 중이다.



제민천 물의 쉼터



포장마차

3. 시민참여와 방문객 증대, '품격 있는 공주'

이러한 노력으로 공주하숙마을은 2022년 5,949명이던 방문객 수가 2025년에는 9,388명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또한 '공주 예술제', '풀꽃문학제', '공주사랑방 운영위', '공주하숙동 1번지 행사' 등 연 10회 이상의 시민참여 행사가 열리며 하숙마을에 활기를 더했다.

'제민천 역사문화광장'에서도 매년 9월 '공주국가유산 야행', '공주 깎두기 축제' 등 연 20회 이상의 시민 주최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제민천 누리관, 여행자 쉼터, 문학사랑방 운영에도 연간 1천만 원의 유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생활 불편 민원 해소와 관람 시스템 필요

사업 성과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공주하숙마을이나 옛 읍사무소 등 주요 시설이 주택가에 있어 행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주시는 행사 전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사 시행처가 저소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주하숙마을과 역사문화광장을 활용한 시민참여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문화유산을 잇는 ‘레트로 감성’의 시설 유지 및 관람 시스템 마련에 힘을 계획이다. 1967호서극장 운영에도 연간 2억 8천만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며, 단순한 건물의 복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를 채워 나갈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명품도시 1-14

도시재생 뉴딜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한 원도심

: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추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관광산업 부진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공주 원도심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성공적인 변모를 꾀하고 있다. 공주시는 2018년부터 약 7년간 옥룡동과 중학동 일원에 총 355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문화시설과 생활 SOC 확충에 주력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며, 공주의 옛 도심이 새로운 활력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평가다.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치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일원	위치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일원
기간 2018. 09.~2023. 12.(6년)	기간 2019. 01.~2025. 12.(7년)
사업비 167억 원	사업비 188.67억 원
내용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내용 마을어울림 플랫폼,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등 조성

1. 원도심 침체 극복, 도시재생의 필요성 증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과거의 활기를 잃고 쇠퇴하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주 원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은 중학동 지역자산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나아가 ‘공공문화시설 특화’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 355억 투입된 옥룡·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는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두 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간 진행된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원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 등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두 번째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년간 추진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역시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원에 국비 113.2억 원, 지방비 75.47억 원 등 총 18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었다.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355억 6,700만 원에 달한다.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이다. 2023년 10월 조성이 완료된 이 센터는 지하 1층 창고, 지상 1층 공공업무시설과 제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목욕탕, 지상 3층 주민문화센터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생활편의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3. 중학동 변화 이끈 '4대 핵심 플랫폼' 구축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채로운 콘텐츠로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었다.

▲‘마을어울림 플랫폼’은 건축면적 683.63㎡, 연면적 999.75㎡ 규모로 지하 1층 기계실과 물탱크실, 지상 1층 공유상가와 상설전시실, 지상 2층 기획전시실, 작은 영화관, 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 기념품점, 방재실 등도 확보하며 2025년 5월 조성이 완료되었다.

▲‘공주 걸쳐라운지 플랫폼’은 건축면적 440.87㎡, 연면적 2,159.32㎡ 규모로 지하 1층 주차장과 놀이마당, 지상 1층 전시공간, 2층 사무 및 연구 공간, 4층 다목적실, 강의실, 도서 서가 등으로 구성되어 2023년 9월 조성을 완료하며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은 지역 출신 나태주 시인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면적 522.96㎡, 연면적 964.41㎡ 규모로 조성되었다.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풀꽃라운지, 전시실, 스튜디오, 지상 2층 주민 공동이용 공간, 연구실,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2025년 4월 조성이 완료되었다.

▲‘제민천 역사문화광장’은 사업 면적 2,430.96㎡에 야외공연장, 벤치, 조형의자, 가로등, 클링포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2022년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창업 및 문화 프리마켓’, ‘야시장’, ‘오픈 카페’ 등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며 원도심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

4.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공산성 어울림센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은 노후화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마을어울림 플랫폼’과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은 주민들의 참여와 창작활동을 독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민천 역사문화광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열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되었던 원도심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옥룡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 현장방문

명품도시 1-15

‘전원주택단지’로 인구 유입과 균형발전 실현

: 정안, 반포, 의당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주시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정안면, 반포면, 의당면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1.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신속한 대응

최근 급격한 도심 인구 집중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포착,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을 넘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세종시와 대전시 등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도심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를 동시에 누리하고자 하는 젊은 층과 은퇴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의당·정안·반포 일대 8개 단지 조성 ‘순항’

공주시가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계획은 총 8건으로, 지역별로는 의당면 6건, 정안면 1건, 반포면 1건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업은 착공과 준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결실을 본 곳은 의당면 수촌리 일대다. 태림환경(주)이 주관한 이 단지는 13,886㎡ 면적에 23호를 조성해 지난 2023년 1월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승인을 받고 공사가 한창인 곳들도 눈에 띈다. 의당면 덕학리 산9-1 일원(46호, 금당산업개발)과 덕학리 232-3 일원(14호, 모드니)이 착공 후 분양과 입주를 준비 중이며, 유계리 산14-11 일원(20호) 역시 최근 승인을 마쳤다.

정안면 장원리 82 일원에 조성 중인 25,120㎡ 규모의 단지(45호, 건양)는 정안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대규모 정주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반포면 봉곡리 산 5-12 일원(33호, 에스지 컨설팅)은 계룡산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품격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기반 강화의 선순환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단순한 인구 유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진작되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부동산 가치 제고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 계획 승인부터 착공, 사용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향후 사용검사가 예정된 단지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신규 단지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완공될 단지들은 공주시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전원주택단지 사용검사 현황

사업 주체	대지 위치	면적	호수	준공
태림환경(주)	의당면 수촌리 산 16-9	13,886㎡	23	2023. 01. 31.

전원주택단지 사용검사 현황

사업 주체	대지 위치	면적	호수	승인	착공
(주)금당산업개발	의당면 덕학리 산9-1	27,195㎡	46	2023. 08. 23.	2023. 10. 19.
주식회사 건양	정안면 장원리 82	25,120㎡	45	2023. 10. 24.	-
(주)모드니	의당면 덕학리 232-3	12,106㎡	14	2024. 01. 12.	2024. 03. 19.
(주)에스지컨설팅	반포면 봉곡리 산 5-12	27,809㎡	33	2024. 12. 20.	2025. 10. 15.
(주)남부산업개발	의당면 유계리 산14-11	19,389㎡	20	2025. 01. 24.	-

전원주택단지 사용검사 대상 현황

사업 주체	대지 위치	면적	호수	승인	착공
(주)효림개발	의당면 중흥리 산72-2	11,562㎡	13	2021. 02. 10.	80%
(주)조은빌리지	의당면 중흥리 산72-6	17,450㎡	20	2021. 02. 10.	80%

명품도시 1-16

강남 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균형발전 가속화

: 강남 지역 주거단지 조성

공주시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한 ‘강남지역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도시 균형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총 1,318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된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 기능 회복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공주’ 실현을 위한 핵심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현황

명칭	대지 위치	세대수	진행 단계			현황
			승인 전	승인	착공	
-	웅진동 227-2	322		✓		승인(2024. 12. 24.)
-	웅진동 662	570		✓		승인(2024. 06. 05.)
유네스코빌리지	웅진동 653-5	68			✓	공사 중(공정률 98%)
공주 금학동 지역주택조합	금학동 301-1	358	✓			사업계획승인 접수 (2025. 01. 17.)

1. 구도심 재생의 속원, 쾌적한 주거환경 수요 증가

과거 공주 구도심은 인구 유출과 주거 환경 노후, 상권 쇠퇴 등 복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공주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를 적극 유입하고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았다. 강남지역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웅진동 3건과 금학동 1건 등 4건의 주택 건설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 중으로, 2건은 승인 완료, 1건은 승인 예정, 1건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2. 공동주택 공급으로 '정주 인구' 증가 효과 기대

이번 사업으로 공급되는 1,318세대는 공주시 전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세종시 등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인구 유입이 확대되면서, 공주시가 '관계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부 사업 추진 지연 우려가 있으나, 공주시는 정부 지원사업 안내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유네스코빌리지 준공 임박, 강남 지역 새 시대

웅진동에서 조성 중인 '유네스코빌리지'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학동지역주택조합'도 같은 기간 주택 건설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강남지역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구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을 향한 공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공주가 젊은 인구를 적극 유치하고,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지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품도시 1-17

일상 속 휴식 공간 소공원의 재탄생

: 소공원 편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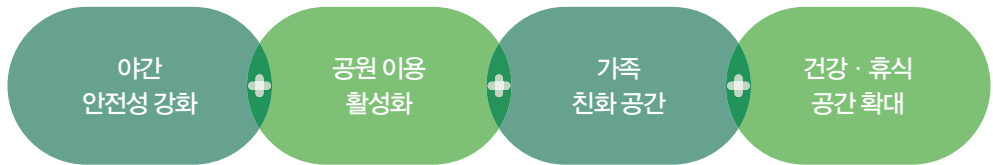
공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 편의시설 확충’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성된 공원들이 노후화되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주시는 총 8개소에 걸쳐 퍼걸러, 수목 정비, 조명시설 설치, 황톳길 조성 등 다양한 시설 확충에 나섰다. 어둡고 불편했던 공원이 이제 ‘밤에도 낮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활력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덕성공원

1.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휴식 공간

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 공간으로 다수의 공원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이 온전히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명이 부족한 공원은 야간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에 민선 8기 공주시는 ‘시민의 활력을 북돋아 줄 소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사업은 퍼즐러(정자) 설치, 수목 및 편의시설 정비, 조명시설 설치, 황톳길 조성, 잔디 식재, 등외자 설치, 조경석 쌓기, 데크 계단 설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에 역점을 두었으며, 맨발 황톳길 조성 등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2. 공주시 전역 8개소 맞춤형 개선

시는 시민 생활권과 밀접한 주요 공원 8개소를 선정하여 각 공원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를 추진했다.

▲‘법원 앞 공공공지(금흥동 619-14)’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에 달하는 체육시설과 2대의 퍼걸러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쉼터 역할을 강화했다.

▲‘금학소공원(금학동 250-29)’과 ‘금학동완충녹지(금학동 186-17)’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수목 및 편의시설 정비와 함께 조명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야간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금학소공원에는 공주여고 앞 공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의자 등 편의시설이 확충됐다.

▲‘신관어울림공원(신관동 366-6)’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을 통해 힐링과 건강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또한 야간 안전을 위한 가로등도 함께 설치됐다. 이어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월송동 녹지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신관어울림공원의 맨발 황톳길과 가로등을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덕성공원(신관동 649-1)’, ‘풀향기숲공원(금흥동 667)’, ‘신금공원(금흥동 607-4)’ 등 3개 공원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24년 공원(3개소) 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덕성공원은 넓은 조합 놀이터를 철거하고 잔디를 심어 탁 트인 녹지 공간을 조성했고, 풀향기숲공원에는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신금공원에는 등의자가 새롭게 설치되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더했다.

신금공원



3.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더 나은 공원' 기대

시는 이번 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특히 어두웠던 공원에 조명을 설치하고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냈다. 이는 공약 이행을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는 공주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원 관리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소공원 편의시설 확충 예산투입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설계비	사업비	관급 자재비	합계
법원 앞 공공공지	0	0	29,719	29,719
금학소공원	2,850	30,368	11,075	44,293
금학동 완충녹지	0	11,333	4,598	15,931
신관어울림공원	0	9,500	0	9,500
덕성공원 풀향기숲공원 신금공원	0	31,120	43,287	74,407
월송동 녹지대	0	36,680	5,452	42,132
총액	2,850	119,001	94,131	215,982

덕성공원



명품도시 1-18

‘농촌에서 미리 살아가기’로 3가구 실제 정착

: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공주시가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농촌마을 일원에 9개소의 ‘귀농귀촌인의 집’을 조성·지정했다. 이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간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1. 성공 정착 돕는 ‘귀농귀촌인의 집’

공주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외부 인구 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지역 도시민들이 공주 농촌에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정책을 모색해왔다. 귀농귀촌은 아름다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낯선 환경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많은 이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농촌 환경 적응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일정 기간 ‘귀농귀촌인의 집’에 거주하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데 있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관내 농촌마을 일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총 9개소의 ‘귀농귀촌인의 집’을 조성 또는 지정했으며, 총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첫발을 내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과 마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집



—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3개소(이동식 주택)

위치 | 의당면 도신리 2개소, 이인면 이인리 1개소

규모 | 각 22.66㎡

사업비 | 1억 8,100만 원

지정 6개소(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위치 | 정안면 쌍달리 2개소, 정안면 전평리 1개소,
유구읍 동해리 1개소, 우성면 봉현리 2개소

규모 | 마을별 상이(원룸~투룸)

사업비 | 비예산(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마을회과의
협약을 통한 일부 유휴공간 활용)



2. 사유지 활용과 유희공간 지정으로 효율성 극대화

‘귀농귀촌인의 집’은 크게 두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첫 번째는 신규 ‘조성’ 방식으로,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소(의당면 도신리 2개소, 이인면 이인리 1개소)에 각각 22.66㎡ 규모의 이동식 주택을 마련했다. 이는 사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국비(브랜드화 사업)를 확보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두 번째는 ‘지정’ 방식으로, 비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개소(정안면 쌍달리 2개소, 정안면 전평리 1개소, 유구읍 동해리 1개소, 우성면 봉현리 2개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마을회관의 유희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마을별로 원룸에서 투룸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수요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활력과’와 협업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정책 추진의 모범을 보였다.



3.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실제 정착 견인

이 사업은 체계적인 추진 경과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22년 3월 '귀농인의 집 브랜드화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3개소 신규 조성을 완료했다. 2023년 3월에는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3개소 지정, 2024년 2월에 다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11월에 3개소 지정을 마무리하는 등 목표했던 9개소 확보를 달성했다. 이로써 2024년 11월 19일, 해당 공약사업은 이행 완료 보고를 마치며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를 밟았다.

주요 성과로는 ▲시유지 및 국비 확보를 통한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고려한 기존 유휴공간 활용 ▲마을회 또는 휴양마을과의 관리협약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마을 적응 지원 및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이 꼽혔다. 특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 3가구가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연계·입주하여,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집'이 귀농귀촌을 위한 실질적인 '중간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한다.

4. '빈집은행 활성화' 연계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모색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아쉬운 점과 개선 방안도 도출되었다. 현재 '귀농귀촌인의 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나, 궁극적으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매매하거나 장기간 임차 거주 가능한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시 거주를 넘어선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주시 관할 부서인 '도시정책과'는 2026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시 거주를 넘어선 장기적인 정착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마을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완전한 정착'까지 지원하는 공주시의 통합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명품도시 1-19

공약 이행률 95.50%, 혁신 행정으로 ‘품격 있는 도시’

: 공약의 체계적 이행과 혁신 행정

공주시가 민선 8기 3년간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76개 공약사업 중 56개를 완료해 95.5%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 목표치 95%를 뛰어넘었으며, 보류·폐지 공약 제로를 달성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입증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 참여 확대가 그 배경으로 평가된다.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심의 평가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1. 네 가지 시정 목표 아래 체계적 공약 추진

민선 8기 공주시는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라는 4대 핵심 목표 아래 총 76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추진해왔다.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질적 성장, 균형 잡힌 경제 활성화, 미래 인재 양성과 삶의 질 향상, 자연과 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 시정 목표별 공약분류



2. 투명한 추진과 시민참여로 신뢰와 실효성 확보

공주는 공약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공약 초안 작성, 보고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주민배심원 제도를 통한 시민 평가 등 투명한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했다. 2022년 12월에는 ‘공약실천계획’을 공식 확정·공포해 추진력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 과정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능동적 대응과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3. 민선 8기 4년 차, 지속 관리 강화

2026년 1월 기준 공약 이행률 95.5%는 민선 8기의 결실이자 공주시가 약속한 성과를 현실화한 증거다. 공주는 오는 3월 마지막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며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약 가계부’, ‘공약 지도’ 등 공개로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시민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예정이다.

명품도시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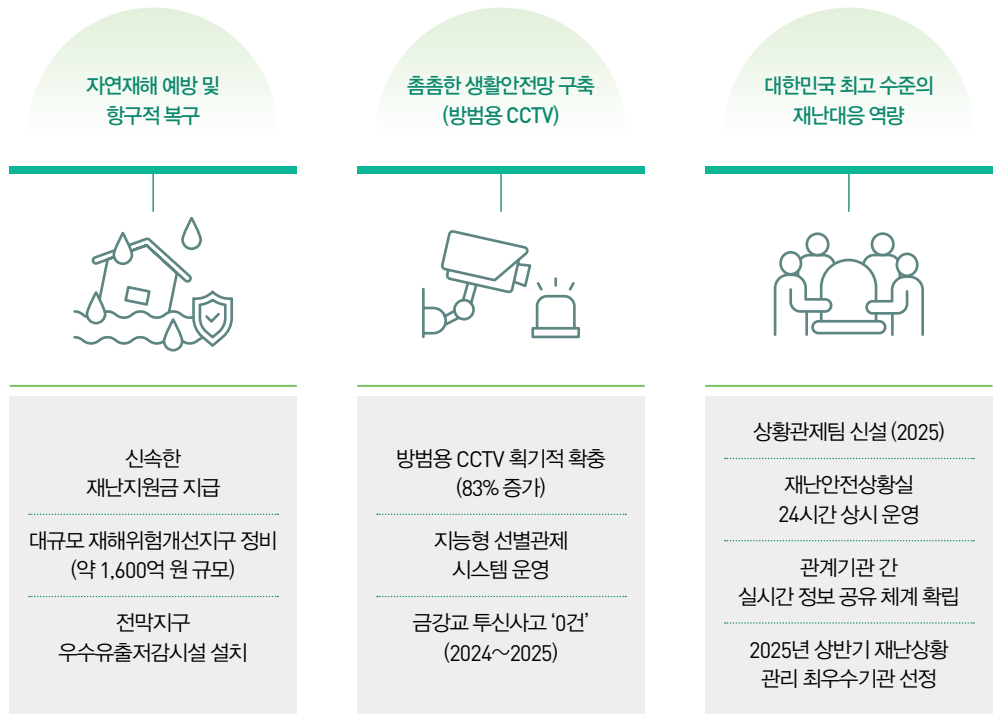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빈틈없는 ‘안전망’

: 자연재해 예방, 피해복구 및 생활안전망 강화

공주시가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와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방위적인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복구 겸 예방형 정비사업’ 전환부터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대폭 확충까지,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강교 투신사고 ‘0회’라는 성과는 공주시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실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1. '복구 겸 예방' 시스템으로 반복 피해 근본적 대응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을 야기하며 공주시에도 큰 피해를 안겨 왔다. 특히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공주시가 각 581억 원, 1,321억 원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 복귀와 항구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공주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각 107억 원, 14억 원의 '재난 지원금 및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을 각 1,321억 원, 540억 원을 투입하여 발 빠르게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재해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복구 겸 예방형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하천 정비, 배수로 확충, 제방 보강 등 항구적인 대책을 병행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2. 대규모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박차

시는 상습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반촌, 연암, 가느니, 유구수촌, 추계 등 5개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복구 겸 예방형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시설계VE(가치공학)와 신기술 공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형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대부분의 재해위험지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내부 배제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상습 침수 구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도심 내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15,000㎡ 규모의 저류조와 2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단계 사업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3,000㎡ 규모의 저류조와 100㎡/분 용량의 배수펌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관동 일대 약 450세대, 240여 동의 주택 및 상가를 보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예정이다.

3. 방범용 CCTV 2,200대 확충, '지능형 관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공주시의 노력 또한 눈부시다. 공주시는 범죄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생활권,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이전인 2022년 6월 기준 1,200여 대에 불과했던 방범용 CCTV를 2025년 11월 기준 2,200여 대까지 약 2배 가까이 증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시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활 안전망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했다. 'CCTV 통합관제 센터'는 24시간 시스템 가동 및 상황 관제를 통해 범죄, 재난, 각종 사고를 조기에 식별하고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초동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강교에서의 투신 의도를 조기에 식별하고 사고 발생 전 조치하는 데 성공, 2024년과 2025년 '금강교 투신 0회'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상반기 재난상황관리훈련



4. '상황관제팀' 신설,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시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2025년에는 안전총괄부서 내 '상황관제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를 확립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5년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공주시 재난 대비와 대응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 복구·예방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공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명품도시 1-21

공주시

‘인구 활력 되찾기 프로젝트’ 성공적 결실

: 전입, 출산 장려를 통한 정주인구 확대 및 생활인구 기반 강화

전국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공주시가 특단의 대책과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인구 활력을 되찾는 데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시민들이 공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정착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2025년 2분기 충청남도 내 ‘생활인구’ 1위,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인구 감소 폭을 크게 완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연말맞이 다섯째 출산축하 이벤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출산장려금

2,839명 / 47억 지급

첫만남이용권

1,299명 / 28억 6,300만 원 지원

특별 혜택

출산 축하 선물 및 슬브레인 후원 물품 제공

결혼 및 주거

결혼장려금 176쌍 / 2억 6,400만 원 지급

다자녀 주거지원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1세대, 53백만 원 지원

정주인구 및 청년 유입

전입 지원

전입 지원금 110,171명 / 82억 3,000만 원 지급

전입(7,499명) 대비 전출(7,291명) → 208명 증가

관내 2개 대학 및 7개 고등학교 직접 방문 홍보

대학 내 홍보부스 운영으로 청년 정착 유도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

21개 부서 협력,
6개 분야 45개 세부 과제 추진

눈부신 성과 “충청남도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충청남도 내 '1위', 전국 2위

연간 생활인구 776만 명 달성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입증)

인구 감소폭 완화 | 자연감소(연평균 980여 명) 위기를 사회적 유입 정책으로 적극 방어

1. 전입·출산·결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시는 그동안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자 21개 부서가 힘을 모아 6개 분야 45개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5년 네 차례 정례회의와 ‘공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공주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시는 공주시를 선택한 새로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전입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2026년 1월까지 11만 171명에게 총 82억 3천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며 새로운 시민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그 결과 2022~2025년 기준 연평균 전입자 7,499명, 전출자 7,291명으로 전입자가 208명이 더 많아져 인구 유출 폭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출산 장려책도 시행했다. 총 2,839명에게 47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며, 1,299명의 신생아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28억 6,300만 원을 제공했다. 여기에 출산 축하 선물과 솔브레인 후원의 출산용품까지 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축하의 마음을 전달했다.

젊은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공주대, 공주교대 및 관내 7개 고등학교의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찾아가 전입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대학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이 공주시민으로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176쌍에게 2억 6,4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세대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여 31세대에 5,3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 출산장려 기반을 강화하였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2. 충남 '생활인구' 1위 달성, 인구 감소폭 대폭 완화

공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었다.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에서 충청남도 내 1위를 차지하며 776만 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공주시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를 넘어,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 감소폭 완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2~2025년 기준 연평균 자연 감소(사망자 1,308명 대비 출생자 321명으로 987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증감(전입·전출)에서 전입자 208명 증가로 전체 인구 감소세를 크게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2025년 3월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과 7월부터 시작한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 및 온누리공주시민제도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구 문제가 행정의 과제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3.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인구 활력 되찾기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공주에서 꿈을 실현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주 시민 모두가 인구정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부터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PART.2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혁신으로 내일을 만드는 공주

공주시는 도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첨단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였고,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구현하고자
공주시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경제도시 2-01

첨단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도시 기틀 마련

: 공주시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수립

공주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인구 감소라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경제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경제 성장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첨단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미 10대 핵심 경제 시책 중 7건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두어 공주시 경제력 강화의 전환점으로 부상 중이다.

1. '4개년 계획'으로 시대 변화에 능동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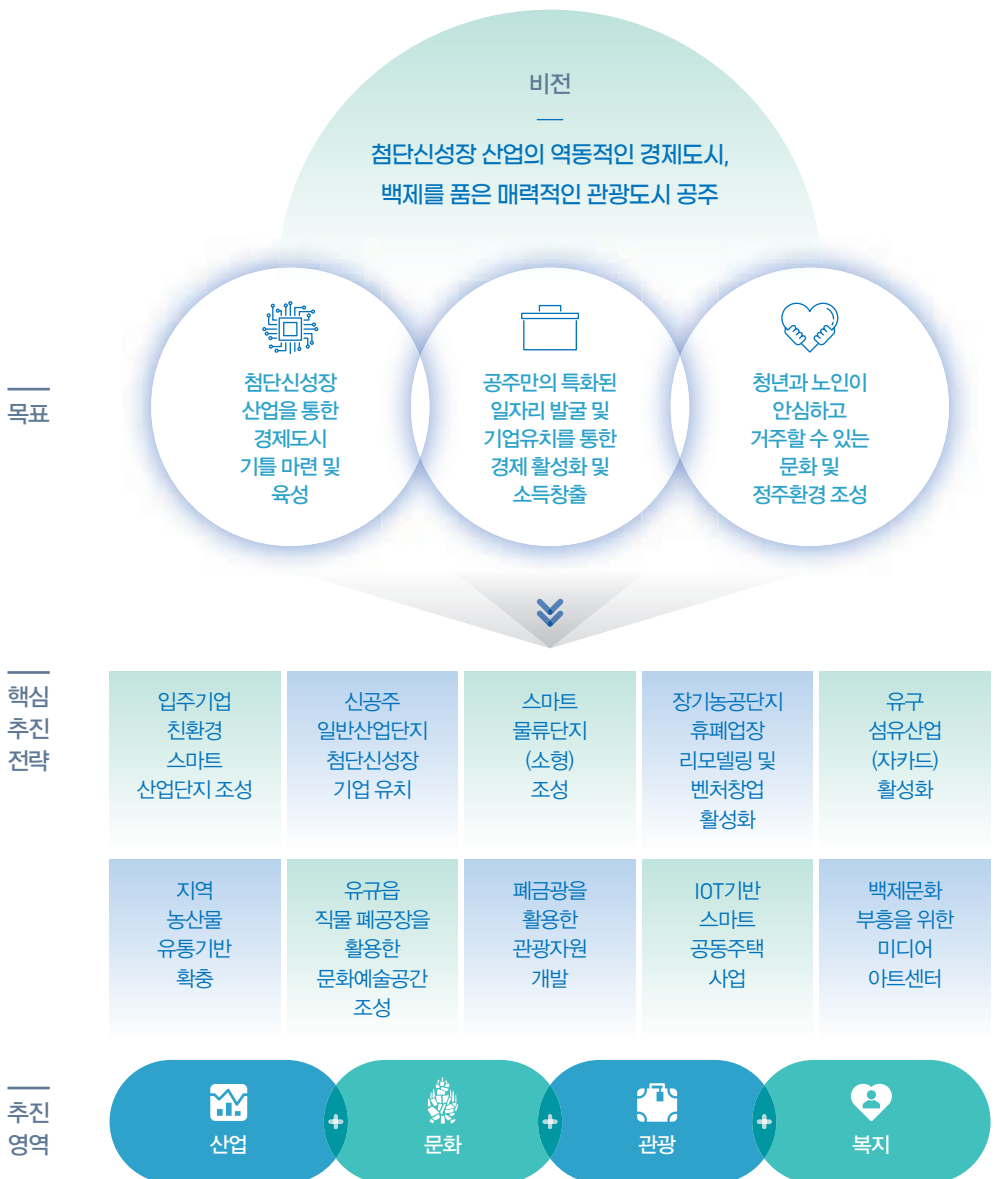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공주시의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공주시는 민선 8기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라는 목표 아래,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경제발전 실현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주시 경제발전 4개년 계획'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전통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미래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체계적인 수립

시는 '공주시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을 잡았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진행된 이 용역은 공주시 지역 경제 현황과 잠재력을 상세히 분석하고, 공주시만의 특성화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경제발전 핵심 이슈, 전략,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에 열린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주요 경제 시책이 발굴되었고, 같은 달 행정 간행물 발간등록을 마치며 공식화되었다. 이후 2023년 9월 최종보고서가 각 소관 부서에 배부되어 시책 이행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발굴된 계획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공주시 경제발전 목표 설정



3. '10대 핵심 경제 시책' 발굴, 7건 완료 및 진행 중

‘공주시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발굴된 10대 핵심 경제 시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수립되어 부서별로 추진되며 공주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총 7건의 시책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10건 모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공주시의 경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시는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발굴된 10건의 경제 시책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책별 이행 단계를 꾸준히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책 이행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시책 10건 추진 현황

- ①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2026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② 신공주 일반산업단지 첨단신성장 기업 유치(추진 완료)
: 신성장 기업 유치 16건 유치
- ③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추진 완료)
: 유구 농공단지 내 통합물류 센터 조성 완료하여 지역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④ 장기농공단지 휴폐업장 리모델링 및 벤처창업 활성화
: 2026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노후 산업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 ⑤ 유구 섬유산업(자카드) 활성화(추진 완료)
: 유구 지역의 전통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⑥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 2026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⑦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 2026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폐산업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⑧ 폐금광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 2026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숨겨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매력을 증대한다.
- ⑨ IoT 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사업(추진 완료)
: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건물 5동 준공하여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⑩ 백제문화 부흥을 위한 미디어 아트센터(추진 완료)
: 공산성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백제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며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한다.



경제도시 2-02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산업단지로 미래 경제 선점

: 세종시 인접 3개 지구에 최첨단 산단 조성

공주시가 제조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미래 경제를 선도할 거점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단순 제조공정을 넘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배터리,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고,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까지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8기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월미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준공식



1. 4차 산업혁명 맞춤형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공주시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사업 추진의 성공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후 국내외 우수기업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 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사업 기반을 견고히 했다. 특히 세종시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해 광역 경제권과 충청권 메가시티 내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

구분	강북지구 (유구 일반산업단지)	강남지구 (탄천2 일반산업단지)	탄천 광명지구 (탄천 항공우주산업)
위치/면적	유구읍 석남리 일원 / 727,912㎡	탄천면 안영리 일원 / 1,237,778㎡	탄천면 광명리 일원 / 약 1,333,358㎡
추정사업비	1,084억 원	1,899억 원	미정
유치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등 8개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9개 업종	항공 ·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업

2. 광폭 협력과 적극적 투자 유치 활동

공주시는 2023년 5월 ‘산업단지닷컴’ 견학, 정운찬 전 총리 · 티에이치개발 대표 면담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투자유치를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펼쳤다. 2024년에는 기업과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며 사업 방식을 다변화했고, 충남도와 협력해 현장 점검과 실무회의를 지속하는 등 행정 협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2025년 KOTRA 방문, 코웨이 · 현대로템 투자 관계자 접촉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화 발전과 정부지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 신속한 완공과 지역 경제 성장 기틀 확립

공주시는 2026년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동현 · 송선 · 세종산단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개발 방식을 검토해 최적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홍보 활동으로 산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와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며,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공주가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도시 2-03

첨단기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새 동력

: 첨단 신성장 기업 유치

공주시가 기술집약적 '첨단 신성장 기업' 유치에 힘쓰며 지역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2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16개 기업을 유치해 목표의 133%를 달성하였다. 이는 조성 및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공주시의 전략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주시-충청남도-30개 기업 투자협약



1.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으로 산업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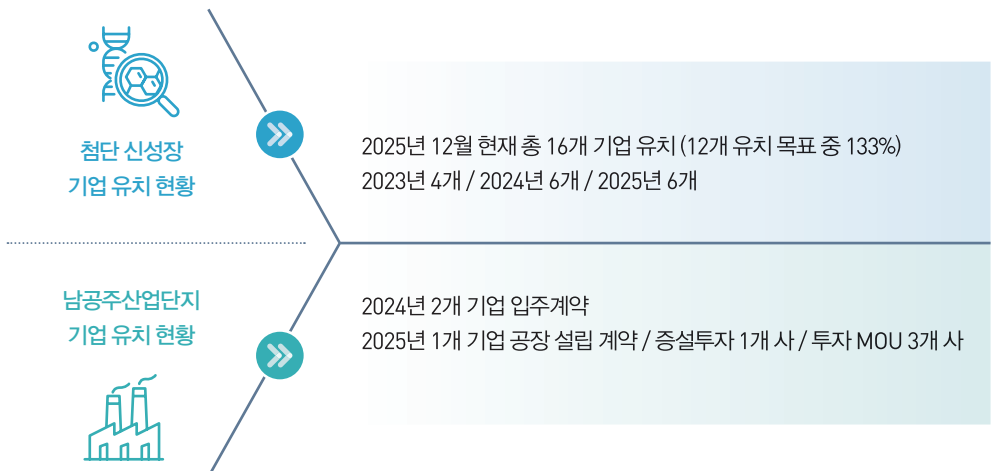
공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빅데이터, 배터리,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2022년 9월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산업단지닷컴’ 방문 등 국내외 선진사례와 협력 체계를 구축,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2025년 10월에는 ‘BIX 박람회’와 ‘세계한인경제 무역협회(OKTA) 토론토지회’ 연계 설명회를 통해 해외 투자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또한 2024~2025년 동안 기업 타당성 검토, 현장 실사, 충청남도와의 실무 협의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 현장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했다.

2. 입주 기업 다변화, 민관 협력 강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주시는 (주)아큐옵토텍, (주)덕산일렉테라, (주)피앤오케미칼 등 10개 이상의 첨단기업 입주를 확정 지으며 지역 산업 안전판을 넓혔다. 2024. 10. 29. (화)에 공주시, 한국투자파트너스(주)와 ‘기업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남공주산업단지 내 청명첨단소재(주), 가스캠 등 7개사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입주 계약이 이어졌으며, (주)덕산테크코피아가 증설 투자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산업 투자가 지속되었다. 3개사 간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대규모 협력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도시 2-04

충청권

‘대규모 물류거점’으로 비상

: 유구 농공단지 내 통합물류센터 준공

공주시가 호남고속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 나들목이 만나는 뛰어난 광역 교통망을 바탕으로 충청권 대규모 물류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폭 증한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구 농공단지 내에 연면적 28,251㎡, 4층 규모의 첨단 통합물류센터를 준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웅진식품 통합물류센터 조감도



유구 농공단지 내 통합물류센터

기간 2022. 09.~2025. 06	사업비 450억 원(민간 실수요자 개발)	고용 웅진식품 25명, 코웨이 25명
건축면적 물류 시설 연면적 28,251.07㎡ (4층)	사용회사 웅진식품(주), 웅진코웨이(주)	

1. 난항 겪던 '유구 통합물류센터'로 첫 결실

공주시의 물류 인프라 개발은 뛰어난 지리적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상대적으로 더뎠다. 2022년부터 충남도와 협의하며 메이트플러스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단계별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사업 시행자인 (주)중부스마트그린복합타운의 사업 중단 통보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시는 2024년 초 현안 조정회의와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며 재추진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러다 2024년 10월, 450억 원 규모 민간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물류센터가 마침내 준공됐다. 웅진식품(주)과 웅진코웨이(주)가 주요 입주기업으로 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원 개발에 일조했다. 또한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30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였고, 2024년 12월 임시사용허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 소규모 단지 조성 및 물류코드 반영으로 방향 전환

대규모 복합사업 시행 불발에도 시는 2024년 12월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 내 '물류코드 반영'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투자기업 실수요 검증과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적 개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공주시는 2025년 유구 농공단지 확장 인가를 받고 계획 변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도 실수요 검증이 가능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 소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송선·동현 신도시 및 신규 산업단지에 물류 기능을 연계해 생산과 물류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경제도시 2-05

노후 공장에 혁신 숨결, 지식산업센터로 재탄생

: 장기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및 벤처창업 활성화

공주시가 장기농공단지 내 노후된 휴폐업 공장 부지를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시켜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총 3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 공간을 확보, 지역 산업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공단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위치 송선동 540-1번지 일원	기간 2023. 01.~2028. 12.	사업비 344억 6,400만 원
내용 지식산업센터(일자리 창업복합센터) 건립		
규모 부지면적 6,217㎡, 건축연면적 7,500㎡(지하 1층, 지상 5층)		

1. 낡은 공장의 변신,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장기농공단지는 과거 지역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오래된 공장들이 휴폐업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한독옴텍 부지를 활용해 노후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벤처창업공간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 사업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 초기 정착과 혁신 아이디어 실험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 국비 확보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 가시화

2022년 12월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후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에 신청했고, 5월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총 344억 6,400만 원의 예산(국비 160억 원, 시비 159억 6,400만 원, 지방소멸기금 2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23년 공유재산 심의, 추가예산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용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착실히 준비했다. 2024년 4월 건축 기획용역 착수 후 7월 석면 철거 완료, 12월 공공건축심의 신청과 2025년 1월 완료로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철거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위치 | 송선동 540-1번지 일원

기간 | 2025. 09.~건축공사 착공 시

내용 | 장기농공단지 폐업 용지 이용 임시주차장 조성

3. 2028년 공주에 들어서는 '혁신 공간'

2025년 3월 철거공사를 시작했고, 7월 준공과 4월 설계공모 완료로 지식산업센터 설계 방향을 확정했다. 용지 일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며 장기농공단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2026년 6월 완료 예정이며, 7월 사업비 승인을 마친 뒤 9월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2027년 3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입주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2028년 3월 준공 후 4월부터 입주와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 지역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도시 2-06

유구 섬유산업, ‘스마트’와 ‘관광’ 품고 재도약

: 유구 섬유산업(자카드) 활성화

유구읍의 오랜 염원이었던 섬유산업 활성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때 쇠락의 길을 걷던 유구 자카드 섬유산업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유구섬유축제 활성화, 자카드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주시는 지역 섬유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업과 관광을 융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구 섬유축제 개막식



유구 농공단지 내 통합물류센터

기간 2022. 07.~	위치 유구읍 백교리 603 일원	수행기관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사업비 26억 5천만 원 (국가 직접지원 7억 5천만 원 포함)		
주요사업 공동 활용 장비 관리 · 운영, 소공인 지원기관 서비스 연계, 소공인 기능인력 양성 교육, 산학연 협력 등		

1. 혁신의 요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구읍 백교리 일대에 조성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2022년 7월 문을 열었으며, 국가 직접 지원금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공동 활용 장비 운영, 인력 양성 교육,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2023년 1월부터 안정적인 민간 위탁 운영에 돌입한 이 센터는 7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역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유구섬유축제’

‘유구섬유축제’는 2017년 첫 개최 이후 총 7회에 걸쳐 지역 섬유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누적 방문객은 1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공주시는 자카드 섬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용 스카프 제작, 봉제 교육장 지원 등 판촉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자카드 섬유 마케팅 센터’와 ‘전시 홍보관’ 운영을 통해 연중 제품 전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자카드 섬유제품 홍보·판촉으로 시장 확대

시는 자카드 섬유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홍보와 판촉 지원사업에도 사업비를 투입했다. 홍보용 스카프 제작과 자카드 섬유 봉제 교육장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자카드 섬유 마케팅 센터’와 ‘자카드 섬유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제품을 상시 전시하고, 2022년부터 매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기념품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외 행사 및 외부 기관 방문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주민 역량 강화,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이러한 노력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과 특화지원센터 추가 선정 ▲유구 섬유축제의 성공적 개최 ▲섬유제품 홍보물 제작 및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역 소공인 대상 기획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교육 ▲유구 자카드 산업의 이미지 개선 및 관광자원화 기반 확립 등 주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 소공인들의 기획과 기술개발 역량이 강화되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소공인복합·특화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위탁 및 재협약을 추진하며,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와 홍보사업 발걸을 꾸준히 진행해 유구 섬유산업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도시 2-07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공주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3년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총 5,471개 소상공인 업체에 15억 5천만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에 힘썼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 위기 극복 위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

최근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속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공주시는 충청남도 최초로 2023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업체에 카드수수료의 0.5%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다.

첫해에는 1,847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매출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2,601개 사업장을 지원,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2. 지원 확대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강화

2025년에도 지원금 한도를 최대 60만 원으로 올리고, 10월 말 현재 1,563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경감했다. 3년간 총 15억 5천만 원 규모 직접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3. 미래에도 지속적 지원 약속

공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맞춤형 실질 지원을 지속,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도시 2-08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중부권 철도 거점으로 도약

: KTX 공주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통 이후 낮은 이용률과 부족한 기반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KTX 공주역이 공주시의 적극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공주시는 KTX 공주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썼고, 그 결과 2024년 이용객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세권 접근이 어렵고 주변 기반 시설 미비로 기대만큼의 이용률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주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연결교통망 확충'과 '공주역 주변 기반 시설 확충'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공주역



KTX 공주역 이용객 증가 현황

구분	KTX 이용객	SRT 이용객	전체 이용객
2022년	217,530명	71,368명	288,898명
2023년	287,088명	83,798명	370,886명
2024년	308,656명	95,170명	403,826명



공주역 개통 10주년 기념식

1. KTX 공주역 연계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시는 공주역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먼저, ▲총 5억 9,900만 원의 사업비(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4억 3,400만 원)를 투입하여 공주역과 연계한 5개 시내버스 노선(200, 201, 202, 205, 206번)을 연중 운영하며 시내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또한, ▲총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국비 7천만 원, 도비 7백만 원, 시비 6,300만 원)를 투입해 소방연구단지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주역-계실 소방연구단지 간 직통노선(207번)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2025년 7월부터는 공주역~탄천면 소재지~마을을 연결하는 공공형 버스 3개 노선(21, 22, 23번)을 운영하여 타지 방문객의 시내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주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사업에는 4억 4,400만 원(국비 2억 2,200만 원, 도비 6,660만 원, 시비 1억 5,540만 원)이 투입됐다.





2. 시민 이용 공간 조성 및 온라인 홍보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공주역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졌다. 먼저 ▲공주역 앞 광장에 조성된 문화관광 시민 이용 공간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제초 작업과 함께 팬지, 메리골드, 국화 등 계절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3,5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또한 ▲KTX 공주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객과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자 온라인(SNS 등) 홍보활동도 연중 펼쳤다.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 비즈니스보드, 페이스북 등 주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12건의 기획 콘텐츠와 1건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총 노출 43만여 회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3. 이용객 지속 증가, KTX 공주역 활성화

이러한 공주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KTX 공주역 이용객 증가라는 뚜렷한 성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용객은 288,898명(KTX 217,530명, SRT 71,368명)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370,886명(KTX 287,088명, SRT 83,79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용객 403,826명(KTX 308,656명, SRT 95,170명)을 달성하며 40만 명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수치는 공주역 연계 교통망 확충과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이용객 증대로 이어졌음을 입증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4년 6월 12일 이행 완료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를 분석한다. 2025년 11월에는 공주역 이용객 대상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충남연구원에 'KTX 공주역 이용객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안 과제 부여를 의뢰하며 더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도시 2-09

월송·반죽 지역에 총 169면 주차 공간 확보

: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난 해소 사업

공주시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지 주차난 해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목표였던 75면의 225%에 달하는 총 169면의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대폭 향상시켰다.

월송동 공영주차장





1. 월송지구, 155면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월송지구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은 대표적인 주차난 해소 사례다. 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송동 629번지 일원에 17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2면 규모 1차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주민들의 추가 조성 요청을 수용, LH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해 재원 절감을 도모하며 123면 규모 2차 공사를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월송지구는 총 155면에 달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갖추면서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2. 반죽 무령로 공영주차장, 구도심 편익 증진

공주시는 신도심뿐 아니라 구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도 주력했다. 반죽동 94-4번지 일원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 1월 착수한 무령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14면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되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3. 목표 225% 초과한 주차공간 확보

이번 사업 완료로 월송지구 155면, 반죽 무령로 14면 등 총 169면의 공영주차 공간이 확보됐다. 이는 목표 대비 225%에 다하는 성과로,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감소와 교통 안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신관동 변화가와 월송동 중심 신도심 및 구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영·임시 주차장 확충을 꾸준히 이어가며 시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도시 2-10

제2금강교, 문화재 난관 넘어 2027년 준공 가시화

: 제2금강교 착공, 균형발전 기대감

공주시 숙원 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이 문화재 심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2023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교량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공주 왕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도시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공산성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도시형 교량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은다.



1. 금강 두 강안 잇는 시민의 염원

1933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는 증가하는 차량수를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공주시는 오랜 준비 끝에 제2금강교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산성 인근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으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조망 훼손 우려’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조직, 교량 규모와 디자인을 재조정하는 한편 ‘유산영향평가’라는 국내 드문 절차를 도입해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려 애썼다. 그 결과 2022년 8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고, 행복청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완성하며 2023년 착공식을 진행했다.

제2금강교 건설 개요

배경 | 1933년 개통(등록문화재 제232호)한 금강교 노후화, 교통체증 심화

기간 | 2023~2027년

역할 | 왕도심(강남)과 신도심(강북)을 잇는 새로운 도시축

제2금강교





2.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제2금강교는 공산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인프라로 기획됐다. 교량은 금강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야간 조명은 공산성의 아름다운 야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도와 색채가 세밀히 설계됐다. 완공 후 기존 금강교는 차량 대신 보행자와 관광객 중심의 문화교량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3. 시민과 문화 연결하는 새로운 도심 축

현재 제2금강교 건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왕도심과 신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주요 도시 축으로서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공주시는 교량 완공과 동시에 금강변을 따라 공산성·금강교·미르섬·신관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해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터로 재창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경제도시 2-11

생산-가공-유통-관광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공주알밤특구, '2025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우수 특구 지정

공주시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연계한 '공주알밤특구'로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 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는 공주알밤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공주시의 전략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공주알밤 미국 H-mart 수출 선적식



1. 6차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공주시는 2010년부터 공주알밤특구를 운영하며 밤 산업을 단순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까지 확장하는 6차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총 488억 9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4개 읍·면·동과 27개 리·통 1,930만 평 규모에서 체계적 육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주알밤센터 운영을 통한 제품 홍보·판매 활성화, 국내외 대형마트 판촉전과 수출상담회 개최,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마치와 국제 업무협약 체결 등 유통망과 해외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공주알밤을 활용한 신메뉴 출시, 겨울공주 군밤축제 및 산업 박람회 개최로 대중적 인지도와 지역 대표 축제 위상을 높였다.

2. 브랜드 가치 확립과 정부 지원 확보

공주알밤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임산물 부문에서 5회 대상을 받으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인받았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재지정된 특구 지정과 11억 원 규모의 정부 지역연고사업 육성 예비 선정은 사업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담보한다.

공주시는 2026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밤 산업 진흥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의 협력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을 방침이다.

공주알밤특구 사업 내용

특화사업(4)	세부 사업(8)
친환경 생력화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고품질 알밤 생산단지 조성
	생력화 장비 확대 보급
고부가 상품개발 구축	밤연구소 운영
	밤 가공 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공주밤 유통망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지리적 표시제 등록(완료)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알밤축제 및 체험농원 운영
	공주알밤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





공주알밤카페 개소식

경제도시 2-12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농촌에 새바람

: 스마트 원예 활성화 사업

공주시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의 복합 위기 속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원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과 신규 인력의 유입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공주 농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주시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



스마트 원예 활성화

사업비 310억 1,500만 원 (2022~2025)	기술 보급 중소농 및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임대형 스마트팜 3.4ha (3연동 10개 동) 조성 → 청년 농업인 진입 장벽 완화	
지역특화 단지 40ha 규모 조성 완료 → 공주 농산물 경쟁력 강화	

1. 위기 극복과 혁신 기술 도입

최근 농업은 고령화와 기후 이상 등으로 생산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시는 이에 발맞춰 민선 8기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팜 도입에 집중했다. ICT 기반 스마트 원예시설과 자동 제어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활력 있는 농촌 재건에 나섰다.

2. 단계별 추진과 현장 소통으로 성공적 정착

사업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초기에는 스마트팜 용지 확보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는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 추진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 참여 농가의 만족도와 효과도 크게 증대됐다.

3. 310억 원 투입,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농업 정착

2022~2025년 310억 원이 투자돼 임대형 스마트팜 3.4ha 조성,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 지역특화 스마트농업 단지 40ha 육성 등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농작물 품질 향상과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농과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 유입과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며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

공주시는 앞으로 스마트 원예 활성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더 많은 농가에 첨단 농업 기술 보급과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ICT 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생산성뿐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도시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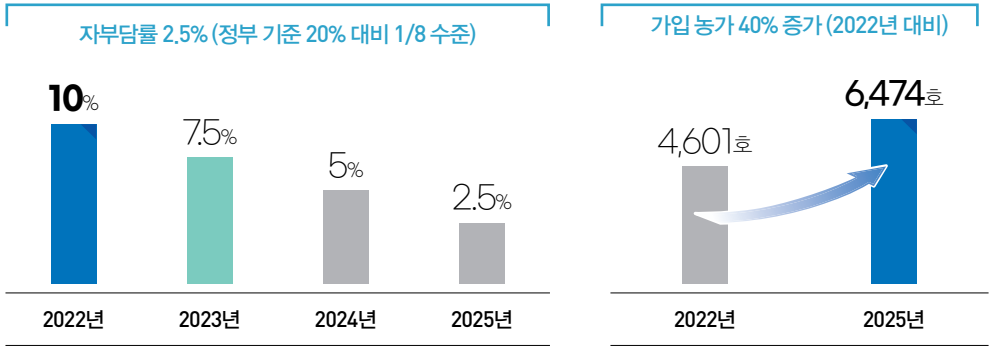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공주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서 농가를 보호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속해서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든든한 '생존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민선 8기 이후 농업인 자부담률을 2022년 10%에서 2025년 2.5%까지 대폭 인하했으며, 그 결과 가입 농가가 약 4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1. 이상기후 위협, 농작물 재해보험 중요성 부각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경영활동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농업 생산성 저하와 함께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한다.

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재해에 대비하도록 농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2. 자부담률 2.5%까지 대폭 인하, 가입 농가 급증

공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률 인하로 이어졌다. 정부 기준 20%인 자부담률을 공주시는 꾸준히 지원해 2022년 10%까지 낮췄다. 이후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2023년에는 7.5%,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2.5% 수준까지 인하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험 가입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자부담률 인하 효과는 곧바로 가입 농가 증가로 나타났다. 2022년 4,601호였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25년 현재 6,474호로 약 40% 증가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입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안전망' 역할을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제적인 농업 지원 정책으로 농업인의 삶에 안정감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도시 2-14

로컬푸드 자체 인증 236개소, 학교급식 인증률 90% 돌파

: 로컬푸드 인증제로 지역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

공주시가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하며 지역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공주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농업환경연구관 건립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심 공주푸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사전 신규교육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운영 실적

연도별	합계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합계	236	225	3	8
2023년	63	60	-	3
2024년	97	96	-	1
2025년(10월 현재)	76	69	3	4

1. 지역농산물 안전성과 신뢰 확보 시급

최근 소비 트렌드는 먹거리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고려한 소비다. 공주시 역시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소비자가 만족할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으로 시는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 생산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2. 연구용역부터 인프라까지 체계적인 추진

공주시는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500만 원(국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을 투입해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인증 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으로 인증제 디자인과 제도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천만 원(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을 들여 '공주푸드 인증 브랜드 응용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포장재와 박스 등에 적용할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5천만 원(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주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진행하며 참여 농가의 안전성 관리와 상품화 역량 강화에 힘썼다.

무엇보다 지역농산물 안전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하여 2022년 8월 완공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 총 5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5억 원)이 투입된 이 연구관은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 등을 갖추어 농산물 안전 분석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3. '고마곰' 활용 디자인, 엄격한 규정으로 신뢰 확보

시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며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디자인 및 제도'를 구축했다. 인증 디자인은 공주시 대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를 활용하여 농경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안전 농산물임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엄격한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인증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은 2025년 10월 현재 총 236개소(농산물 225개소, 축산물 3개소, 가공품 8개소)를 확보했다. 특히 2023년 63개소에서 2024년 97개소로 늘어나는 등 참여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학교급식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섰다. 그 결과 학교급식 농산물의 국가·공주시 인증률은 2024년 78.7%에서 2025년 91.2%로 크게 확대되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공주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통해 신규교육 903명, 보수교육 260명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등을 교육하여 생산자 역량을 강화했다. 더불어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업인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 적용

연도별	합계	친환경	GAP	HACCP	공주시	공주시 (친환경)	공주시 (GAP)	공주시 (HACCP)	미인증
2024년	66	6	2	1	23	17	3		14
2025년	125	45	3	1	29	23	12	1	11

※ 학교급식 납품 시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필수 ※ 국가·공주시 인증률 2024년 78.7% → 2025년 91.2%로 확대

4. 유통경로 다변화 통한 인증 참여 확대 추진

시는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인증이 이루어진 부분을 한계로 인식하고, 직매장 외 도매시장, 농협 등 다양한 유통경로까지 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작목반 회의 등을 통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성 분석, 현장 점검, 인증서 교부 등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공주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안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더 견고히 할 방침이다.



경제도시 2-15

로컬푸드 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공주시가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주푸드 인증제' 도입으로 엄격한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교육과 물류 혁신을 병행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집중한다.





1. 안전성과 신뢰 중심 '공주푸드 인증제' 정착

공주시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공주푸드 인증제'를 도입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4,700만 원을 투입해 관련 디자인과 제도를 개발했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농업용수 등에 대한 정밀한 안전성 분석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농가는 총 236호(농작물 225, 축산물 3, 가공품 8)에 달한다. 특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이 인증을 거치도록 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가들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총 1,163명의 농업인이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로컬푸드의 이해를 돕는 기본 과정부터 농약 사용 안전관리, 마케팅, 창업 교육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2. 대도시 판로 개척과 복지 연계 물류 혁신

공주시는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 문제인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물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대전 '베지레빗 804' 등 관외 직매장에 27농가의 농산물을 주 7회 배송 지원하며 농가 배송비 절감과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또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임산부 및 다자녀 360여 가구에 약 7천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했으며, 집하와 포장, 당일 배송 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3. '직영 직매장'에서 '온라인·물류' 중심으로 전환

기존에 추진했던 '공주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은 시장 환경 변화와 효율성을 고려해 전략적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시는 용지 매입과 신축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관내 민간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인한 적자 운영 가능성 등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했다. 특히 공주농협 등 민간 영역의 중복 투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었다.

이에 시는 물리적인 직매장 건립 대신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으로 공약 변경을 검토 중이다. 물류 중심의 집하장을 운영하고 공공급식 물류를 전문화하여 민간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통합교육과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약 변경을 공식화하고, 다자녀·임산부 꾸러미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매장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시는 공급 방법을 다변화해 로컬푸드 판로를 확실히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출하능가 역량강화 워크숍



경제도시 2-16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간선도로 확·포장 및 신설

공주시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확·포장과 신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심과 농촌, 관광과 산업을 잇는 도시 간선축 완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이동 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견인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외곽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미래 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세종간 도로



1.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부권 개발 촉진

웅진동 금성여고와 시어골을 연결하는 남부 우회도로는 도심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서공주IC·신관지구·금학동 등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는 순환형 도로망 구축하여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학동과 시어골 일대의 기반 시설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남부권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 성장축을 남부로 확장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심 통과 차량 감소로 인한 소음·매연 저감,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예상되어, 공주시 전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 도로 확·포장, 농촌 접근성과 관광도로 기능 강화

금흥동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에 이르는 시도 26호선 구간은 공주시 도심과 의당면 등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그동안 도로 폭이 협소해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총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2차선 도로를 연장 1.75km,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난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공주시(2구간) 광역 교통망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7년 준공 시 정안천 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길, 수촌리 고분군 등 인근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흐름 개선과 관광도로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천안-공주-논산을 잇는 국도 23호선의 신공주대교와 구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를 접속 연결로(Ramp)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기존 공주대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강남교차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도 23호선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공주 시내와 대전·세종 등 인접 도시 간 광역교통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공주시 신·구 시가지 및 강남·강북 지역을 포함한 주요 생활권 간 차량 이동이 더욱 원활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주시는 내다봤다.

4. 어천-공주 도로, 국가정원 연계와 서부권 성장축 구축

지방도 625호선(어천~공주) 구간은 금강(어천~죽당)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된 진입도로로, 서부권과 공주 시내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중요하게 평가된다. 현재 우성면 보흥리에서 평목리 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해 금강 남북 축이 단절되어 있어, 국지도 96호선(우성~이인) 사업과 연계한 조속한 개통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주시는 선형 개량과 도로 신설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어천·반포권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정원으로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서부 생활권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유구 IC-아산 송악 확 포장,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국도 39호선은 충남 서북부와 공주를 잇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 노선이다. 해당 구간은 당진~영덕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아산~공주 간 교통 수요 증가로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번 확장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건설계획 후보 사업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까지 15.9km 4차선 구간 확장을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인근 마곡사, 유구색등수국정원 등 관광 접근성 향상 효과와 원활한 물류 이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 현황 (2025. 11. 기준)

사업명	주요 구간	사업 기간	총사업비	기대효과
중로 2-2 도시계획도로 건설	웅진동 금성여교~시어골	2018.~2026.	150억 원 (도 10, 시 140)	순환형 교통망 구축, 왕도심 남부권 균형개발
시도 26호선 확 · 포장	교통회관~의당농협	2020.~2027.	208억 원 (도 10, 시 198)	2 → 4차로 확장, 도심~의당 접근성 개선, 관광도로 기능 강화
국도 23호선 연결로 설치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인근 (접속 RAMP 설치)	2018.~2027.	151억 원 (국 5, 도 13, 시 133)	신공주대교~ 도심 연결로 개설, 인접 도시 간 광역교통 강화
지방도 625호선 도로 건설	우성면 보흥리~평목리	2020.~2026.	489억 원 (전액 도비)	국가정원 진입도로, 서부생활권 접근성 개선
국도 39호선 확 · 포장	유구읍 신영리~문금리	2026.~2030.	885억 원 (전액 국비)	충남 서북권~ 공주 광역도로 확충, 산업 · 관광 네트워크 완성



공주 유구 신영-문금 4차로 확장사업 현장 설명

경제도시 2-17

광역 BRT 구축,
승용차 이용 억제와 탄소배출 감축 기대

: 공주~세종 BRT 구축 사업

공주시가 세종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주~세종 간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218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기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시성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세종 광역BRT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1. 광역 BRT로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교통 구축

세종시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와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면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주시는 이를 저비용 고효율 교통대책으로 보고,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총 18.5km 구간에 광역 BRT 노선을 조성한다.

전체 구간 중 중앙전용차로 15.3km, 가로변차로 1.8km, 일반차로 1.4km로 구성되며, 신규 및 기존 정류장을 포함한 총 28개 정류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사업비는 공주시 122억 원, 세종시 96억 원이 분담하며, 2022년 10월 개발계획 고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 적극적 인프라 구축과 민원 해결 노력

공주시는 국비와 도비 포함 89억 원을 확보해 버스 승강장 설치, 보안등·CCTV·안내 단말기 등 운영 필수 시설 구현과 도로 포장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고지 설치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시는 건축 규모 축소 및 재배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민원 해소에 나섰다. 2025년 1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건축공사 재착공을 계획,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하는 목표를 세웠다.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구분		총사업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주시	합계	12,215	1,656	2,660	4,357	1,964	1,578
	국비	5,948	489	1,330	1,768	1,314	1,047
	충남	2,974	244	665	884	650	531
	공주	3,293	923	665	1,705	—	—

경제도시 2-18

드론과 함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

: 드론 실증도시 연속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드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K-드론배송' 사업에서는 목표치를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드론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고,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 산업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드론
배송 횟수

목표 200회
→ 실적 230회
(115% 달성)



매출
성과

공공앱
'휘파람' 연계
6백만 원 달성



연속
지정

3년 연속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선정

AI드론관제센터



드론스테이션



1.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K-드론배송 사업 본격 가동

공주시는 2024년부터 드론 배송로, 배송 거점, 관제센터 등 한국형 드론 배송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총 230회의 드론 배송 주문을 처리,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역 공공배달앱 '취파람'과 연계한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였다.

배송 서비스는 곰나루수영장, 사계절썰매장, 한옥마을, 산림휴양마을, 백제문화제 축제장, 소방학교, 국토정보교육원, 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전역에서 드론 기술 실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실험 환경 완비

공주시는 전국 세 번째로 넓은 초경량비행장치 허용구역(UA14)을 보유해 드론 자유비행 여건이 뛰어나며, 2025년 7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에 선정돼 우성면과 사곡면 일부를 각종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실증 특구로 확보했다.

드론 전문기업 3개사는 2027년까지 장거리·고중량·AI·산불예찰 드론 등 다목적 임무 실증에 나선다. 기업들은 시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공주는 드론 산업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26년에도 K-드론배송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을 지속 운영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드론배송 서비스 확산과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3. 지속 가능한 드론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

공주시는 드론 실증사업 다각화와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 중이다. 다양한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공적 성과가 시민 실생활과 안전 공공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힘쓰고 있다.

향후 공주는 드론 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스마트 도시 행정과 안전 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 생활의 혁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제도시 2-19

예찬벼, 종자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

: 최고품질 공주쌀 신육성단지 조성

공주시가 지역특화 품종인 '예찬' 벼를 중심으로 종자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공주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품질 벼 품종인 '예찬'을 집중 육성해 이상기후와 품종 편중에 따른 농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공주쌀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판로 확대는 물론 향후 지역특화 품종 우량종자 공급 체계 구축까지 계획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주쌀 판촉행사



— 예찬벼 재배면적 확대



1. 이상기후와 품종 편중 극복할 '예찬'

최근 농업 분야는 이상기후로 재해 증가와 충청남도 내 '삼광벼' 재배 편중 심화로 지역특화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쌀 생산 농가들은 잦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하며 농가소득 불안정을 겪어왔다.

이에 공주시는 도복(벼가 쓰러짐) 등 재해에 강하고 재배하기 용이하며 밥맛도 우수한 최고 품질의 지역특화 쌀 단지를 육성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주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찬'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밥맛, 외관, 도정 특성, 내재해성 등 다방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 '예찬' 원스톱 시스템으로 농업 혁신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91ha 규모(468농가 참여)의 '최고품질 공주쌀 신육성단지'를 조성했다. 이 사업은 '예찬' 벼를 중심으로 한 종자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벼 신품종(예찬, 백옥향, 만복, 대방)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예찬'을 최종 선정했다. 농업인·소비자 대상 식미 평가에서도 '예찬'은 삼광, 친들 등 경쟁 품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그 우수성을 증명했다. 이후 재종단지를 운영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정선하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또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등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다. 더불어 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교육을 시행했으며, 2022년 61명에서 2025년 282명으로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현장 기술지원과 재종단지 점검도 상시 진행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생산한 예찬쌀을 공주통합 RPC를 통해 전량 수매(2024년 기준 2,854톤)했으며, ‘예찬’ 단일 품종으로 ‘밥맛 좋은 공주쌀’ 브랜드를 출시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카트 광고, 판촉 행사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했으며, 공주시와 (주)농협유통, (주)이비가푸드 간 업무협약을 하며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CJ제일제당, 농협양곡,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등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했다.

고품질 쌀 생산 교육 및 결의대회





공주쌀(예찬벼)

3. 재배면적 확대, 농가 만족도 증대

이러한 노력으로 ‘예찬’ 벼 재배면적은 2022년 시범단지 운영(129ha, 105농가)을 시작으로 2023년 349ha(232농가), 2024년 462ha(425농가)로 꾸준히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491ha(468농가)에 이르렀다. 시는 2026년까지 500ha 규모로 재배단지를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 예찬쌀 기술교육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품종 만족도 80점, 사업 만족도 87점, 재배 지속 의사 80%를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판로 개척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24년산 기준으로 CJ제일제당에 현미 1,400톤을 공급했으며, 제주도 및 수도권 도소매 시장에 백미 1,000톤을 판매하는 등 공주쌀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시는 쌀 생산 감축 정책에 따라 2024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이 중단되자 자체 채종단지(10ha)를 조성하고 필지 검사와 색채선별 등으로 우량종자를 자체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향후 충남 특화 품종(지키미) 통상 실시권을 획득하고 시범 재배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채종단지와 종자은행을 조성해 지역특화 벼 품종 우량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경제도시 2-20

공주알밤한우, 농가 지원·적극적 마케팅으로 인지도 제고

: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주시 대표 브랜드인 '공주알밤한우'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하며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이 공주시의 위탁을 받아 추진한 이 사업은 최근 몇 년 간 심화한 한우 브랜드 경쟁에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했다. 공주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을 계기로 공주알밤한우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한우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내용

구분	사업명	내용
알밤한우 육성 농가 지원	알밤한우 우수축 장려금 지원	▶ 등급별 차등 지급 : 한우농가 1+등급 200천 원, 1++등급 300천 원
	공주알밤한우 OEM 사료 공급	▶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네이밍 유지를 위한 유피 함유 사료 공급
브랜드 유통 및 교육 지원	브랜드 참여 매장 간판 지원	▶ 농협 : 5백만 원 한도, 50% 지원 ▶ 개인사업자 : 5백만 원 한도, 90% 지원
	공주알밤한우 포장재 지원	▶ 신규 포장재 개발 시 100% 지원 ▶ 추후 지속 활용 시 50% 지원
	유통 손실 비용 지원	▶ 운송 중 근출혈, 골절 등 유통 손실 보전비용 (시 50%, 축협 50%)
	식육 처리기술 교육 지원	▶ 교육비 100% 지원(숙식비 자부담)
	공주알밤한우 관련 상품개발 등	▶ 비선호 부위 가공을 통한 상품개발 등
홍보 등 마케팅 지원	공주알밤한우 마케팅 및 행사 개최	▶ 공주알밤한우 축제 개최 관련 ▶ 온·오프라인 행사 연계 홍보·마케팅 업무

고맏나루장터 및 공주알밤한우 홍보관



1. 경쟁 심화, ‘공주알밤한우’ 인지도 확대 필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한우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공주알밤한우’ 역시 브랜드 인지도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공주알밤한우는 공주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알밤을 사료에 활용한다는 독특한 사양 방식으로 차별성을 가졌음에도 전국적인 경쟁 구도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안팎으로 판로를 확장해 전국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총 6억 원(시비 5억 원, 자부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2. 알밤한우 육성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 지원’

시는 공주알밤한우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쳤다. 먼저, 시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른 우수 축 장려금(1+등급 20만 원, 1++등급 30만 원)을 차등 지급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독려했다. 또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명칭 유지를 위해 울피를 함유한 OEM 사료를 공급하여 고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브랜드 참여 매장(농협, 개인사업자)에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간판 설치 비용의 일부(농협 50%, 개인 90%)를 지원했다. 신규 포장재 개발 시에는 100% 지원, 지속 활용 시 50%를 지원하여 유통 경쟁력을 높였다. 운송 중 근출혈, 골절 등 유통 손실 발생 시에는 손실 비용(시 50%, 축협 50%)을 보전하며 안정적인 유통을 도왔다. 식육 처리기술 교육 비용 100%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썼으며, 비선호 부위 가공을 통한 상품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공주알밤한우 축제 개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알밤 한우 카츠버거





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 소비자 신뢰 상승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세종공주축협은 2022년 11월 22일 공주알밤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으며, 2024년 7월 2일 최종 획득했다. 이로써 공주알밤한우는 명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한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 이후, 2025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공주시와 세종공주축산농협, (주)해피브릿지 공주공장이 업무협약을 하여 공주알밤한우 활용 카츠형 햄버거 패티 등 가공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된 가공식품은 백제마라톤과 백제문화제 기간 중 판매되어 2,86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된 '제3회 공주알밤한우 가을잔치'에서는 1억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제를 통한 판촉 효과를 극대화했다.

4. '투명 유통'과 'MZ세대 공략'으로 혁신 시도

시는 전국 지자체 간 한우 브랜드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주알밤한우의 차별적 인지도 확보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외에 동물복지, 이력제 고도화 등 추가 인증 확보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통한 공적 신뢰도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 체감 중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시의 '조아용' 사례처럼 MZ세대에게 친화적인 캐릭터 및 굿즈 개발을 추진하여 대내외 행사 연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굿즈 판매를 통한 부수적인 수익 창출 등 다각적인 브랜드 활성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산 및 사양 과정에 QR 표시(스마트 라벨)를 도입하여 소비자 체감형 '투명 유통'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경제도시 2-21

공주밤, 생산 기반 갖추고 국제박람회로 세계화 실현

: 공주밤 산업기반 구축,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

공주시가 국내 최대 밤 생산지의 위상을 넘어 산업·관광·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융복합 산업 체계 구축에 나서며 세계적인 밤 산업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8년 1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열리는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를 확정하며 공주밤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공주밤 소비촉진을 위한 국회 직거래 장터



1. 생산 중심 한계 넘어선 융복합 산업 기반 조성

그동안 공주밤은 국내 생산량 면에서 독보적이었으나 산업 구조는 생산 중심에 머무르며 성장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시는 2010년대부터 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해 6차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2022년에는 금성동에 ‘공주알밤센터’를 조성해 전시, 홍보, 체험, 판매 기능을 집약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공주밤을 직접 체험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25년에는 금학동에 ‘공주알밤명품화진홍센터’를 세워 밤 가공산업의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산업 경쟁력 고도화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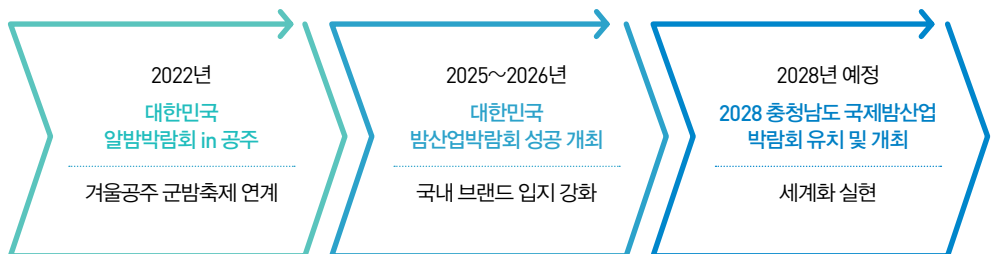
2. 연이은 성공적 박람회 개최, 국제 교류 확장 기반 마련

공주시는 ‘공주밤’ 브랜드 가치 제고에 집중해 2024년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연계한 「2024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후 2025년과 2026년에도 계속해서 전국 규모의 밤산업 박람회를 치르며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여왔다.

충청남도와의 공동으로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에 힘쓰며, 공주·부여·청양이 공동 주최하는 대형 행사로 준비 중이다.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면서 국제적 산업 교류의 장 마련과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3.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오는 2028년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개최 예정인 박람회는 200억 원 예산으로 공주밤의 산업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에서 공주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하며, 혁신적 가공기술과 관광·문화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공주

민선 8기 공주시는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해 왔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여,
시민 모두가 사회 안전망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목표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교육복지도시 3-01

마을 단위까지 전 생애 학습권 보장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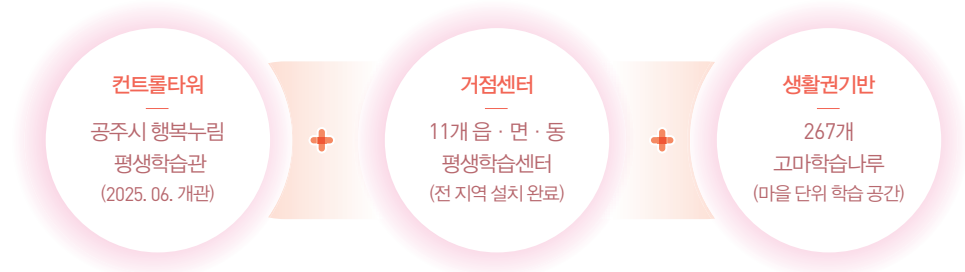
: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평생학습도시 구현

공주시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마을까지 체계적인 평생 학습 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시는 공주시 행복누리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11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267개에 달하는 고마학습나루(마을 학습 공간)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는 생활권 기반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 상호 성장을 이끄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로 분석됐다.

고마학습나루



— 마을 단위까지 체계적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1.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평생학습'

공주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지역의 학습·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생활권 기반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컨트롤타워(평생학습관)–거점센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생활권기반(고마학습나루) 체계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 상호 성장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주민주도 지역 역량 강화'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11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역 과제 해결, 인적자원 발굴, 주민자치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2.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개관 및 평생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공주시의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30억 4,300만 원(도비 12억 4,700만 원, 시비 1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 사업은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시민 맞춤형 문화·인문·직업 능력·예술·디지털 교육 거점을 조성. 동아리실, 강의실, 조리실, 미술실 등 복합 학습공간을 운영하며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 수행.)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고마학습나루 활성화(생활권 내 접근 가능한 학습 거점 구축, 마을 단위 소규모 학습공간(고마학습나루)을 통한 주민주도 학습공동체 지원.) ▲평생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평생학습 정보 통합 제공, 온라인 수강 신청·결제, 강사·동아리 관리, 학습 이력 관리 등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등으로 이뤄진다.

3. 공주시 행복누리 평생학습관 2025년 6월 개관

시는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2022년 1월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광명시, 아산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조리실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2025년 6월 27일 마침내 ‘공주시 행복누리 평생학습관’을 개관했다. 7월부터 여름·가을 학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2021년 11개소가 설치 및 지정됐으며, 2023년 9월 계룡면 평생학습센터(1층)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2024년 7월에는 계룡면 평생학습센터가 개소하는 등 거점시설 확충에 힘썼다. 같은 해 5월에는 이인면 평생학습센터 바닥 정비를 완료하는 등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이어갔다. ‘고마학습나루’(마을 학습공간)는 2023년 10월 15개소를 추가 조성하며 총 49개소로 확대됐다. ‘평생교육 통합 홈페이지’는 2025년 1월 행복누리 홈페이지 구축에 착수하며 디지털 기반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4. 포용적·글로벌 학습도시 기틀 마련



학습동아리 워크숍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이러한 노력은 마을 단위까지 이어지는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11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67개 고마학습나루를 연결하는 다계층·다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고마학습나루는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프로그램 수는 2021년 341개에서 2025년 735개로, 학습자 수는 3,514명에서 8,960명으로 각각 대폭 늘어나며 지역 기반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했다. 총학습자 수는 2만 8,436명을 기록했다. 마을 학습공간 조성도 2021년 5개에서 2025년 49개소로 꾸준히 확충됐다.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은 2025년 6월 27일 개관하여 18개 학습공간(동아리실, 목적 강의실, 조리실, 미술실 등)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정규·단기·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대표 평생학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통합 홈페이지는 프로그램 통합 안내, 온라인 신청·결제, 강사·동아리·학습 이력 관리 기능 구현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향상했다고 평가됐다.

특히 공주시는 ‘포용적·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2022년 6과정 55명에서 2023년 18과정 566명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GNLC(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례 공유, 일본 사회교육 관계자 교류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학습도시의 위상을 강화했다.

5. 거점 간 격차 해소,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과제

공주시는 컨트론타워·거점센터·생활권기반 간 학습 프로그램 품질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권역별 순회 컨설팅 운영, 우수프로그램 공유·재편성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층·취약계층의 정보화기기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어려움 등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예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재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권역·마을별 특화 모델 개발과 거점 간 연계 강화, 디지털·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및 포용적 학습권 보장,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및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성장지원 워크숍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고마학습나루 운영성과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프로그램 수(개)	2,683	341	417	542	648	735
학습자 수(명)	31,950	3,514	4,572	6,670	8,234	8,960
마을학습공간 조성 수(개소)	49	5	7	15	15	7

교육복지도시 3-02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0세부터 18세까지 무상교육

공주시가 전 연령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상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억 원을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고등학생 교복,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매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 2만 1천여 명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은 설문 조사에서도 84%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얻으며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했다.

무상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무상교육
정책 인식 여부

—
응답자의 81%가
'알고 있다'

무상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
만족 총 84%
(매우 만족 54%
+ 만족 30%)

가정경제
도움 여부

—
도움 88%
(매우 도움 66%,
어느 정도 도움 26%)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1. 교육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지원 확대

공주시는 교육 공공성과 모든 시민의 학습 권리를 핵심 가치로 삼아, 특히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을 집중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내 9개 고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사실상 제거했다. 아울러 고등학생 신입생 1인당 교복 구매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고,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매비도 신설해 학생 1인당 10만 원 한도 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편의를 증대시켰다.

2.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교육복지

공주시는 무상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 강화했다. 2023년 말 총 1,02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도 3회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처럼 시민 참여와 투명한 소통 기조는 정책 실효성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3. 앞으로도 지속되는 교육복지 투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27억 9,600만 원은 무상교육(약 9억 7천만 원), 교복 지원(12억 4천만 원), 체육복 지원(5억 8천만 원)을 포함한다. 총 21,71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으며 공주시의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2022~2025년 무상교육 지원 내역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액	학생 수	지원액	학생 수	지원액	학생 수	지원액	학생 수	지원액	학생 수
무상교육	971	11,672	266	2,991	278	3,083	291	2,987	136	2,611
교복	1,243	4,173	330	1,218	309	1,005	303	978	301	972
체육복	582	5,867	-	-	192	1,943	197	1,968	193	1,956
계	2,796	21,712	596	4,209	779	6,031	791	5,933	630	5,539

교육복지도시 3-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성 강화로 청소년 복지 향상 기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 공간 확보

공주시가 독립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을 확보하면서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어 공간이 좁고 낡아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2025년 3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개소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 공간 마련 사업 개요

위치 | 대동1길 69-1(반죽동)

기간 | 2023. 06.~2025. 03.

규모 | 대지 232.4㎡, 연면적 399.21㎡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 | 15억 원(매입비용 6억 원, 리모델링 8억 5천만 원, 자산 취득 5천만 원)

1. 안전·편안한 공간 조성으로 상담 효과 제고

기존 센터는 공간 부족과 노후 시설로 인해 대기 및 개별 상담에 한계가 컸다. 반죽동에 마련된 새 청사는 대지 232.4㎡, 연면적 399.21㎡ 규모로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개별 상담실, 휴게 공간, 교육실 등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최적화된 시설들을 갖추었다. 지하 1층은 심리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공간, 1층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휴게 공간, 2층은 전문 상담실과 센터장실 등으로 구성돼 단계별 맞춤 지원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2. 계획적 추진과 원활한 이전 완료

2023년 6월 부동산 매매 의향 확인 후 예산 확보와 감정평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마쳤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추가 예산 확보와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새 보금자리로 이전을 완료, 2025년 3월 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지속 발전

이번 독립 공간 확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지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공주시는 새 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과제를 인식하고, 외곽 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와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 확대해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소년이 신뢰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3-04

학생 중심의 능동적 진로 체험 시작

: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조성

공주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능동적 진로 특화 체험 공간'인 '공주시 진로교육센터'를 개관했다. 2025년 8월 29일 문을 연 이 센터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관련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실습형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행복누림 진로교육센터 개관식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규모 | 연면적 668.5㎡ (지상 1~2층)

1층 : 사무실 48.45㎡, 상담실 및 체험관(1실) 166.51㎡ / 2층 : 진로체험관(6실) 및 휴게공간 453.54㎡

체험관 구성 | ① 의학생명관(원격의료, 로봇수술 VR 체험, 웨어러블 로봇 체험)
 ② 법과학수사관(과학수사기법, 몽타주 제작 디지털 수사 체험)
 ③ 인공지능관(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체험, 로봇개 코딩제어 체험)
 ④ 지역사회관(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우리지역을 디자인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체험)
 ⑤ 항공체험관(조종 시뮬레이션 및 항공 승무원 체험)
 ⑥ 반려동물관(반려동물 미용사 및 동물 랭글러 체험)
 ⑦ 친환경관(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직업 체험, 친환경 소재 활용한 굿즈 만들기)
 ⑧ 진로상담실(Holland 등 진로검사를 활용한 집단 및 개인 진로상담)

1. 미래 직업 대비, 청소년 진로 교육 필요

공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 직업은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실제 직업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주시 진로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2. 행복누리 내 668.5㎡ 규모, 7개 테마 체험관

‘공주시 진로교육센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신관동 571-2번지 ‘공주시 행복누리’ 내에 조성됐다. 연면적 668.5㎡(약 202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시는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2024년 9월에는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2월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5년 8월 29일 개관식을 열었다.



3. 공주시 청소년 진로 교육의 핵심 거점

‘공주시 진로교육센터’는 공주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주시 진로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주시의 미래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복지도시 3-05

청소년의 날, 문화축제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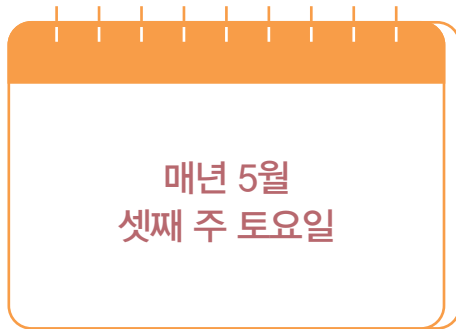
: 청소년의 날 제정, 청소년 문화축제 활성화

공주시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날’을 공식 지정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권익 보장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완화 등 건전한 성장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

청소년 친환경대전 및 한마음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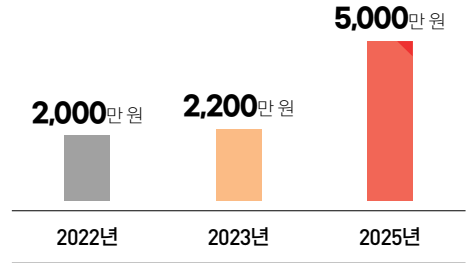


청소년의 날 제정



청소년 축제 지원 예산

※ 2025년 도비 지원 확보(2,500만 원) 및
시비 13.6% 추가 증액



1. '청소년의 날' 제정 및 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공주시는 2023년 5월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공주시 청소년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청소년이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주시 청소년의 달 한마음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늘렸다. 2022년 2,000만 원이던 예산을 2023년과 2024년 2,200만 원으로 확대했고, 2025년에는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으로 크게 늘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무대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활발한 참여 기회 확대 효과를 거뒀다.

2. 청소년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기여

공주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해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댄스, 보컬, 난타 등 다채로운 동아리 공연과 연계한 지역 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육성 유공자와 모범 청소년을 표창해 동기 부여와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민선 8기 3년 차인 2025년 11월 말 기준 관련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큰 성과도 이루었다.

앞으로도 공주시는 청소년 트렌드와 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생활 기회 확대, 축제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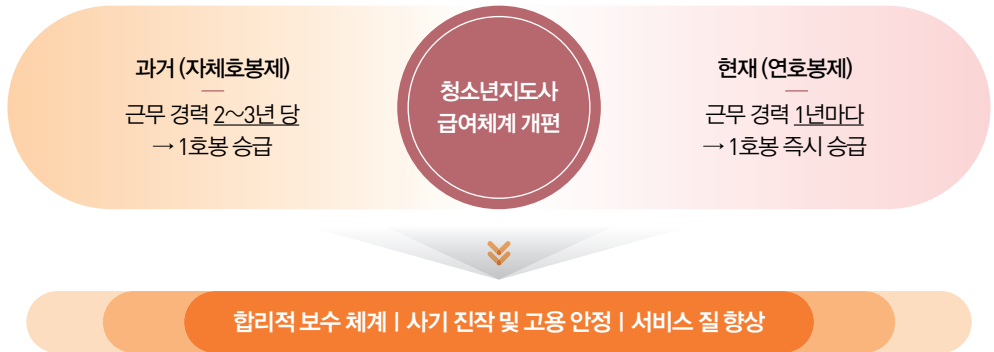
교육복지도시 3-06

청소년지도사 보수 체계 합리화로 사기 진작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공주시는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체계를 개선하고자 '연호봉제'를 도입해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년 1호봉이 승급되는 방식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종사자들의 근속 경력이 적절히 반영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 의욕과 사기 진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 청소년지도사 급여체계 전면 개선

2022년 9월 기준 공주시는 충남 내 유일하게 종사자의 근무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자체호봉제’를 운영 중이었다. 근속 2~3년에 1호봉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이 유지됐고, 이로 인해 종사자의 사기는 저하되고 이탈 가능성까지 우려됐다. 이는 결국 청소년활동 지원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됐다. 이에 공주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검토해 근무 경력 1년에 1호봉을 인정하는 ‘연호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제수당과 퇴직적립금 등 지급 기준도 명확히 하여 급여 지급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2. 신속한 추진으로 청소년 지도자 안정화 기여

시는 2022년 9월 ‘급여체계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호봉 산정 내역을 종사자에게 안내했다. 여성가족정책관과의 질의답변과 최종 확인을 거쳐 11월 말 ‘호봉 확정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 준비를 마쳤다.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서 기존 2~3년에 1호봉 승급 방식에서 매년 1호봉 승급 체계로 바뀌어 종사자들이 자신의 경력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됐다.

3. 2026년 임금 권고안 참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공주시는 2026년 발표될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참고하여 향후에도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공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복지도시 3-07

시민의 수요 반영 프로그램,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강북생활문화센터 내 주민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강북생활문화센터가 시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공주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지역 내 핵심 생활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강북생활문화센터 하반기 창작발표회



1. 시민 수요 기반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강북생활문화센터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공주시는 센터가 시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생활권 기반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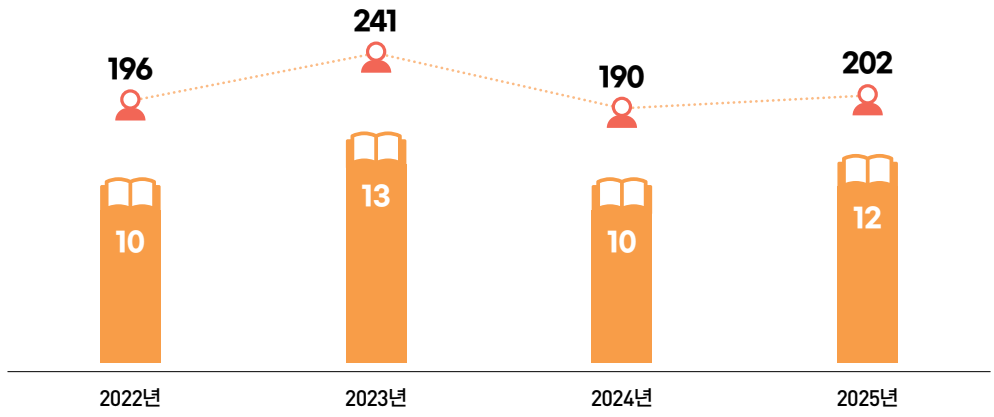
강북생활문화센터는 월송동행정복지센터 2, 3층에 있으며, 연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강북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매년 4분기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1,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센터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 수와 수강생 수는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강북생활문화센터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강북생활문화센터 생활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운영 강좌 수 👤 수강생



교육복지도시 3-08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공주’ 구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면 확대

공주시가 지역 내 인구 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며 시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 등 방문 대상 확대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2025년까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목표인 430가구를 넘어 434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지원단 교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 상담 | 11,456건(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각지대 발굴 | 8,897가구(숨은 위기가구 포착)

서비스 연계 | 20,156건(단순 발굴을 넘어 실질적 지원 연결)

인적 안전망 구축

사랑의 아쿠르트

주 2~3회 안부 확인(30가구)

고마챌 행복챌

반찬 지원 및 기부활동(월 4회 이상)

복주머니(복지지원집)

500매 제작·배부로 정보 격차 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을 통한 민간 감시망 확대

협력모델 '공통분모'

공주시 통합사례관리 10개 기관 모임 활성화

스마트 기술 접목한 안심 돌봄

AI 안부 살핌

인공지능 기반 전화 안부(209명)

스마트 플러그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감지(250명)

전기요금 데이터 연계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기반 방문 돌봄(85가구)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

맞춤형 4개 사업 운영(40명)

1.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절실

공주시는 지역 내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기존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는 복지 접근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했다.

이는 수급자 외에 생애전환기에 있는 시민,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 등으로 방문 대상을 넓혀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맞하루 업무협약 사진



생활용품꾸러미 전달

2. 통합사례관리 발굴 초과 달성, 촘촘한 복지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수급자 외에 ‘생애전환기’, ‘돌봄필요 대상’, ‘위기가구’ 등을 확대 대상으로 선정하고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동행하여 가구 조사를 진행했다. 매월 15가구 이상의 방문 상담 목표를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당초 2025년까지 430가구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434가구를 발굴하며 공주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증명했다. 과거 2020년 319가구, 2021년 331가구, 2022년 352가구, 2023년 370가구를 발굴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3. 복지·건강 원스톱 연계, ‘간호직 특화사업’으로 고도화

시는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확대했다.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적 지원 대상자와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분류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적 급여 지원, 각종 돌봄서비스는 물론, 보건소 연계(건강 위험 요인 의심, 방문 건강 서비스),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사업, 자살·치매·정신질환 예방 상담, 서민금융 관련 상담 등 폭넓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간호직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간호직이 배치된 읍면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먼저, ▲약물 복용 교육 및 약 달력 배부·관리로 고령층 등 약물 오남용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그리고 ▲한방진료 협업 건강상담으로 건강상담 및 진료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혈압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를 포함한 방문 건강 상담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4. 찾아가는 방문 상담 11,456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8,897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 11,456건, 복지 대상자 모니터 상담 2,676건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8,897가구를 발굴하여 20,156건의 서비스 연계를 제공했다. 건강 서비스 방문 상담은 5,454건에 달했으며, 총 434건의 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282회의 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한 ‘약 달력 배부’, ‘건강상담 및 교육’, ‘한의원과 의 협약을 통한 가정방문 진료’ 등 읍면동별 자체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복지 대상자 중 복지원 예방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내 민·관 기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모임’인 ‘공통분모’(공주시 통합사례관리 분(分)나누는 모임)를 결성하고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5년 ‘공주시 복지자원집 복주머니’ 500매를 제작·배부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7명 추가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을 확대했다. ‘사랑의 야쿠르트 지원사업’(매주 2~3회, 30가구 방문 안부 확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고마찬(贊)! 행복찬(饌)! 찬(饌)!’(월 2회 20가구), ‘고향 반찬’ 기부 활동(월 4회 20가구)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4개 사업, 40명 지원),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250명 지원), AI(인공지능 시스템) 기반 ‘안부 살핌 서비스’(209명 누적)를 추진했다. 또한 전기요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85가구의 취약계층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썼다. 여기에 기존 방문 상담 대상 외에 ‘출산·양육 가구’, ‘노인 진입 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선제적인 복지서비스 홍보와 상담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시는 2025년 11월에 ‘제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후 관리에도 힘썼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혹한기 복지 대상자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등 계절적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관 건강지킴이



우유배달 사업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복지도시 3-09

독립 정신 계승과 ‘따뜻한 공주’ 구현

: 유관순교육관 건립

공주시가 지역 내 인구 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며 시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 등 방문 대상 확대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2025년까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목표인 430가구를 넘어 434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



유관순교육관 층별 활용계획

구분	층별	면적(㎡)	평	활용방안
지상	4층	200	60.6	상설전시관, 공용공간
지상	3층	200	60.6	교육시설, 공용공간
지상	2층	330	100	교육시설, 공용공간
지상	1층	330	100	특별전시관, 수장고, 공용공간
지하	1층	330	100	사무실, 휴게공간, 공용공간
총계		1,390	421	

1. 독립정신 계승과 역사교육 기반 마련

공주시는 오랜 기간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교육하고 기릴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인식해왔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역사인식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문 교육시설이 절실했고, 풍부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수요도 커지면서 ‘유관순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관은 중동 284-1번지 충남역사박물관 부지 내, 연면적 1,39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전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 애국정신 고취와 관광·교육 융합의 시너지

‘유관순교육관’은 2024년 2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유관순교육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통해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건립 용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10월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과 12월 연구 완료, 2025년 1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했다. 2025년 5월 개최한 학술대회는 독립운동가 정신 계승의 교육·학술적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2026년 초 설계 공모 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3~6월 동안에 마무리하며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2026년 하반기 착공, 미래 세대 교육의 새 장

유관순교육관은 2026년 하반기 착공되어 독립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교육의 요람이자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교육복지도시 3-10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시민소통형 새 공간서 기능 강화

: 시민소통 공유센터 자원봉사회관 조성

공주시자원봉사센터가 반죽동 옛 KT&G 공주지사 부지를 리모델링해 ‘시민소통 공유센터’라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총 30억 2,2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공간 확장은 기존 협소한 사무 공간과 부재했던 공유주방, 세탁실 설치로 봉사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주도의 복지 활성화 플랫폼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공주시자원봉사회관 개관식



시민소통 공유센터 자원봉사회관 조성

위치 | 반죽동 238-2(KT&G 공주지사)

기간 | 2022. 11.~2024. 12.

내용 | 시민소통 공유센터 건립(지상 2층)

사업비 | 30억 2,200만 원

1. 협소한 기존 공간에서 전용시설 완비로 전환

기존 센터는 139,76㎡에 사무실과 회의실 각 1실만 있어 교육·회의·활동 지원에 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식사 준비와 김장, 반찬 나눔과 같은 핵심 봉사 프로그램 진행에 필수적인 ‘공유주방’ 부재가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공주시는 충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2022년 11월부터 옛 KT&G 공주지사 부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2024년 2월 자원봉사회관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12월에는 공유주방과 세탁실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2. 2층 규모, 다기능 시설 완비로 시민복지 허브 역할

시민소통 공유센터 자원봉사회관은 지상 2층에 걸쳐 1층에는 공유주방, 세탁실, 창고, 사무실, 소회의실, 휴게실을 배치해 봉사활동 준비와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2층은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재봉실, 공유사무실 등으로 교육과 동아리 활동, 회의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3. 시민참여형 복지 플랫폼으로 성장 기대

이번 조성으로 자원봉사 관리 체계가 통합·조정돼 더 효율적인 시민 참여형 운영 시스템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공유주방’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은 대규모 봉사활동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어, 센터가 시민회관을 포함하는 ‘시민소통 공유공간’이자 ‘시민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는 평가했다.

교육복지도시 3-11

효(孝)의 가치 확산으로 ‘효의 고장’ 위상 제고

: 효의 고장 위상 제고

공주시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효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효행 정신을 일상에 되살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모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했다.

옥룡동 효문화제



1. 노인인구 증가, 효 문화 계승 필요성 증대

고령화로 경로 가치관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공주시는 ‘효의 고장’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 보존과 확산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효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치유 공동체 형성을 도모했다. 매년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각 읍면동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해 경로사상을 널리 알리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세대 간 존경과 책임 문화를 키웠다.

2. 효행자 표창, 효행장려금 지급 등 적극적 장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백 명의 효행자와 청소년을 다수 표창하며 효 실천을 격려하고, 2021년 7월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문화 발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설·추석 명절에는 5,020가구에 총 10억 원 이상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모범 모델을 구축했고, 시민참여단과 TF팀의 정기적 회의로 체계적 사업 추진과 평가를 이어가며 노인인구 증가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학생 대상 ‘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애니메이션 보급, 효자 향덕 안내판 정비 등 미래세대 효 정신 계승도 탄탄히 준비 중이다.

3. 지속 가능한 효문화 확산, 미래 성장 동력으로

2024년 6월 ‘효문화제 추진위원회’ 발족과 9월 축제 개최로 지역 효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효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효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효 문화 가치 확산 예산 현황 (단위:천 원)

사업명/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13,000	13,000	13,000	13,000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48,000	48,000	48,000	48,000
노인의날 기념행사	13,000	13,000	12,350	13,000
효행장려금 지급	280,000	240,000	280,000	280,000
효의 고장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20,000	25,000	25,000	25,000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 | 만 75세 이상 부양 3대 이상 가정

현황(2022~2025 누적) | 수혜 가구 : 5,020가구 / 지급 금액 : 가구당 20만 원(설·추석) /
총집행 예산 : 10억 400만 원 (10억 원 돌파)





교육복지도시 3-12

주거-의료-복지-요양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 어르신·장애인 위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공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욕구가 있는 시민을 위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이 시스템은 주거, 의료, 복지, 요양,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연계·통합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 및 교육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



1. 대상별 돌봄 욕구 대응 및 삶의 질 향상

공주시는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욕구가 다각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 의료, 복지, 요양, 독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면서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시스템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부터 '통합돌봄창구'까지

공주시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1억 9,700만 원(국비 49%, 시비 51%)이 투입됐다.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됐다.

첫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운영은 2022년 10월부터 이어졌으며, 1억 9,1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둘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역사회 재활 관련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예비)장애인 건강관리, 재활 프로그램, 사회참여,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등 체계적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을 제공했다. 셋째, '통합돌봄창구'는 2024년 10월부터 공주시 16개 읍면동과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었으며, 서비스 신청·접수, 정보전달, 통합 안내, 사례 관리, 지역사회 돌봄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창구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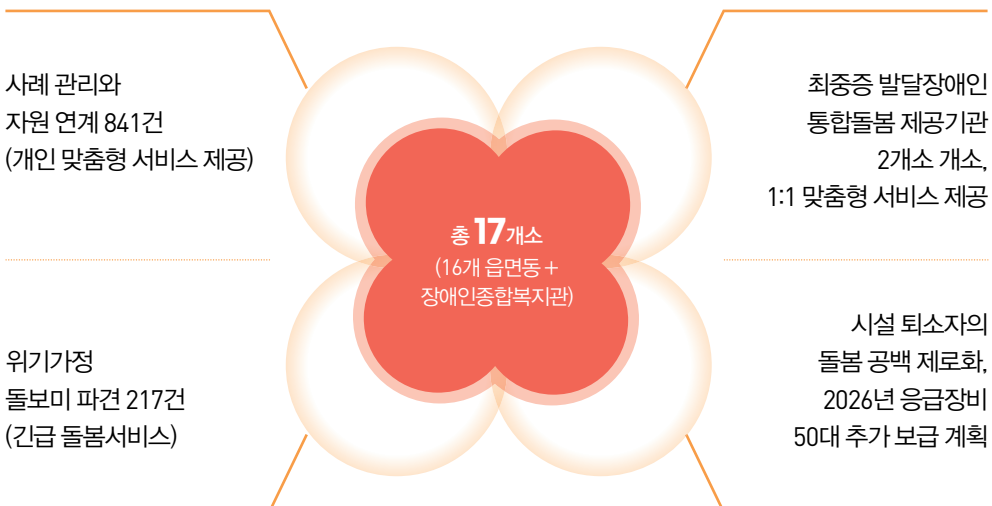
3. 안전한 일상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757가구에 응급 장비(화재·가스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반기별 정기 점검 방문과 월 1회 유선 확인을 통해 대상 가구의 안전을 꾸준히 확인했다. 2025년 10월 시스템 화재로 인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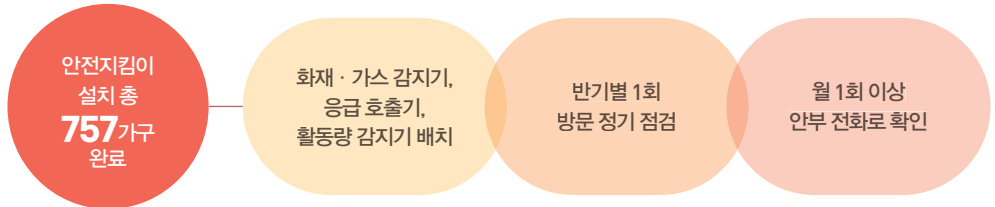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과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집중 관리군 30명, 정기 관리군 35명, 자기 역량 지원군 38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방문 서비스 441건, 재활치료실 내소 운영 1,943건 등이 운영됐다. 연 1회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총 2회(8회기)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20개 학교 861명을 대상으로 손상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 발생 예방에도 힘썼다.

‘통합돌봄창구’는 16개 읍면동 및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총 17개소에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841건의 장애인 사례 관리 및 돌봄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를 시행했으며, 장애인 위기가정 돌봄 파견을 통해 217건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2개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 2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1:1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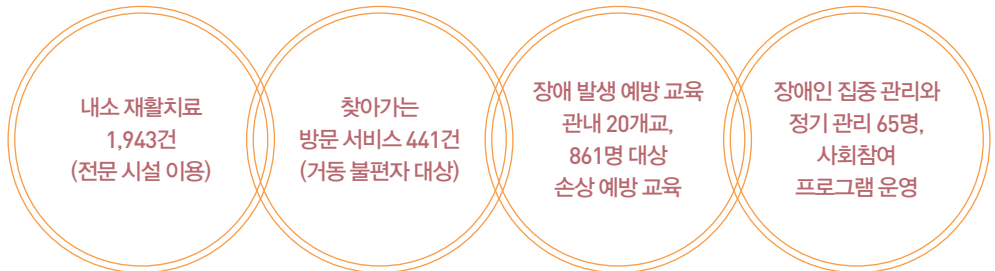
어디서나 닿는 ‘통합돌봄 창구’



— 24시간 깨어있는 ‘스마트 안전망’



— 보건소 재활 서비스의 ‘예방적 전환’



4. 돌봄 공백 해소와 장비 공급 확대 등 노력

시는 시설 퇴소 전부터 사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는 설치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충청남도에 장비 추가 보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장비 50대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속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통합돌봄창구 운영을 통한 대상자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복지도시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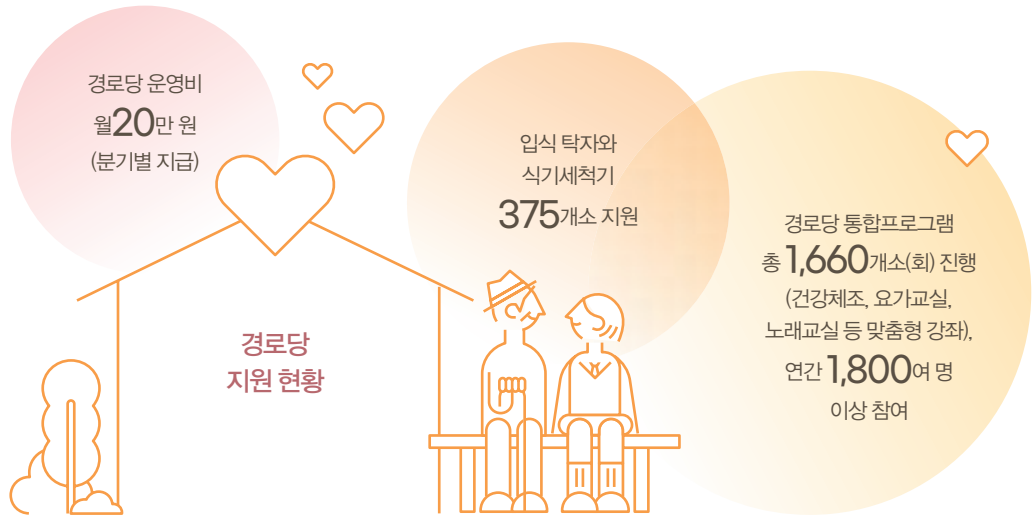
경로당, ‘건강한 여가생활’ 거점으로 변모

: 경로당 운영비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공주시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을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사회적 교류 중심지로 확대하고자 운영비 현실화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입식 탁자와 식기세척기 지원 등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로당 공동체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이인면 달산리 경로당 합동 생신상 차려 드리기





1. 경로당 역할 확대와 운영비 현실화 추진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에 대한 여가와 교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월 15만 원 운영비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자율적 운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공주시는 기존 운영비를 월 20만 원으로 증액해 438개 등록 경로당에 연간 총 8억 4,100만 원 전액 시비를 투입하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체조,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2024년 기준 396개소에서 주 1회 이상 제공하며 총사업비 1억 8,400만 원(도비 5,500만 원, 시비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노인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입식 탁자와 식기세척기 지원에도 연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며 어르신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 지속적인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공주시는 2026년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통합 프로그램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는 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어르신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킬 방침이다.

교육복지도시 3-14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으로 보육 현장 활력

: 7세 이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공주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9억 6,500만 원을 투입해 7세 이하 영유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 집중하며 보육 현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장 교직원 대상 맞춤형 처우개선비 지급과 '우수 보육교직원 힐링연수 프로그램' 신설로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에 효과를 보면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종사자 지원 확대



1. 선진지 견학과 힐링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육 환경 개선

공주시는 보육교직원의 고된 업무와 감정 노동 해소를 위해 새로운 지원책인 선진지 견학과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양한 우수 사례를 견학하며 실제 현장에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제주도·일본 도쿄·싱가포르로 진행된 힐링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심신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20~27명의 교직원이 해외 연수에 참여했으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수 보육교직원 힐링연수 프로그램 지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참가자	27	25	20	20

2. 처우개선비 증액과 안정적 지급으로 근무 환경 향상

처우개선 사업은 2023년 248명, 2024년 233명, 2025년 252명의 보육교사에게 지원됐으며, 지원 시설별 인원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분배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기존 2~3년에 한 번씩 오르던 호봉을 매년 1호봉으로 바꾸는 등 보수 체계 개선과 더불어, 처우개선비의 적시 지급을 통해 보육교사의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인원	월 지원액
신설	어린이집 원장	38명	5만 원
증액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교사	131명	5만 원
증액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87명	10만 원

3. 안정된 보육 현장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공주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 인력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심리적 안정과 휴식 기회 제공은 생산성 및 조직 효율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에는 우수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일본으로 추진해 차별화된 재충전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3-15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놀 권리’ 보장

: 공공형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공주시 월송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이 이어지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을 조성해 문을 열었다. 2024년 2월 6일 문을 연 이 시설은 강북생활문화센터 2층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졌으며, 아동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송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개요

장소 | 월송동현로 51, 강북생활문화센터 2층(행복북카페 장소)

기간 | 2023. 01.~12.

규모 | 167㎡

사업비 | 1억 2천만 원(시비 100%)

1. 아동이 안전하게 놀 실내 놀이공간 요구

월송동은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영유아와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외부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실내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송동현로 51번지 ‘강북생활문화센터 2층’(행복북카페 장소)에 조성됐다. 규모는 167㎡이며,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시비 100%)이 투입됐다.

사업은 기존의 ‘행복 북카페’ 공간을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바닥재 교체, 유아용 화장실 설치 등 시설 리모델링과 다양한 놀이시설 물품 제작 등이 이루어졌다.



월송동 시민과의 대화

2.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탄생

공주시는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았다. 2022년 9월 ‘행복 북카페’ 이용률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4월 24일에는 장소 선정을 위한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다음 날인 4월 25일에는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0월 17일 착공 후 12월 30일 준공했다. 2024년 2월 6일 ‘월송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이 개소하며 월송동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공간이 탄생했다.

시는 앞으로도 ‘월송동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아동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공간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복지도시 3-16

여성 활동공간 보강, 더 나은 ‘여성친화도시’로

: 지역 여성들의 요구에 맞춘 여성회관 리모델링,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공주시가 2014년 조성된 여성회관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여성활동 지원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총 3억 9,400만 원을 투입한 이 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했으며, 2024년 8월 1일 개관식에서 ‘여성친화도시 공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공주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외벽공사 개요

위치 | 신관동 변영2로 10-5(신관동 606-9)

기간 | 2022~2024(3년)

규모 | 지상 3층 / 연면적 405㎡

사업비 | 3억 9,400만 원(시비 100%)

내용 | 층별 리모델링 및 외벽공사

* 1층 : 커뮤니티문화실, 공유주방,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다용도실, 수유실, 열린공간(쉼터) 등 조성

* 2층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및 교육 공간 유지·보완

* 3층 : 교육 및 회의실 개선

1. 시설 노후화, '여성 활동 지원 공간' 확충 필요 제기

2014년 조성한 공주시 여성회관은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함께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노년층과 다문화가족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공간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여성회관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관내 여성들이 아동을 동반하여 이용할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활동 실천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했다.

함께하는 엄마 손맛 K-Food 교실

영유아 쿠킹클래스





2. 사업비 전액 시비 투입, '공유주방' 등 복합 공간 조성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외벽공사는 기존 여성회관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05㎡ 규모의 여성회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리모델링과 외벽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억 9,400만 원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투입됐다.

층별 주요 리모델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층에는 '커뮤니티 문화실', '공유주방',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다용도실, '수유실', '열린공간'(쉼터) 등 여성과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복지 공간이 조성됐다. ▲2층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및 교육 공간은 유지·보완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3층은 교육 및 회의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시민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여성회관 시설을 활용한 공동 워크숍과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여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공주시여성회관 개관식

3. 시민 욕구조사부터 벤치마킹, 그리고 재개관

시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 경과를 거쳤다. 2022년 하반기 여성회관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역 여성들이 희망하는 활동공간 구성 방법에 대한 ‘욕구조사’를 벌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2023년 2월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관련자 간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을 강화했다. 이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예산, 세종, 청주, 서울 등 4개소의 ‘여성회관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사례를 학습했으며, 2023년 8월 리모델링 및 외벽공사 예산을 확보했다. 9월에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 착공 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일 여성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4.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여성친화도시’ 거점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공주 여성회관은 ‘지역사회 여성활동·성평등 실천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됐다. 여성단체와 시민이 함께 활용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 인식 개선이 이뤄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2024년 12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2029년까지 5년간 공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여성회관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간과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복지도시 3-17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 청년 공유주택 조성 및 청년시설 활성화

공주시가 급격한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공주형 청년 유입·정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0억 원이 투입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센터와 공유공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활동과 취·창업 기회를 넓혀 지역 내 청년정책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청년 공유주택



1. 청년 지역 정착 위한 지원 정책 절실

공주시는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 문제를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인식, 안정적 정착과 자기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청년 주거 안정과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청년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동과 산성동 4개 구역에 걸쳐 총 5개동을 리모델링해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형태의 35실 공유주택을 조성했다. 지방소멸대응기 금 및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2025년 6월부터 (사)공주대학교육나눔이 운영을 맡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3. '청년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년활동 지원

주거 지원과 병행해 2023년부터 청년센터(웅진로), 중동·신관동 청년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연간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들이 직접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역시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공주대학교육나눔이 운영을 담당한다.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현황

구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유형	셰어하우스형, 원룸형	셰어하우스형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위치	산성1길 14-1 일원	중동2길 21	중동1길 13-3	봉산길23
입주	2025. 11.	2025. 02.	2025. 10.	2025. 07.
입주 인원	12명	11명(남4, 여7)	4명(남4)	8명(남4, 여4)





4. 지속적인 입주자 모집과 운영으로 '청년친화도시' 완성

2025년 12월부터는 1구역 공유주택의 입주자가 순차적으로 모집되어 총 35실의 공유주택이 전면 가동된다. 공주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내 활발한 활동 기반 조성으로 '청년친화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교육복지도시 3-18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통학 불편 해소

: 시내버스 증차 및 통학노선 신설

공주시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총 5억 5,4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신규 통학노선 2개를 신설하고 기존 노선에 증차를 단행,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학생들의 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시내버스 통학노선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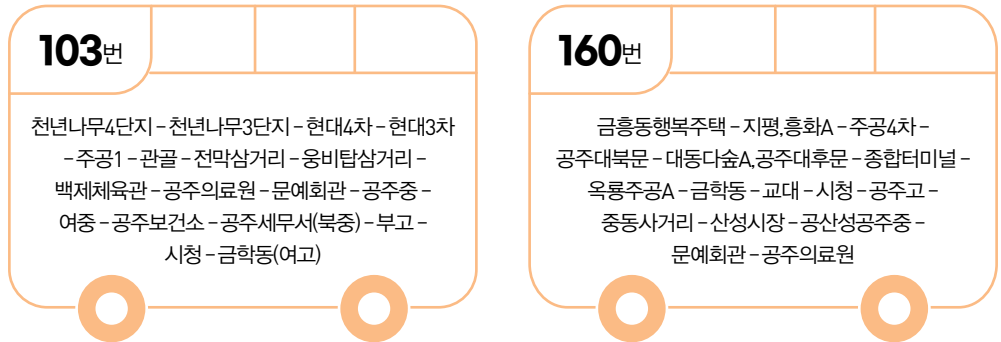


1. 급증하는 통학 수요에 맞춘 노선 개편과 신규 버스 도입

공주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특정 구간에 집중되면서 학생들이 등교 및 하교 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신규 주거단지인 ‘금흥 행복주택’과 ‘화성’ 입주가 임박해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선 조정이 절실했다.

이에 시는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중형 시내버스 2대를 신규 구매하고, 학생 전용 통학노선 2개를 신설했다. 신규 103번 노선은 공주중, 여중, 북중, 부고, 봉황초, 부설초, 여고를 잇는 12회 편도 운행, 160번 노선은 신관초, 부설초, 공주고, 중동초, 공주중, 교동초, 금성여고를 경유하며 편도 14회 운행으로 운영 중이다.

통학버스 신설 노선 경유지



2. 집중된 혼잡 해소와 배차 증회로 시민 만족 증대

신규 노선 마련으로 기존 혼잡 노선이 분산되고, 특히 봉황중 · 생명과학고 방면 노선인 102번의 배차가 편도 6회에서 8회로 늘어나 통학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또한 ‘옥룡주공~종합버스터미널’과 ‘공주의료원’ 방면 노선에도 증차가 실시되어 시민 일부 불편도 함께 해소됐다.

공주시는 이번 노선 개편이 학생들의 교통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주민 의견과 교통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 중심 교통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3-19

눈높이에 맞는 임신 출산 지원으로 든든한 출산환경

: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공주시가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저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눈높이 맞춤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는 물론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출산을 지원하는 공주시의 선도적 노력은 지역사회에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1. 감소하는 출생아, '든든한 출산환경' 마련 절실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공주시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속 감소하며 지역사회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이 많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공주시는 2023년부터 연간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전·산후 관리, 저소득층 대상 각종 건강관리비 지원, 영유아 영양 관리와 기저귀·분유 지원 등 실질적 도움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주력한다.

환경성센터(가족과 함께하는 자연힐링 태교)



2.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과 서비스 안전망 강화

지역 내 분만 취약지 문제는 산모와 영유아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주시는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필수 의료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응급 분만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해 시술비와 한방 치료비 지원, 건강관리로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를 넓히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3. 지속적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시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만 대상이던 건강관리비 지원을 모든 임신부로 확대했으며,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임산부의 날’ 행사와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 체계적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신뢰하고 누릴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추진 내용

구분	추진 내용	
2023년	공모 선정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출산 가정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규(자체)	예비·신혼 부부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신규(자체)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저소득층 100만 원, 일반 50만 원)
	확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22년 44회→'23년 88회)
2024년	공모 선정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매년 운영비 5억 원 지원)
	신규(보조)	임신사전 건강관리 비용 지원(가임력 검진비 지원)
	신규(자체)	영유아 건강관리 물품 지원(영양제 등 건강관리 물품 제공)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소득 기준 폐지, 체외수정 횟수 2023년 16회→2024년 20회)
	확대	예비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추가)
	확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23년 88회→'24년 104회)
2025년	조례 개정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제10조(임산부의 날) 신설
	신규(보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최대 200만 원 지원)
	신규(자체)	출산 건강관리 용품 지원(아기 체온계, 손목 보호대 등 건강관리 물품 제공)
	신규(자체)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필수 의료 장비 지원(6천만 원 보조금 지원)
	확대	영양플러스 사업(대상: 중위소득 65% 이하→80% 이하)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조례 개정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20주 이상 임신부→임산부)

임산부 건강교실



교육복지도시 3-20

시민 건강 증진 위한 ‘체육 복지시설’ 전면 확장

: 축구장·테니스장 새 단장 및 공주교대 수영장 개방

공주시가 급증하는 시민 체육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쌍신 축구장 조성’, ‘시립테니스장 개선’, ‘공주교육대학교 수영장 시민 개방’ 등 대대적인 체육 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 9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스포츠 중심 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쌍신축구장 전경



— 스포츠 인프라 확충 추진 내역



1. 도시 발전과 함께 '체육시설 수요 급증'

공주시가 최근 급격한 도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요구 증가에 직면한 가운데, 기존 체육시설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로 실내 체육시설 수요가 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운동 공간 확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주시의 대응은 시기적절했다.

2. 다양한 체육 복지시설 조성 사업 전개

‘쌍신 축구장 조성’ 사업은 신관동 쌍신공원 일원에 54억 원(도비 5억, 시비 51억)을 투입해 기존 천연 잔디 2면을 인조잔디로 전면 교체하고, 인조 게이트볼장 8면과 관람석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주 시립테니스장’은 월미동 330-7번지에서 30억 원의 예산으로 4면의 실내 코트 증설과 관리동 개보수를 완료, 비가림 시설과 인조 잔디 포장으로 날씨 영향 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공주교육대학교 고마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은 2025년부터 시민에게 개방돼 매년 6억 원의 예산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3. 스포츠 중심도시 도약, 경제 활성화 기대

공주시의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지역 내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여건 개선과 대중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포츠 중심 도시로의 위상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계적 시설 관리와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해 주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3-21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공주시가 충청남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시민들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저조한 합계출산율 여건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건수를 대폭 늘리고 이용자 만족도 100%를 달성하는 등 보편적 돌봄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노력은 4년 연속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과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이어졌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 여성 경제활동 증가 속 ‘돌봄 공백’ 심화

공주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0.72명)보다는 높지만, 충청남도 평균(0.84명)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주시 여성 고용률은 2020년 59.8%에서 2023년 62.1%로 상승했으며, 맞벌이 가구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8.2%에서 51.7%로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은 구조적으로 심화하여 가정의 양육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가족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돌봄’과 ‘안전’ 기능을 통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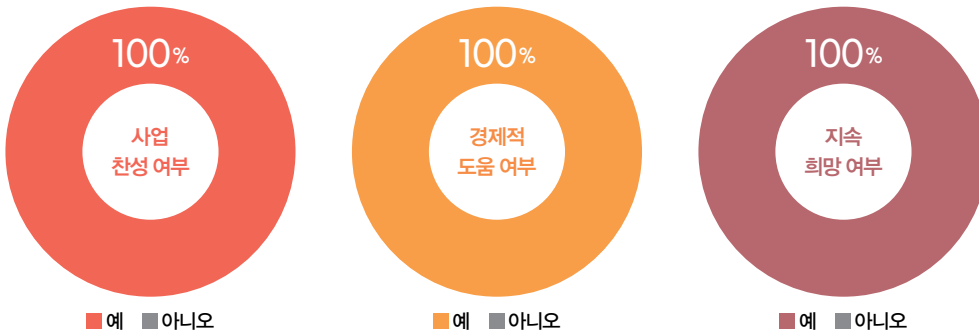
2. ‘아동·가족 친화도시 공주’ 목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아동·가족 친화도시 공주’를 목표로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건수는 누적 53,30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82%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시는 충청남도 시군 중 최초로 자녀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을 도입하여 ‘1자녀 가정’에는 50%, ‘2자녀 이상 가정’에는 100%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양육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월평균 23만 원의 돌봄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 의향 모두 100%를 기록했다.

추진 과정에서 ‘돌보미 인력 부족’과 ‘서비스 수요 급증’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는 지속적인 인력 모집과 교육 확대를 통해 문제를 극복했다. 아이돌보미 인력은 71명에서 88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두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3. 4년 연속 우수기관, 임산부 등록 조기 달성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편적 돌봄 정책의 모범사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충청남도 시군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 체계를 실현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선도 모델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출산 친화 지표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임산부 등록 수는 383명에 이르러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287명)을 조기에 달성하며 연말까지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복지’ 강화는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시민의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여성 친화 도시 공주’ 위상 강화

시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돌보미 교육과정과 멘토링제도를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돌보미의 직무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또한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복지도시 3-22

청소년 심리 안정부터 진로 탐색까지 원스톱 지원

: 청소년 전용 시설 대폭 확충

공주시가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꿈꾸고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용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 공간 마련, '공주시 행복누리 청소년수련관' 개관, 그리고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부터 청소년 수련 활동, 진로 탐색에 이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핵심 성과로 평가되며,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청소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소년 성장 지원 거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03. 개소)



독립 공간 확보 및
전문 상담

청소년수련관
(2025. 06. 개관)



자율 활동 및
복합 문화 공간

진로교육센터
(2025. 08. 개관)



8개 진로체험관 및
진로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개관 후
프로그램 3대 분야 182강좌
4,730여 명 참여 및
25,280여 명의 시설 이용

시설
운영 성과

진로교육센터 개관 후
3,446명 프로그램 참여

공주시 행복누리 진로교육센터



1. 협소하고 낡은 청소년 시설 개선 필요

그동안 공주시는 청소년문화센터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던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좁고 낡은 공간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면서 때로는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왕도심과 강북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수련 활동을 위한 종합 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진로 교육 또한 학교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시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독립 공간 확보로 ‘심리 안정’

시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상담받고 성장하도록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립 공간 마련을 추진했다. 2023년 6월 용지 매입 협의를 시작으로, 2024년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3월 연면적 399.21㎡ 규모의 새로운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에는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대기실, 사업실, 상담실이, 지상 1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실, 상담실, 휴게공간,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전화상담실, 교육실, 센터장실 등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센터는 개소 이후에도 외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아웃리치’(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3.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관

시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복합 공간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청소년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형 복합 공간’을 검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희망 공간이 되도록 설계했다. 시는 2024년부터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2025년 6월 27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행복누림’ 4층과 5층에 연면적 2,464㎡ 규모로 조성했다. 4층에는(댄스, 밴드, 노래)연습실, 행복누림 사진관, 신나는 오락실, (XR·VR)체험실, 강의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휴게실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5층에는 대강당, 교육실, 청소년 수련 마당, 하늘봄 전망대, 다목적실 등이 있어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과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3대 분야 180여 종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4,73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25,280여 명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다. 이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자기 주도적 활동 및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결과다. ‘공주시 청소년 건축학교’, ‘진로체험 박람회’, ‘국제교류’, ‘청소년리더십 성장학교’, ‘청소년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히 기획, 운영되었다. 수련관은 앞으로 청소년 자치기구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미디어 기반 체험교육 확대, 창업·진로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운영 성과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4. 진로교육센터 … 미래 수요 반영한 ‘전문 진로 탐색’ 지원

시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부족과 학교 중심 진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전문 진로 교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아 공간 조성 and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했다.

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인근 지역 및 수도권 진로 교육기관을 현장 답사하며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진로교육센터의 기본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관내 청소년·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벌여 센터 조성에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 수요에 맞는 학습형 진로 교육 공간 구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교육청과 관계기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도출했다.



공주 진로체험 박람회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로교육센터 전시·체험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설치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 8월 29일 개관했다. 공주시 '행복누리' 1층과 2층에 연면적 1,041㎡(전용면적 668.5㎡) 규모로 조성된 진로교육센터는 '의학생명관', '법과학사관', '항공체험관', '반려동물관', '인공지능관', '지역사회관', '친환경관' 등 총 7개 진로체험관과 1개 진로상담실을 갖췄다. 각 체험관에서는 전문 강사와 함께 미래 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습자 주도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진로상담실에서는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관내·외 초·중·고·특수학교 24개교 1,696명, 기관 연계 및 개인 참여 556명 등 총 2,252명의 청소년이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공주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하여 '공주시 진로 체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로교육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세계 탐색·체험·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진로 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캠프', '진로 특강', '자격취득 준비반' 등 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12월에는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에 선정되어 3년간 인증기관으로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진로 개발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지역 기업·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진로교육센터를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3-23

지역 대학과 손잡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공주시가 학령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디지털(DigiCul) 교육나루 공주’를 비전으로 삼아 총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래형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공주교대 늘봄자원센터



1. 학령인구 유출 방지, AI·디지털 시대 교육격차 해소 절실

공주시는 학령인구 유출이 지역 정주 여건을 악화하는 원인임을 인식하고,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주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도시 공주가 보유한 교원 양성 대학(국립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과 연계하고,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환경 혁신을 통해 돌봄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아울러 문화도시 공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산을 고도화하여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디지털 교육나루 공주’ 실현을 위한 3개 목표 28개 과제 추진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97억 원(특별교부금 48.5억 원, 시비 48.5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의 핵심은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디지털(DigiCul) 교육나루 공주’를 비전으로, 3개 목표와 9개 추진 전략,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제는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 국립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지역의 교육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된다.

3.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위해 2023년부터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2024년 6월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7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 특구 2차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5년 1월에는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담당 기구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28개 세부 과제 운영을 위한 추진 기관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내용

목표	전략과제	세부 사업
3개	9개	28개 사업
Ⅰ 다누리 공주형 늘봄교육 (늘봄나루)	1. 공주형 늘봄 교육 체계 구축	1-1. 학습형 늘봄 지원센터 설치
		1-2. 온라인 늘봄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1-3. 공주늘봄교육지원협의회 구축
	2. 촘촘한 늘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2-1. 다양한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 대학 연계 유·초·중·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3. 늘봄학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체계 구축
	3. 늘봄 맞춤형 공간 혁신 및 서틀버스 지원	3-1. 학생 및 주민을 위한 교육복합시설 공모
		3-2. 늘봄 공간 발굴 및 환경 개선 지원
		3-3. 늘봄학교 학생을 위한 서틀버스 운영
Ⅱ AI·디지털로 꿈꾸는 미래인재 육성 (미래나루)	4. 맞춤형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4-1. 학생·학교 특성별 AI·디지털 활용 역량 개발
		4-2. 교원의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4-3. AI·디지털 튜터링 운영
	5. 모든 학생을 위한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5-1.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5-2.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후 AI·디지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5-3. 다문화 학생과 함께 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6. 특성화고· 대학·산업체 연계 맞춤형 지원	6-1. 특성화고-대학 연계 맞춤형 교육
		6-2. 지역사회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고 지역 맞춤형 직업인재 양성
		6-3. 특성화고-로컬사업 연계 지원
Ⅲ 정주형 DigiCul 인재 양성 (문화나루)	7. '내 고장 공주 바로 알기' DigiCul 교육인프라	7-1. 공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연계한 교육 모델 개발
		7-2. DigiCul IB형 교육과정 운영 및 고등학교 활성화 지원
		7-3. 문화나루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8. 문화도시 공주를 이끌 '지역 인재' 양성	8-1. '로컬 헤리티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8-2. '로컬 헤리티지 콘텐츠' 취·창업 지원
		8-3. 지역협력체 연계 '정주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8-4. 청-청 바톤(Baton) 터치-세대공감 멘토링, 상생마을
	9. 로컬 헤리티지 (Local Heritage) 정주체계 구축	9-1. 맞춤형 청년주택 조성 등 정주 여건 확대
		9-2. 로컬헤리티지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
		9-3. 지식기반 미래신산업 거점 조성

4. '공주형 늘봄교육' 체계 구축, AI·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첫째, '공주형 늘봄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가 협력하여 '공주시 학습형 늘봄지원센터'를 대학교 내 설치하고 늘봄 프로그램과 강사 연수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8개교의 늘봄 공간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수익자 부담(강사료, 재료비 등)을 초등학교 3개교에 지원했다. 대학, 지역자원과 연계한 파견형 늘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9개교에 운영하여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

둘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추진했다. 초등학교 13개교에 AI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태블릿 200대를 보급했으며,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의 맞춤형 AI·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AI·디지털 교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립공주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시대 핵심 역량 함양을 도왔다.

셋째, '정주형 디지털(Digicul)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특성화고(공주정보고, 공주생명과학고)와 국립공주대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공주정보고의 역사문화관광 연계 직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트래블테크과 개설)을 지원하고, 국립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로컬 헤리티지 인재 양성'(취·창업) 교육을 운영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협력체와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5. 사교육 선호에 따른 수강생 미달 우려 해소

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임에도 사교육 선호에 따른 수강생 미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관내 대학 등 추진기관 간의 회의와 업무 연락 활성화를 통해 상호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 수요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홍보와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는 2025년 12월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2026년도 추진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복지도시 3-24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활력

: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한 지역 청년 육성 및 활력 지원

공주시는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주형 청년정책은 대외적으로도 그 위상을 인정받아 '제2차 청년친화도시'에 공주시가 최종 선정(2025.12.)되기도 했다.



1. 역량 강화부터 심리 지원까지

공주시는 공주시청년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더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시는 ▲취약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는 ‘청년 다다름’ ▲심리·정서 지원(77회, 322명 수혜) ▲생활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357회, 2,470명 수혜) ▲취·창업 컨설팅 등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6,000명의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으며, 지역 내 일자리 매칭과 창업 청년 브랜딩 컨설팅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 청년을 지역 문제 해결 주체로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지역 청년들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재능 나눔 교육 기부, 지역 문제 연구 활동,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 활동 참여’ 사업에는 약 3,500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호흡했다.



또한 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포럼, 네트워크, 위원회 운영 등 정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9회에 걸친 청년 포럼을 통해 370여 명의 정책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했으며, 25개의 네트워크 그룹이 형성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024년 9월 유치한 ‘동반성장연구소 제2회 청년포럼’에는 성공한 경제 멘토들이 참여해 400여 명의 청년과 네트워킹하는 등 전국 단위 행사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전국 청년들 간의 교류 장을 마련했다.

3. 정부 공모사업 싹쓸이, 충남 대표 청년 도시 인증

공주시의 내실 있는 정책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지역특화 청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은 공주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지정기간 2026~2030년). 공주시뿐만 아니라 공주시 청년센터 또한 내실 있는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2025 충청남도 청년자립 증진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 확보 성과도 눈부시다. 행정안전부의 ‘재도전 지원 지역 활력 프로젝트(국비 2억 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1억 원)’, 충청남도의 ‘청년 정착 지원사업’ 등 매년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2023년 3억 원, 2024년 1억 7,940만 원에 이어 2025년에도 이미 1억 3,000만 원 규모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며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재원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공주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정착하도록 ‘청년 정착 지원’과 ‘재도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선정 청년친화 정책

연도	추진 내용	지원기관	내용	사업비(천 원)
2023년	2023년 충남 청년 정착지원	충청남도	청년들이 공주에서 살아보는 경험 제공	45,900 (도, 시)
	2023년 지역특화 청년 사업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지원센터)	청년 스스로 만드는 '공주시 청년타운' 기획	55,000 (국, 시)
	재도전 지원 지역 활력 프로젝트	행정안전부	공주에서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200,000 (국비)
	계			300,900
2024년	청년다다름사업 <공주제작소>	(재)청년재단	자립준비, 일상 회복 및 취 · 창업 지원	78,000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충청남도	사회 초년 청년 금융 · 심리 · 업무 역량 프로그램	22,000 (도, 시)
	충남 예술로 운영기관 선정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인 자립 역량강화 (6명 채용)	44,400
	지역특화 청년 사업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지원센터)	창업 청년의 소득 창출을 위한 종합문화예술 개발	35,000 (국, 시)
	계			179,400
2025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취약 청년, 미취업청년의 취 · 창업 능력 강화	100,000(국, 시)
	충남형 지역특화	충청남도 (충남청년센터)	창업 청년 비즈니스 네트워크 선진사례 학습	10,000
	지역특화 청년 사업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지원센터)	창업 청년 참여자형 (DIT 방식) 커뮤니티 구축	20,000
	계			130,000

청년네트워크 워크숍



청년성장프로젝트 이미지 메이킹



교육복지도시 3-25

여가, 건강, 소득 등 어르신 삶의 질 전방위 향상

: 스마트 경로당·치매 전수조사·노인 일자리 확대

공주시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충청남도 최초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치매 전수조사 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를 통해 공주시는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소득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의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경로당 노래자랑



1. 경로당 '스마트 복지 거점' 재탄생

시는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여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을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충청남도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며 경로당 현대화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316개소의 '스마트 경로당'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상 회의 시스템 16개소,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 화상 회의 시스템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34개소의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타운 조성사업'과 2023년~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경로당 내에 '스마트 건강 측정 장비',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사업 추진 결과, 기초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위험군 어르신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양방향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연중 다양한 화상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공주시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인기 부스로 선정되었고,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주시 스마트 경로당 통합센터 시범방송



2. '치매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맞춤 관리

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주시 치매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65세 이상 관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진단을 받은 시민을 포함해 30,5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24년에는 18,171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여 1,236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했으며, 2025년에는 12,508명을 검사하여 883명의 고위험군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현재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대상자에게 고위험군 및 집중 검진 대상자 조기 검진, 치매 검사비 지원, 조호 물품 지급, 사례 관리 사업, 치매 환자 인지 훈련 교실, 치매 환자 가족 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치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 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등 효율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 어르신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대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023년 2,902명, 2024년 3,461명에서 2025년 4,35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혔다.

특히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초밥 전문점, 베이커리, 피자 전문점, 카페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공동체 사업단'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2024년 공주시니어클럽이 최우수 수행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공주시는 명실상부 최고의 일자리 사업 수행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교육복지도시 3-26

전문 체육시설 확충으로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기반 마련

: 시립다목적체육관 건립·탁구체육관 증축 등

공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활체육의 메카’, ‘전국이 찾는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전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집중했다. 낡은 체육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종목별로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데 총 27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주시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와 행사를 유치하는 스포츠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4년 인프라 (기반 구축)

시립탁구체육관 증축:
15억 원 (연면적 450.91㎡)

교통연수원 축구장 개선:
10억 원 (인조잔디 교체 및 트랙 정비)



2025년 인프라 (대규모 확충)

시립다목적체육관 건립
: 105억 원 (배드민턴 · 다목적 구장)

쌍신종합체육공원 조성
: 54억 원 (축구장 · 게이트볼장)

시민운동장 및 시립테니스장 새 단장
: 총 86억 원 규모

쌍신종합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공주 시립테니스장





1. 급증하는 체육 수요, 전문 체육시설 확충 시급

공주시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데 대응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낡은 체육시설 개선과 종목별 전문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낡은 체육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종목별로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했다.

연도	공공 체육시설	사업비	내용
2024년	시립탁구체육관 증축	15억 원	지상 1층, 연면적 450.91㎡
	충남 교통연수원 축구장 개선	10억 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트랙 정비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18홀(2코스), 13,000㎡
	공주 시립테니스장 개선	35억 원	코트 4면 증설, 관리동 및 휴게실 개선
2025년	쌍신종합체육공원 조성(1단계)	54억 원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8면 등
	시민운동장 새 단장(개보수)	51억 원	육상트랙 및 관람석 교체 등
	시립다목적체육관	105억 원	1동(1관 배드민턴 전용 6면, 2관 배드민턴 4면+다목적)

2.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경제·관광 활력

시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새로 조성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이자,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와 행사를 유치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으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스포츠로 활력이 넘치는 공주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 현황

대회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공주금강배 전국 풋살대회	03. 22.(토)~03. 23.(일)	충남교통연수원	640명
무령왕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07. 21.(월)~07. 27.(일)	쌍신축구장	1,500명
무령왕배 전국 야구대회	09. 06.(토)~09. 21.(일)	시립박찬호야구장, 공주교야구장	520명
무령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09. 11.(목)~09. 14.(일)	공주시립테니스장	800명
공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09. 13.(토)~09. 14.(일)	쌍신축구장, 충남교통연수원	800명
공주백제마라톤	09. 28.(일)	시민운동장	12,100명
전국 유소년 축구 프렌들리매치	10. 18.(토)~10. 19.(일)	쌍신축구장	1,000명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10. 28.(화)~11. 09.(일)	시립박찬호야구장, 공주중야구장	900명
무령왕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1. 08.(토)~11. 09.(일)	백제체육관, 공주시립다목적체육관	1,700명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11. 10.(월)~11. 11.(화)	쌍신게이트볼장	600명
전국 궁도 종합선수권대회 및 전국 남녀궁도 승단대회 & 명궁 궁도대회	11. 14.(금)~11. 19.(수)	관풍정	1,100명

PART.4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역사와 문화로 빛은 더 빛나는 공주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정체성을 살리는 데 시정을 집중했습니다.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근현대 유물과 역사자원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폐금광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 활용으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장했습니다.

공주시는 역사와 문화, 환경을 품은
명품 관광 도시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품격 있는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일군 더 큰 공주

문화관광도시 4-01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금강 변, 명품 수변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 시민 친화형 신관·쌍신공원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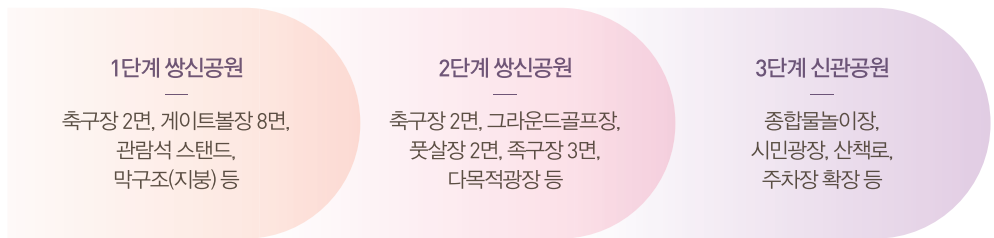
공주시가 금강 변을 중심으로 도심 내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강 수변 친수공간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총 38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신관·쌍신공원 일원을 문화·관광·체육 인프라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미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개최했으며, 시민들의 여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1. 금강 변 여가 공간 부족 해소

공주시는 금강 신관공원과 쌍신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정비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 여가 공간을 확대하며 명소화하고자 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강 수변 친수 공간 내 문화·체육·레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관동 일원(신관·쌍신공원)에 약 380억 원(미확정)의 총사업비를 투입(1단계 54억 원 전액 확보, 2단계 135억 원 중 97억 원 확보, 3단계 191억 원 중 92억 원 확보)할 예정이다.



2. 1단계 사업 완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시는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24년 7월 1단계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승인(국가유산청),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하천 점용허가 승인(금강유역환경청)을 받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완료했다. 1단계 사업 완료는 곧바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개최로 이어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쌍신공원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3. 각종 규제, '투자심사 재신청'으로 돌파 예정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다. 특히 국가하천 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며, 수리 및 구조적 검토 등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2구역에 해당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이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조건부 허가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3단계 사업(종합 물놀이장, 시민 광장 등)은 공산성 주변 경관 및 조망권 훼손 등의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시설물 설계 시 문화재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약 430억 원, 부지 매입비 포함)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2024년 10월 2단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신청서가 재검토되었고, 2025년 7월에는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다. 현재 시는 물놀이장 수요와 편익 분석, 부지 매입비 등 보상비를 포함한 경제성 검토 보완 용역을 발주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할 예정이다.

4. 2단계 공사 발주 준비 및 3단계 사업 협의

시는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24년 7월 1단계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승인(국가유산청),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하천 점용허가 승인(금강유역환경청)을 받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완료했다. 1단계 사업 완료는 곧바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개최로 이어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관광도시 4-02

걸으며 만나고 체험하는 공주 역사와 문화

: 근현대 유물·종교 유산 도보 코스 개발

공주시가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천주교 유적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보 코스 개발과 홍보를 추진하며 왕도심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총 4,330만 원(전액 시비)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제민천과 공주 왕도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4만 5천 부의 리플릿 제작과 배포, 18명의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효정사법당



근현대 유물 · 종교 유산 도보 코스 개발 및 홍보

장소 | 왕도심 내

사업비 | 4,330만 원(전액 시비)

기간 | 2023~2026년

내용 | 도보 코스 답사 및 개발, 리플릿 제작, 홍보, 팸투어 운영 등

1. 제민천과 왕도심,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

공주시는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 · 천주교 유적 등 근대문화의 중심이자 역사 유적의 통로인 제민천과 왕도심 지역이 관광자원으로서 큰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도보 코스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다. 시는 ‘왕도심 코스’라는 상표를 등록해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관광객 안내업, 문화행사, 관광 음식점업, 커피 전문점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한편으로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공주 원도심투어’ 같이 제민천 일대를 걸어서 여행하는 매력적인 코스를 개발했다.

2. 도보 코스 개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근현대 유물 · 종교 유산 도보 코스 개발과 홍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주시 왕도심 내에서 진행된다. 총 4,33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도보 코스 답사, 개발, 리플릿 제작, 홍보, 팸투어 등이 진행됐다. 시는 2023년 4월 6일 도보 코스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같은 달 리플릿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5월에 1만 5천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2024년 5월에는 왕도심 도보 코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팸투어 운영계획을 마련했으며, 1만 5천 부의 리플릿을 추가 제작 · 배포했다. 특히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팸투어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홍보활동에 집중했다. 2025년에도 9월에 1만 5천 부의 리플릿을 제작 · 배포하고, 11월에 팸투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이어갔다.

3. 인플루언서 팸투어로 홍보 효과 극대화

시는 리플릿 총 4만 5천 부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18명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제민천 주변 독립서점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책’을 주제로 한 목적성 여행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인플루언서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관광도시 4-03

백제문화 콘텐츠와 공주 정체성 담은 복합시설 조성

: 공주 정체성 담은 '백제문화촌' 조성

공주시가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공산성부터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거쳐 공주 문화 관광지 일원에 약 2,000억원(민자 포함 추정)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제문화 체험 마을, 백제문화스테이션, 한옥 콘도, 음식 체험지구 육성 등을 진행한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감도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개요

장소 | 공산성-무령왕릉과 왕릉원-공주 문화관광지 일원

기간 | 2023~2030년

사업비 | 약 2,000억 원(민간투자 포함 추정치)

내용 | 백제문화 체험마을, 백제문화스타게이션, 한옥 콘도, 음식체험지구 육성 등

1. 백제문화 콘텐츠와 공주 정체성 담은 관광산업

공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로서 풍부한 백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특구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백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공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관광 산업을 전개하고, 나아가 공주·부여·청양 지역을 세종시의 문화적 배후도시이자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 사업은 웅진백제 왕실문화 스테이, 백제왕도 생활체험마을 등 체계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 공산성-문화관광지 일원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현안보고회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 문화관광지 일원까지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2,000억 원(민자 포함 추정사업비) 규모로, 백제문화 체험 마을, 백제문화스테이션, 한옥 콘도, 음식 체험 지구 육성 등 다양한 복합시설 조성이 포함된다.

이 중 핵심은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이다. 웅진동 472번지 일원(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억 원(도비 150억 원, 시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웅진백제문화왕실스테이’(숙박시설)와 ‘백제왕도생활체험마을’(상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감도



3.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백제문화촌’ 가시화

시는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2022년 12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시군별 사업 제안을 제출했으며, 2023년 9월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2단계 2기 사업 추진 검토를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했다.

2024년 4월에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충청남도 제안사업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달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계획(상가, 키즈파크, 가족호텔)을 백제문화촌(백제왕도생활체험마을, 웅진백제문화스테이)으로 변경했다. 2024년 7월에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충청남도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400억 원(도비 150억 원, 시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2024년 7월 백제문화촌 용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8월에는 성토재를 반입해 용지 조성에 착수하는 등 물리적인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2024년 12월에는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충청남도 제안사업 본계획서를 제출하고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공공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했다. 다만, 2025년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의뢰) 결과가 '재검토' 통보되면서 잠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2025년 9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 심의가 확정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시는 2030년까지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주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시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도시 4-04

탄천면 폐금광, 금빛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 폐금광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공주시가 폐광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탄천면 일원의 폐금광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탄천면의 장소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광 발전 전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금광 활용 관광자원 개발

장소 | 탄천면 일원

사업비 | 17억 원(시비)

기간 | 2023.~2025. 12.

규모 | 폐금광(점안골, 사장골, 안정골, 발골) 개발과 관광 기반 시설 조성

1. 폐금광 지역의 잠재력 발굴

탄천면 일대는 남산광산 외 점안골 등 여러 폐금광이 있는 지역으로, 과거 번성했던 금광의 역사가 있으나 폐광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주시는 폐금광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폐금광을 개발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탄천의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공주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 폐금광 활용과 기반 시설 조성

단천면 마을발전 토론회

‘폐금광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단천면 일원에서 추진된다. 점안골, 사장골, 안정골, 발골 등 폐금광 주변과 기반 시설 조성에 총 1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금광 개발을 위한 관광시설 조성(금빛탄천 상징 조형물)은 주민 참여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회전교차로에 탄천의 명성을 상징하는 ‘금빛탄천 상징 조형물’을 했다. ▲관광인프라 조성은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시비로 투입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단천면 일원의 농로 포장과 마을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마을 발전 토론회부터 상징 조형물 설치까지

폐금광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1년 10월 5일 마을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 9월 16일 ‘단천면 폐금광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2023년 5월 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주민 참여 예산 신청을 받아 사업의 민주성을 확보했다.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인프라 조성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6월에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금빛탄천 상징 조형물’을 제작·설치했다.

특히, 시는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폐금광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전 조치를 시행하며 갭도를 복구하여 안전하게 관람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썼다.

시는 폐금광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재도약을 위해 ‘사금 채취 체험활동’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며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하여 폐금광을 활용한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도시 4-05

무성산 홍길동 설화 품은 힐링 테마길 조성

: 홍길동 테마길 등 힐링 공간 조성

공주시가 의적 홍길동 설화가 전해지는 대표적인 등산로인 무성산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홍길동 테마길 등 힐링 공간 조성 사업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5억 6,500만 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무성산 일원에 홍길동 포토존과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공주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관광인프라 조성	
위치 우성면 무성산로 851 일원		사업비 1억 1,736만 5천 원	
기간 2025. 03.~12.		내용 1) 한천리(118-3) 외1마을 농로 포장 공사 / 3,923만 원	
사업비 3천만 원		2) 한천리(217-2) 외3마을 공사 / 7,813만 5천 원	
내용 홍길동 포토존, 휴게쉼터 조성			

한천도로(면도101호) 확포장 공사		
위치 우성면 한천리 일	사업비 4억 1,877만 원	내용 사회기반시설 도로 확장

1. 홍길동 설화 배경 무성산, 잠재력 발굴 필요

우성면과 정안면, 사곡면에 걸쳐 있는 무성산(茂盛山, 614m)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의 근거지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길동이 여동생과 차별과 천대를 불평해 세상에서 중적을 감추고 무성산 석굴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오누이 성 쌓기 설화’, ‘무성산 걱정봉 설화’ 등 홍길동과 관련된 다양한 구전 설화가 살아있는 대표적인 등산로이다. 이처럼 무성산은 꾸준히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홍길동 포토존’ 및 ‘관광 인프라’ 조성

홍길동 테마길 등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우성면 한천리 일원에서 진행했다. 총 5억 6,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해 홍길동 포토존과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였다. 시는 2022년 8월 10일 한천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3년 4월 27일에는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고, 5월 25일에는 우성면 한천리 주민의 사업 선정 건의 요구를 제출받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후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인프라 조성에 주력했으며, 2025년 6월에는 무성산 홍길동 안내표지판 설치와 현행화를 완료했다. 또한 홍길동 포토존과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개선했다.

문화관광도시 4-06

꽃 피는 유구읍, 수국정원과 함께 변화의 바람

: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

유구읍이 옛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리고 유구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성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유구천 변 색동수국정원 활성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총 33억 420만 원(도비 9억 8,550만 원, 시비 23억 1,870만 원)을 투입하여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꽃 축제 개최 등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매년 6월 열리는 꽃 축제는 누적 관람객 40만 명을 유치하며 유구읍을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1. '색동비단' 정체성 살린 관광 자원화 모색

유구읍은 한때 '색동비단' 생산의 중심지로 옛 섬유 산업의 번영을 이끌었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주시는 유구읍이 가진 '색동비단'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 유구읍을 가로지르는 유구천 변의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읍만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2. 수국정원부터 관광개발계획 수립까지 종합 추진

'유구천 변 색동수국정원 활성화'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유구읍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규모는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 사업 1식, 유구읍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1식,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매년 1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 사업은 2021년 4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2년 6월 '제1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알렸다. 2023년 1월에는 유구읍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3년 6월 색동 둘레길 조성 사업과 '제2회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3년 12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4월 수국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는 등 시설 및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2024년 6월에는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제3회 꽃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4년 12월 진입 경관개선 사업을 포함한 '색동수국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며 사업의 물리적 기반을 완성했다.

시는 2026년 6월 '제5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축제 개최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구읍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및 제2회 공주 정의송 수국가요제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경관개선	색동돌레길 조성 : 아스콘 포장(L=590m), 안전 펜스(L=90m), 쉼터 2개소, 벽화 설치 1식 진입 경관개선 : 색동수국문화공간 조성 : 파고라 1개소, 텍시승강장 1개소, 벤치 9개소, 가로등 6개소, 수국화분 28개소, 포토존(벽화) 3개소
시설물 설치	주차장 조성 사업 : 주차장(A=940㎡, 주차면 수 27면) 조성 자전거 대여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
역량 강화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발굴



유구색동수국정원



문화관광도시 4-07

밤에도 빛나는 ‘힐링 명소’로 재탄생한 계룡저수지

: 계룡저수지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 및 정비

계룡면 중장리 계룡저수지 일원이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밤에도 빛나는 ‘힐링 명소’로 재탄생 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3억 원(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룡저수지 둘레길 1.0km 구간에 LED 야간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

계룡면 계룡저수지 환경정화



계룡저수지둘레길 경관조명 설치 및 정비

위치 | 계룡면 중장리 828번지 일원

기간 | 2023년

사업비 | 3억 원(도 9천만 원, 시 2억 1천만 원)

내용 | LED 야간경관 설치

1. 계룡산 인접, 풍부한 관광수요에 대응

계룡저수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와 신원사에 인접해 꾸준한 관광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대규모 관광시설보다는 자연경관 보존에 중점을 두어 가족 단위의 여가와 휴양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여가 공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시는 계룡저수지 둘레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운치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2. 둘레길 1.0km 구간에 LED 경관조명 설치

‘계룡저수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룡면 중장리 계룡저수지 일원에서 진행했다. 총사업비 3억 원 중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이 투입되어 계룡저수지 둘레길 1.0km 구간에 LED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정비가 이루어졌다. 계룡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LED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했으며, 특히 밤에 방문하면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도민참여예산 사업 선정부터 준공까지

시는 2022년 9월 ‘도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에 ‘계룡저수지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2023년 5월 계약 의뢰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사업을 준공했다. 아름다운 경관조명은 계룡저수지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야간관광 콘텐츠 부족을 해소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계룡저수지가 계룡산 인근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연계하여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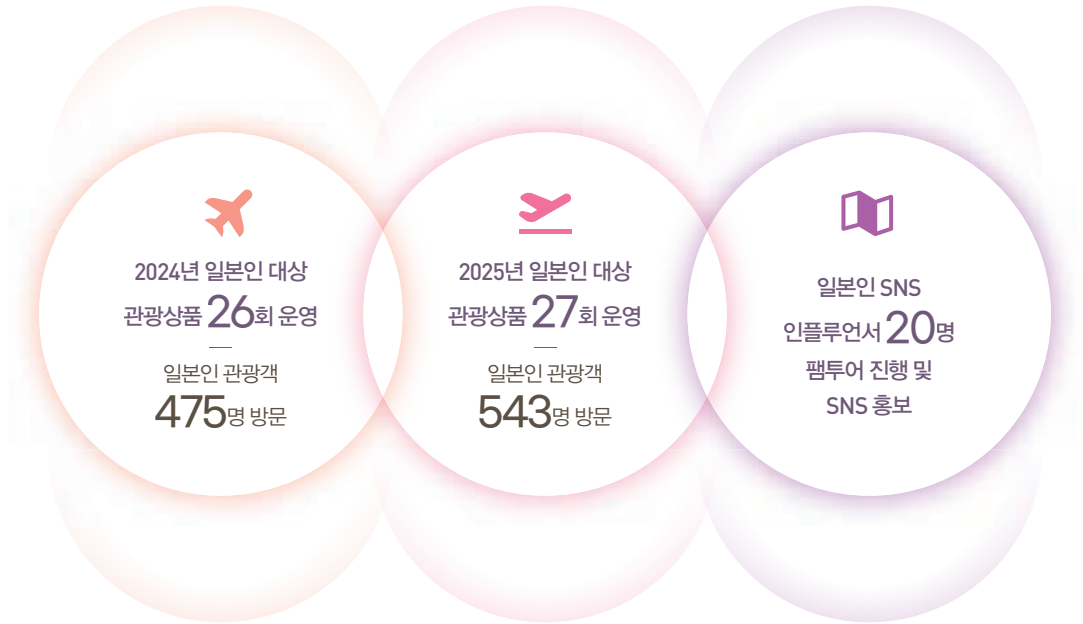
문화관광도시 4-08

백제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성과

: 일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글로벌 마케팅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한 풍부한 백제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총 1억 2천만 원(전액 시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부터 일본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 등 홍보의 초석을 다진 결과 2024년과 2025년 2년간 총 1천여 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백제전 팬투어



1. 공주 관광자원 활용한 일본 관광객 공략

최근 관광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행 정보를 얻는 추세가 증가하면서, 공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일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주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에 백제문화를 비롯한 공주시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팸투어’와 ‘관광상품’ 두 축으로 진행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주시 관내에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사업 내용은 일본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과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 운영 두 가지다.

일본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은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여 공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일본 현지에 홍보하도록 유도한다.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 운영은 공주시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여행객들에게 제공한다.

3. 엔화 하락 난관 딛고 관광상품 운영 재개

시는 2022년 9월 일본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팸투어를 진행하며 공주의 매력을 일본에 알렸다. 2023년에는 일본 언론사와 여행매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팸투어를 진행하고 관광상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2023년 9월, 엔화 가치 하락 및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2024년 6월 일본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을 재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시 활기를 찾았다. 2025년에도 관광상품과 인플루언서 팸투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4. 총 53회 관광상품 운영, 인플루언서 SNS 홍보 효과

2024년에는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을 26회 운영하여 475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공주를 방문했다. 2025년에는 27회 운영을 통해 543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총 53회 운영, 1,018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일본인 SNS 인플루언서 2024년 10명, 2025년 10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도 진행했다. 이들을 통해 공주시의 매력을 일본 현지에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5. '부산 인바운드 여행사' 협력 모색

시는 최근 단체 여행보다 개인 여행을 즐기는 추세로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수도권 여행사를 섭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수도권 여행사보다는 일본과의 교류가 많고 모객력이 강한 부산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를 섭외하여 일본인 단체 관광객 모집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공주시의 노력이다. 시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도시 4-09

공산성-무령왕릉, 유네스코 유산을 잇는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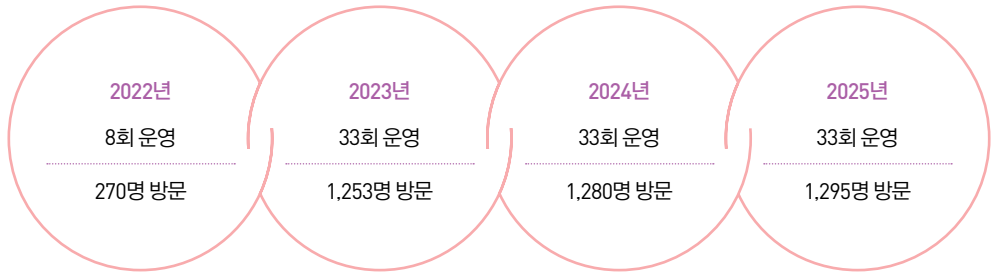
: 공산성-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주시가 세계유산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하는 맞춤형 도보 관광상품이 대도시 관광객들의 건강과 힐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한 이번 사업은 두 역사 유적지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4년간 총 4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는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무령왕의 길' 공연



— 공산성-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



1. 관광수요 대응 역사·문화유산 연계 프로그램 필요

최근 대도시 관광객들 사이에서 건강과 힐링을 겸할 수 있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핵심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두 유적지를 잇는 도보 상품을 개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주시는 ‘공산성-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 관광수요 대응 역사·문화유산 연계 프로그램 필요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8천만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했다. 사업의 핵심은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하는 도보 중심의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동시에 건강 증진 활동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22년 8월 3일 관광상품 운영 계획을 수립한 이래 매년 꾸준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4,098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러한 수치는 공주시의 관광자원 연계 상품이 대도시 관광객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백제 역사 교육과 관광 허브 역할 기대

시는 앞으로도 2026년에도 ‘공산성-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백제 역사 교육의 장이자 건강과 힐링을 선사하는 관광상품으로서 공주시가 역사 문화 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며, 공주시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산성 수문병 교대식

문화관광도시 4-10

역사 인물 기념 공간 조성, 방문객과 시민 편의 증진

: 영규대사 묘역 주변 정비사업

공주시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영규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묘소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 8천만 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용 화장실, 진입로 등을 설치하고 묘역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계룡면 영규대사 묘 제초작업



영규대사 묘역 주변 정비사업 개요

장소 | 계룡면 유평리 산5번지 일원

사업비 | 4억 8천만 원(시비)

기간 | 2022~2025년

규모 |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차장 조성, 공용 화장실 설치, 진입로 설치

1. 숭고한 정신 기릴 '체계적 묘역 정비' 필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모집하여 왜군을 물리치고 전투 중 부상으로 순국한 영규대사는 공주 출신의 위대한 역사 인물이다. 그의 묘소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계룡면 유평리 산5번지에 있으며, 인근에는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매년 열리는 등 지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묘소 주변의 미흡한 정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영규대사 묘소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영규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역사 인물 기념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진입로 조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영규대사 묘역 주변 정비

2. '종합정비계획'부터 '시설물 조성'까지

'영규대사 묘역 주변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억 8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차장 조성, 공용 화장실 설치,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시는 기념 공간 입지 분석, 시설 규모 및 내용 선정 등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 용역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8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0월 착수해 2023년 8월 완료됐다. 그리고 867㎡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주차장 주변 도로포장과 조경 정비를 진행하였고, 29.59㎡ (1동) 규모의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영규대사묘 진입로와 배수로 설치, 비석과 안내판 보수 등 묘역 진입의 편의성을 높이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했다.





3. 기념관 설계비 미반영 등 난항, 편의시설 설치 완료

시는 2022년 9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을 착수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2022년 12월에는 영규대사 기념사업회, 사적현창회 등 관련 단체와 면담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2023년 4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8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제출했다.

애초 시는 묘역 인근에 '기념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2023년 8월 충청남도에 기념관 설계비를 요청했으나 미반영되었고,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미반영되는 난항을 겪었다. 2024년 4월 용지 매입 예산을 확보했으나, 6월에는 토지 매입 협의 과정에서 가격 불만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2024년 8월 묘역 주변 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조성에 힘썼다. 그 결과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7월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했다. 2025년 11월에는 영규대사 묘 보수 정비 사업에 착공하여 진입로와 배수로 설치, 비석 및 안내판 보수를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한 추가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규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문화관광도시 4-11

세계유산 공산성 주변 관광 콘텐츠 추가 확보

: 은개골 역사공원 주변 탐방로 조성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주변 탐방로를 조성했다. 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억 2천만 원(국비 2억 2,400만 원, 도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옥룡동 산1-1번지 일원에 600m 길이의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탐방로를 조성했으며, 이는 은개골 역사공원의 매력을 더하고 공산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 은개골 역사공원 활성화와 관광 접근성 개선

은개골은 2019년 공산성 인근에 조성된 역사공원으로, 골짜기 지형과 시냇물, 수목원, 꽃동산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주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역사공원의 관광 자원화 필요성을 인식해 주변 탐방로 조성을 결정했다. 옥녀봉성 미보상 잔여 토지 매입 완료 후 2023년 설계 용역을 시작, 2024년 예산 확보와 설계 마무리를 거쳐 6월 공사를 착공했다.

1. 문화재보호와 시민 안전 고려한 친환경 탐방로 완성

탐방로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600m 구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주차장과 진입로 정비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들도 마련됐다. 본 사업을 통해 은개골 역사공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체험 기회 확대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방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은개골 역사공원

사업개요

위치 | 옥룡동 산1-1번지 일원

기간 | 2023~2024년

사업비 | 3억 2천만 원(국비 2억 2,400만 원, 도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

내용 |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탐방로 조성 600m

문화관광도시 4-12

주미산 내 주변 연계 자원 활용한 건강 투어 코스 개발

: 4개 헬스투어 코스 조성

공주시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주미산 내 주변 연계 자원을 활용한 건강 투어 코스 개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2023년 총 3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금학 수원지 길, 치유의숲, 환경성 건강센터, 우금티전적 등 주미산 일원의 친환경 자원과 시설을 연계한 4개의 통합 헬스투어 코스를 조성했다. 2025년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2,1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공주시민 건강 증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주미산 연계 자원 활용한 건강 투어 코스 개발

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을 인식하고, 주미산 내 연계 자원을 활용한 건강 투어 코스 개발을 추진했다. 주미산 일원에는 금학 수원지 길, 치유의 숲, 환경성 건강센터, 우금티전적 등 뛰어난 친환경 자원과 시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제각각 운용되어 방문객들에게 통합적인 건강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산재한 친환경 자원과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건강, 생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통합된 헬스투어 코스'를 조성하고자 했다.

2. 주미산 내 4개 헬스투어 코스 조성 완료

금학생태공원과 환경성 건강센터를 활용한 헬스투어 코스 개발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미산에서 추진되었다. 총 3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4개의 헬스투어 코스를 조성했다. 2024년 3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의 이행 완료 보고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사항 목표 달성을 확인했다.

헬스투어 프로그램은 개설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별도의 프로그램 참가 없이 헬스투어 코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헬스투어 코스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헬스투어 코스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검토

시는 현재 주미산에서 ‘주미산치유린’ 등 5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호응이 좋은 ‘네트벤치’ 등 편의시설은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헬스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건강 활동을 즐기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주가 ‘건강 도시’로서 위상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 헬스투어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2024년 프로그램
참가자 **1,252**명
.....
(남 522명, 여 730명)

2025년 프로그램
참가자 **2,100**명
.....
(남 750명, 여 1,350명)
※ 전년 대비 약 67% 증가



문화관광도시 4-13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미르섬 꽃무리

: 미르섬 계절별꽃단지 조성

금강둔치공원에 있는 미르섬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변 환경을 활용한 '사계절 꽃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감성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만㎡ 면적에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과 화초류를 심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감성과 휴식을 느끼도록 했다. 특히 유채, 사스타데이지 등 풍성한 꽃들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인생샷 명소'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자연경관 중심 관광지에서 감성 관광지로 이미지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미르섬



미르섬 계절별꽃단지 조성 사업개요

장소 | 금강둔치공원 내 미르섬

규모 | 40,000㎡

기간 | 연중

사업비 | 12억 원(꽃 구매 재료비와 직영 인건비)

1. 사계절 관광 활성화와 생태·경관 가치 향상

시는 금강둔치공원 미르섬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변 환경을 갖추고도 계절별로 변화하는 자연미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생태 가치와 경관 가치를 키우고자 했다.

문화재와 자연을 배경으로 한 계절별 테마 꽃단지를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속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시는 금강둔치공원 미르섬 4만㎡ 용지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꽃 구매 재료비, 직영 인건비)를 투입했다.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로 이루어진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절 꽃을 직접 선택하고 심어 사계절을 테마로 한 꽃단지에 계절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방문객들의 많은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대백제전 불업조성을 위한 미르섬 꽃묘식재 행사



제54차 세계환경의날 맞이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

2. 2025년 백제문화제와 연계, 꾸준한 관광객 증가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며 연중 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제71회 백제문화제' 조성계획과 현장점검, 개최 결과 보고와 연계하여 가을철 미르섬의 경관을 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

2025년 10월 코끼리마늘꽃을 심어 월동 준비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계절 꽃단지 용지 정비와 유채 파종 후 월동 준비를 마쳤다. 2026년 3월부터는 튜립 및 봄꽃 초화류 식재를 시작한다.



제54차 세계환경의날 맞이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



3 '인생샷 명소' 입소문, SNS 게시와 사진동호회 방문 급증

꽃단지에 유채, 야스타데이지, 코끼리마늘꽃, 고급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계절 꽃들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간접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진동호회 방문이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인생샷 명소'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미르섬이 자연경관 중심 관광지에서 감성 관광지로 성공적인 이미지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시는 현재 계절 꽃의 단조로움이 있어 수종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다채로운 꽃을 선보여 미르섬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르섬은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주의 대표적인 감성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도시 4-14

사계절 축제 성공으로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 사계절 축제 성공적인 개최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사계절 내내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공주시 축제는 매년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겨울 공주 군밤 축제, 석장리 구석기 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공주 야밤 맥주 축제, 백제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6회 겨울공주군밤축제



1. 겨울 공주 군밤 축제, 중부권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

겨울 공주 군밤 축제는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공주 알밤’을 주제로 한 겨울 축제이다. 금강신관공원을 중심으로 따뜻한 군밤 향기와 겨울 정취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먹거리를 제공한다. 이 축제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 현황

행사	방문객 수	경제적 직접 효과	방문객 만족도
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2023)	75,644명	2,252,872,581원	5.52점 / 7점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2024)	157,732명	5,643,989,193원	5.82점 / 7점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2025)	241,064명	7,916,676,400원	5.97점 / 7점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개막식

2. 석장리 구석기 축제, 역사·문화 체험형 에듀테인먼트 축제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인 석장리유적을 배경으로 열리는 역사·문화 체험형 축제이다. 구석기시대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을 통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지역의 역사 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위상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에듀테인먼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현황

행사	방문객 수	경제적 직접 효과	방문객 만족도
2023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2023)	19,738명	466,756,778원	5.26점 / 7점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2024)	28,713명	4,517,456,764원	6.03점 / 7점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2025)	61,078명	1,915,930,533원	5.80점 / 7점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3.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여름철 지역 대표 꽃 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여름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국과 포토존,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여름 축제이다. 최근 정의송 수국가요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수국 전시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꽃을 매개로 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현황

행사	방문객 수	경제적 직접 효과	방문객 만족도
제2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2023)	131,666명	4,978,939,348원	4.85점 / 7점
제3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2024)	113,415명	3,863,588,747원	5.14점 / 7점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2025)	79,762명	10,531,822,374원	5.21점 / 7점

4. 공주 야밤 맥주 축제,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히는 도심형 페스티벌

공주 야밤 맥주 축제는 여름밤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이다. 맥주와 음악, 야경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페스티벌로,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맥주와 다양한 공연, 풍성한 먹거리가 더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 확대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더 기대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공주야밤 맥주축제 현황

행사	방문객 수	경제적 직접 효과	방문객 만족도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2022)	27,164명	1,402,124,188원	6.18점 / 7점

5. 백제문화제, 1,500년 역사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백제문화제는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웅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문화 축제이다. 백제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과 퍼레이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백제의 미의식을 널리 알리며,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문화제

행사	방문객 수	경제적 직접 효과	방문객 만족도
제68회 백제문화제(2022)	659,392명	24,209,836,980원	5.72점 / 7점
2023 대백제전(2023)	1,811,523명	58,899,858,822원	6.02점 / 7점
제70회 백제문화제(2024)	996,038명	33,090,374,436원	6.20점 / 7점
제71회 백제문화제(2025)	1,134,342명	46,108,408,190원	6.04점 / 7점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



제71회 백제문화제 무령왕의 길

문화관광도시 4-15

도시재생 거점시설 잇따른 조성, 원도심에 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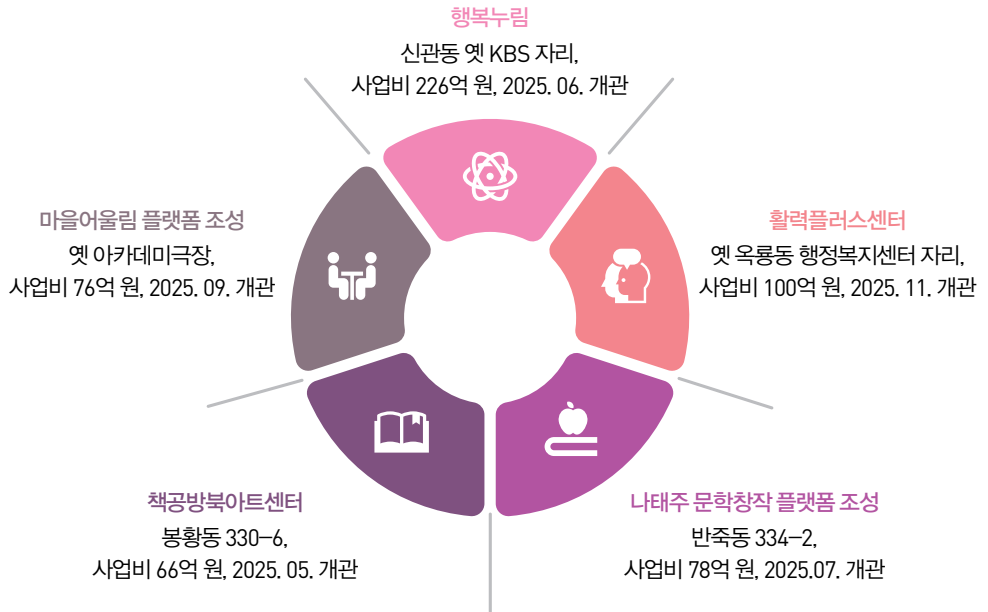
: 품격 있는 시민 생활 문화 거점 확충

원도심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잇따라 들어서면서 생활 편의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시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마을어울림플랫폼,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행복누리, 책공방 북아트센터 등이 잇따라 문을 연다. 공주시는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속해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 공주 원도심의 번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준공 및 개관식



— 시민 생활 문화 거점 확충



1. 나태주 꽃문학과관,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거점

공주시는 ‘꽃문학과’ 나태주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창작과 시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 사업’(나태주 꽃문학과관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7월 나태주 꽃문학과관 신관 개관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착공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원(국비 33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반죽동 334-2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연면적 950㎡ 규모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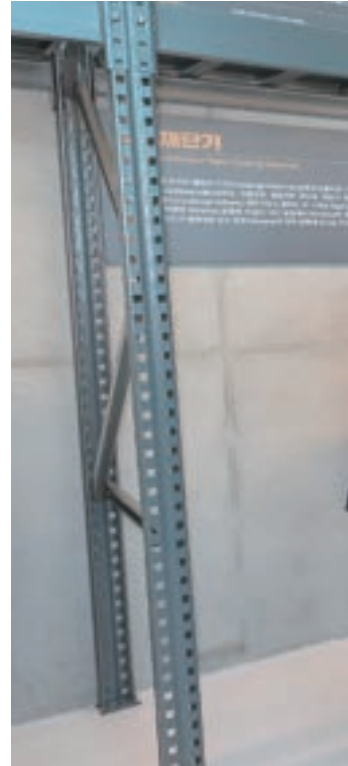
문학관은 시인이 수집한 그림과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품을 함께 선보이며,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꽃문학과관 지, 주민 공동이용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시인의 감성과 철학을 직접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공주시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2.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시는 책을 콘텐츠로 한 문화시설 ‘공주 책공방북아트센터’를 개관하며 왕도심 방문객과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봉황동 330-6번지 일원 3,018.7㎡ 용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45.72㎡ 규모로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상설·기획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등을 조성했다. 오래된 폐건물(옛 드림마트)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의 사업 방향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민선 8기에 접어들어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 확보 노력으로 사업비 증액에 성공하였다. 2025년 5월 28일 개관식을 열어 시설 운영을 개시했으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12,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책 만들기 워크숍 운영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지속 육성하여 주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 시민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시는 총사업비 226억 원을 투입해 부지 6,449㎡에 연면적 7,72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공주시 행복누림’을 건립했다.

행복누림은 생활문화센터, 진로교육센터, 공주만화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주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처럼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누리는 배움의 터’가 되고자 마련된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다. 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꿈을 찾고, 키우며, 실현하도록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개관과 동시에 시작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모임과 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이 교육·문화·여가의 주체가 되는 생활 문화 기반 시설로 빠르게 정착했다.



공주 책공방 북 아트센터 개관식



공주시 행복누리 개관식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개소기념 치담회

3.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도시와 농촌 상생 거점

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핵심 거점인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지역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자문과 지원 등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해 옛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활력플러스센터를 조성했다. 연면적 1147.92㎡ 규모로 조성한 활력플러스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의 통합 사무 공간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주민 활동공간과 공동체의 꿈을 응원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꾸며졌다. 센터 내부에는 공유사무실, 홍보디자인실, 교육실, 활력주방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한다.

시는 앞으로 지역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강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의 발굴 및 육성, 청년과 공동체 창업 교육 및 자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마을어울림플랫폼 개관식 커팅식

4. 마을 어울림 플랫폼 재탄생, 옛 아카데미극장 대변신

시는 2025년 9월 30일 옛 아카데미극장 자리에 복합문화공간 ‘마을ON’(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열었다. ‘마을ON’은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근대문화의 상징이자 공주 시민의 추억이 깃든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1932년 건립한 아카데미극장은 화재로 1943년 재건축된 뒤 오랜 기간 공주 도심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자리하며 근대문화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향수를 담아왔다. 시는 이러한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면부를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 후 신축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999㎡)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시설 내부에는 1층 공유상가 ‘7080 음악다방’, 2층 기획전시실, 작은영화관 ‘1932 공주극장’ 등이 마련되었으며, 영화관은 총 50석 규모다. 앞으로는 중학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이 민간위탁을 맡아 운영한다.

문화관광도시 4-16

‘밤이 즐거운 도시’로 체질 개선

: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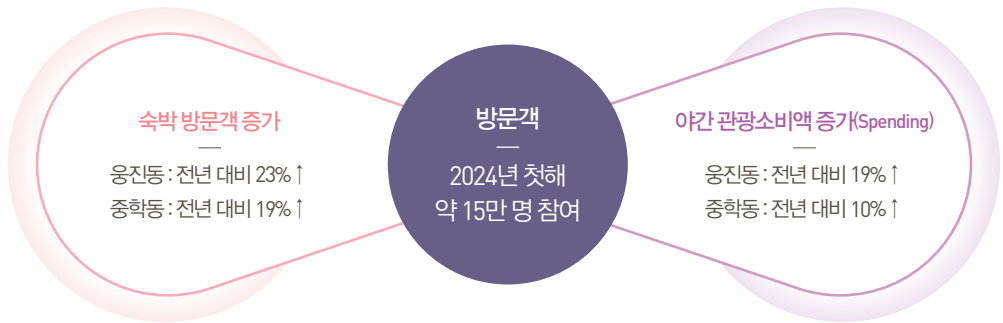
공주시가 역사·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기존 관광 이미지를 전환하고, 제민천과 왕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충청권 대표 야간관광 특화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공주-야(夜), 놀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선포식(캔들라이트)





— 야간관광 활성화 성과



1. 야간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동안 공주시는 주간 중심의 역사·문화 탐방형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고 소비 규모가 제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야간관광을 새로운 관광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제민천과 왕도심, 금강신관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공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야간 콘텐츠와 결합하여 지역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에는 국비 12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24억 원이 투입되며, ‘공주-야(夜), 놀자’ 사업에는 14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되어 전체 사업비는 3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 운영은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공주 문화재 야행

2.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 운영

2025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주 페스티벌’, ‘제민천 밤페스타’, ‘공주에서 날밤까기’, ‘공주 별빛만찬’, ‘캔들라이트 공주온밤’ 등이 있다.

‘공주 페스티벌’은 ‘계절별 공주(Princess)’를 주제로, 계절의 감성과 야간 조명을 결합한 도심형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와 야간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 상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제민천 밤페스타’는 제민천의 수변 공간을 배경으로 주류파티, 야간 공연, 명사 초청 강연 등을 운영하며, ‘국가유산야행’과 연계한 예술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비상설 프로그램인 ‘공주에서 날밤까기’는 금강신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캠핑형 야간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밤샘 파티와 푸드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공주 별빛만찬’은 미르섬에서 진행되는 야외 만찬회로, ‘공주(Princess)들의 우아한 만찬회’라는 콘셉트로 낭만적인 음악과 경관조명을 결합하여 공주의 품격 있는 야간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캔들라이트 공주온밤’은 수천 개의 LED 캔들을 활용한 낭만적인 콘서트로, 공산성의 역사적 공간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야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3. 야간 방문객 증가 및 소비액 상승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2024년 첫 해에는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했다. 주요 사업대상지인 중학동과 웅진동의 숙박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9%, 23% 증가했다. 야간 시간대 관광소비액은 중학동 10%, 웅진동 19%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에는 ‘공주 페스티벌’ 4회, ‘제민천 밤페스타’ 6회 등 상설 프로그램에 1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캔들라이트 공주온밤’에는 1,500여 명, ‘공주별빛만찬’과 ‘공주에서 날밤까지’에는 총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도심 전역이 활기를 띠었다.

4. 상권 연계 부족, 관내 주민 참여율 개선 과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나타났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변 상권의 참여와 협력이 다소 부족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외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내 주민 참여율이 낮았다. 이에 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내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야간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참여율 분석을 바탕으로 흥행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공주만의 야간경관 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공주, 밤이 즐거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제민천 밤페스타



문화관광도시 4-17

폐공간 재생 통한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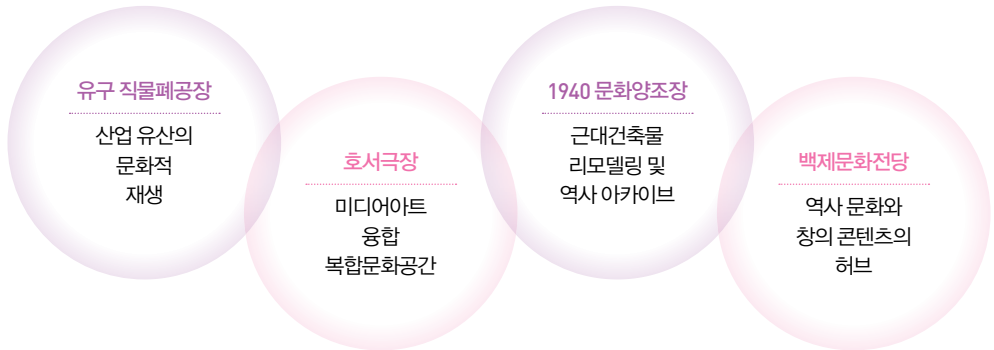
: 역사·산업 유산 문화예술 거점 조성

공주시가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산업시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며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구읍 직물 폐공장’, ‘호서극장’, ‘1940 문화양조장’, ‘백제문화전당’에 이르기까지 총 194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들 프로젝트는 공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문화 감각을 더해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매력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백제문화전당 조감도



— 역사·산업 유산 문화예술 거점 조성



1.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적 재생

공주시는 직물산업의 흔적을 간직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국 개화기에 집중되었던 관광객 방문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주 서북권의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7억 원(국비 35억 원, 시비 72억 원)을 투입해 유구읍 녹천리 26-8번지 일원에 전시관, 카페 및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역사와 예술적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활용 방안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용지 매입 등 각종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했으며,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유희 공간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설계 및 운영 방안 수립 등의 세부 절차를 추진 중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건물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수국 축제 등 지역 행사 시 관광객 주차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구읍 직물폐공장 조감도



공주시립미술관 조감도

2. 미래 세대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호서극장

과거 왕도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던 호서극장은 1967년 개관 이래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유서 깊은 문화 중심지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폐관되었고, 그 역할을 상실한 채 잊혀가는 건축물로 남았다. 이에 시는 호서극장을 미래 세대를 담아낼 역동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핵심 전략으로 미디어아트 융합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2020년 충청남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사업대상지 건물과 토지 매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복잡한 공정관리 등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발주 등 선제 대응을 통해 공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명칭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공주 왕도심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1940 문화양조장, 왕도심의 문화예술 거점

시는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2023년 사업대상지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타당성 심사 결과와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사업 용지 활용 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사업대상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충청남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서극장과 제민천 주변 왕도심 문화 자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의 원형과 그 안에 깃든 역사성과 가치를 최대한 복원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이 공간에는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사업대상지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상설 전시와 팝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점 역할을 하여 왕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7년 본공사 착공 및 2028년 본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4. 역사 문화와 창의 콘텐츠가 공존하는 백제문화전당

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백제문화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공주는 백제의 고도로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현대적으로 향유하고 창작활동으로 확장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허브로서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 추진 방향을 ‘역사 문화와 창의 콘텐츠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정립했다. 사업은 2019년 11월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 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2022년 공공건축 심의 승인과 설계 공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백제문화전당은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였다.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 전문 계약 및 감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안전하게 준공되었으며, 시설 내에는 29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가변형) 상설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장, 체험존, 공방, 식당, 카페 등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조성되었다. 이어 2026년 2월 백제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브랜드 상설공연(뮤지컬, 다원예술, 가족극 등)을 비롯해 백제의 인물·서사·유물 등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공연과 디지털 콘텐츠 전시, 기념품 개발, 무릉공방 운영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백제문화전당은 백제 역사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플랫폼으로서,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관광도시 4-18

금강에 백제 숨결 담은 ‘문화관광 벨트’ 조성

: 백제문화촌 및 국가정원 조성

공주시가 과거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금강 일대를 백제문화와 첨단 기술, 자연이 어우러진 대규모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백제문화촌 조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1,3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강 변을 공주의 정체성을 담은 체류형 관광 명소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 어천~죽당지구 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 역사 · 산업 유산 문화예술 거점 조성

금강, 백제의 숨겨진 머금은 정원으로 재탄생	공주 정체성 품은 백제문화촌 조성
히스토리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된 나대지 → 금강 지방정원 조성	투자 규모 2030년까지 총 1,000억 원 투입
미래 비전 지방정원 운영(3년) 후 국가정원 등록 추진	핵심 시설 웅진백제 왕실스테이, 백제왕도 생활체험마을, 대규모 한옥마을
핵심 가치 생태 환경 보전 + 백제 역사 문화 전승 + 관광 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도약

1. 금강 중심 문화관광 벨트 조성

금강은 예로부터 문화교류 및 무역 활동의 통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천~죽당 구간의 금강 하류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활용되다가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구역으로서 역사 식재 후 나대지로 방치되었다.

공주시는 금강 하류 지역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금강 중심 문화관광 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금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하천 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행위 제한이 많아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비(198억 원)를 중심으로 총 3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정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금강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아 고시했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도 받았다.

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준공 후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정원 등록을 추진하여 금강을 기반으로 생태 환경 보전과 백제문화를 담은 역사 · 문화의 정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2. 백제의 숨결을 담은 1,000억 원 규모의 관광특구

시는 금강 중심 문화관광 벨트 조성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백제의 숨결과 공주의 정체성을 살린 ‘백제문화촌’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한 관광특구를 조성해 공주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30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백제왕도 생활 체험 마을, 저잣거리 창업 육성, 웅진백제 왕실 문화 스테이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백제문화전당’은 2023년 첫 삽을 뜬 뒤 2025년 준공했다. 백제문화전당은 백제의 인물·서사·유물 등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공연·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백제문화를 향유하는 핵심 시설로 주목된다. 아울러 충청남도과 함께 1,000채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백제다움’을 한눈에 보고 느끼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제왕도 디지털 문화유산관’을 총사업비 222억 원 규모로 추진하여 디지털 유산 페스타, 문화재 야행 등 공주의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를 지원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캐릭터 산업을 바탕으로 공주시의 도시 브랜딩과 마케팅, 신규 일감·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3. 종합적인 관광편의 개선, 미래성장동력 발굴

시는 문화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과 편리성, 관광지 내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관광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관광 트렌드 변화와 이용 수요 증대, 토지이용 및 도시 기반 시설 복합화에 대응해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신속하고 쾌적하게 주차할 국내의 스마트 주차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주시의 이 같은 금강 중심 문화관광 벨트 조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공주를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 웅진동 시민과의 대화



문화관광도시 4-19

1,500년 역사 유산을 미래 문화콘텐츠로 활용

: 역사 인프라 확충, 문화 교육도시로 도약

공주시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향유하는 품격 높은 문화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 구석기 유적인 석장리유적의 세계화부터 웅진백제 최초 사찰 대통사지 복원, 330년 역사의 충청감영과 공주목 정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재발견과 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구석기공원

사업 기간 | 2025년 4월 착공 ~ 2026년 9월 완공

핵심 시설 | 구석기전망대, 구석기교육원, 구석기체험공원

기대 효과 | 중부권 유일의 구석기 테마 관광지로서의 독보적 위상 확보

1. 석장리유적 세계화, 세계구석기공원 추진

국가 사적 '석장리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 대표 유적으로, 일본이 부정했던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고도 공주의 시발점이다. 2006년에 개관한 석장리박물관은 구석기 체험 요소를 특화한 세계구석기축제, 국제 특별 전시, 각종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구석기 테마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구석기 전망대 조감도





구석기 교육원 조감도

그러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관람객의 요구와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석장리유적의 독보적인 위상을 활용하여 교육·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외 구석기 테마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세계구석기공원에는 석장리유적과 금강, 세계구석기공원을 조망하는 구석기전망대, 선사 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구석기교육원과 구석기체험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사업은 2025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9월 완공될 예정이며, 공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사업 현황 | 총사업비 89억 원 투입 / 2025년 10월 개관 전시·체험 콘텐츠 | 역사재현, 디지털 유산
 위치 강점 | 공주한옥마을 내 조성으로 숙박과 관광의 유기적 연계
 운영 전략 |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와 유교 강습 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

2. 330년 역사 담은 충청감영 생생마을 개관

‘공주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충청감영 소재지로서의 공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충청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담아낸 전시·체험시설이다. 총사업비 89억 원을 투입,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10월 개관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전시관 1동, 체험관 3동, 사무실과 화장실 등 총 6동으로 1992년 웅진동으로 옮겨 지은 선화당·포정사문루와 접하고, 공주한옥마을 용지 내에 조성했다. 이를 통해 충청감영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알리고 공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역사 문화관광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공주는 백제 웅진시대 중흥의 왕도였으며,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호서지역 중심지로 발전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인 1602년부터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330년 동안 충청감영이 자리했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전시관에는 충청감영 모형,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모형과 영상, ‘신관도임연회도(新官到任宴會圖)’ 영상, ‘충청감영 사람들’ 피규어 등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되었으며 체험관에는 관찰사 집무실을 재현한 좌식 회의실, 현대식 회의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야외 형별 체험시설 등이 갖춰졌다.



시는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 사업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관과 동시에 민간 위탁을 추진했으며, 체험시설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운영비 절감과 활성화는 물론, 충청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아나가기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주목 복원 정비

사업 규모 | 총사업비 약 220억 원 (2020~2027)

주요 복원 시설 | 지상 : 동헌(혜의당), 책장방, 내아, 작청, 의생방, 제금루 복원
지하 : 역사문화 플랫폼(미디어 전시) 및 스마트 주차장 조성

상징적 성과 | 1971년 해체되었던 혜의당(동헌)을 2021년 원래 위치로 이전 복원

3. 공주목 복원 정비로 명품 역사문화도시 실현

공주는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웅주에서 공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고려 성종 2년(983년) 전국의 주요 고을을 대상으로 12목을 지정할 당시 현재의 공주·예산·대전·세종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을 총괄하는 공주목이 설치되어 행정·군사·교육·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주가 백제 웅진시대의 왕도 이후에도 통일신라시대 9주 중 하나였던 웅천주를 거쳐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충청지역 도 단위 통치의 중심지로서 정치·경제·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주목 복원·정비사업은 역사 속 공주의 정체성과 위상을 다시 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주목 복원 정비(혜의당)



특히 공주목사가 업무를 보던 혜의당은 공주목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지만 여러 차례의 수난을 겪었다. 1896년(고종 33년)에 건축된 현재 건물은 1928년까지 공주목, 공주군청 등으로 사용되었다가 1971년 병원 증축으로 해체·철거되었고, 1984년 황새바위 아래 복원되었으나 1986년 화재로 전소됐다. 이후 남은 초석 등의 부재를 수습하여 1993년 웅진동에 복원했으나, 2016년 공주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주목 복원 계획에 따라 2021년 50년 만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됐다.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은 지상에는 동헌(혜의당), 책장방, 내아, 작청, 의생방, 제금루를 복원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역사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시는 고증연구 결과 규모와 배치 양상,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이 명확히 확인된 목관아 부속건물 6개 동을 확인된 위치에 수리·이전·복원하며, 건물들의 배치와 이에 따른 공간별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혜의당, 내아, 책장방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제금루와 나머지 건물들이 복원 추진된다. 공주목 지하 주차장 및 역사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5년 우선 완료하여 임시 개관하였다. 본 시설은 지하 주차공간과 전시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에서는 공주목의 역사 인물 전시와 미디어 영상 등을 상영하고 있다. 총 94면 규모의 지하 주차공간은 왕도심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공주목 복원 정비 조감도





대통사지 발굴 현장 설명회



대통사지 발굴 현장

대통사지 역사공원

사업 목표 | 2028년까지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 완료

최근 성과(2025. 03. 발굴) | 소조 불상편과 백제시대 암키와 대거 출토
사찰 이름 · 창건 시기(527년) · 위치가 확인된 독보적 역사성 입증

추진 전략 | 토지 보상 전문가 영입을 통한 매입 가속화 및 발굴 조사 확대

4. 대통사지 실체 회복과 공원 조성 추진

대통사는 백제 웅진시대 사찰로, 우리나라 고대 사찰 가운데 사찰 이름, 창건 시기(백제 성왕 5년, 527년), 사찰 위치 등이 확인된 최고(最古) 사찰이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반죽동 일대에 ‘대통(大通)’이라 새겨진 기와가 지속해서 출토되어 대통사지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016년 반죽동 194-5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발굴을 이어간 결과 폐기된 대통명 기와를 대거 확인하는 등 점진적으로 백제시대 사찰의 구역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대통사지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수집하고자 토지 매입, 발굴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이 일대에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대통사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구역(반죽동 214-10 일원)을 더 확대하여 사업 구역으로 포함했으며 토지 매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 낡은 슬라브 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서 노령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토지 매입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공주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유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고, 2024년부터는 토지 보상 전문가를 영입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확보된 토지를 중심으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는 사찰 내 목탑 안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조 불상편과 백제시대 암키와 등이 대거 출토되어 이 일대에 대통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향후 이곳에 대통사지를 상징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타당성을 확보했다.

5. 과거 유산을 현재의 삶에 접목

공주시의 이 같은 역사·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들은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삶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구석기시대부터 백제,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공주의 모든 역사적 자산이 새로운 옷을 입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설 것이며, 이는 공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교육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크고 강한 공주를 향해 변화와 도약으로 쌓은 4년

공주시와 시민이 함께 걸어온 민선 8기 4년은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공주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복지·경제 전 분야에서의 발전은
우리 공주가 더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은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며,
공주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공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성장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공주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강한 공주를 향한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주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강화공주
행복한 시민
시민이 중심에 있는 문화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발 행 일 2026년 06월

발 행 처 공주시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 · 840 · 3800

기 획 · 편 찬 기획예산담당관 041 · 840 · 2038

발간등록번호 74-4500000-100040-14

디자인 · 제작 (주)디자인시티 041 · 633 · 6516